

한밤의 도둑

A Thief in the Night

E.W. 호닝 (E. W. Hornung) (1866-1921)

190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W. 호닝 (E. W. Hornung), "A Thief in the Night" (Chatto & Windus 1905)

저자

E.W. 호닝 (E. W. Hornung) (1866-192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09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19세기말 영국 신사 도둑 이야기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래플스 모험담]

글

E. W. 호닝

목차

낙원에서 벗어나 은제 상자 요양 범죄학자 클럽 빌립보의 들판 지독한 밤 도둑을 잡기 위한 함정 신성 모독의 전리품 래플스의 유물들

낙원에서 벗어나다

래플스의 이야기를 더 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음 함께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기록들이 신중함을 기하느라 남겨둔 빈틈을 내가 채워 넣어야 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마도 훨씬 더 거대한 공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그 거대한 공백 위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내 친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려내려 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을 밝힌다고 그에게 해가 될 일은 없다. 나는 그의 얼굴에 난 사마귀 하나까지 빠짐없이 그려 넣을 작정이다.

모든 사실을 다 적고 나면, 래플스는 결국 악당이였다. 사실을 미화하는 것은 그의 명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 전까지 그를 미화해 왔다. 끔찍했던 사건들을 통째로 생략하기도 했고, 그의 선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기도 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악당을 그 어떤 영웅보다 소중하게 만들었던 그 당당한 때

력에 눈이 멀어 나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숨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래플스가 내게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에 대해서도 더는 비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단어를 고를 때 신중을 기하며 고통을 느낀다. 친구에게 변함 없는 충성을 다하고 싶으면서도, 그가 나를 눈 가린 채 유혹과 범죄로 이끌었던 그 3월의 이데스(Ids)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에 비하면, 그 일은 도덕적인 차원의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덜 심각한 일이었으며, 사실 수년 전에 세상에 공개되었어도 무방했을 것이다.

내가 침묵을 지켜온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 사건은 나에게 너무나 사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래플스의 명성에도 너무나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래플스 자신보다 내게 더 소중한 사람, 우리의 이름과 얽여 그 이름마저 더럽혀져서는 안 될 소중한 누군가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친 듯한 3월의 사건이 터지기 전, 나는 이미 그녀와 약혼한 사이였다는 말만 해두겠다. 물론 그녀의 집안에서는 우리 관계를 그저 '서로 통하는 사이' 정도로 치부하며 못마땅해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권위가 내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예의상 그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

을 뿐이다. 우리 사이에는 오직 나의 부족함이라는 문제만 남았을 뿐,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내가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해 가치 없는 수표를 발행하고, 그 후에 궁지에 몰려 래플스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날 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이 말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나는 가끔 그녀를 만났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내 영혼에 더 실려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끔 행동했다. 결국 나는 모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 주간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로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한, 유난히도 화창했던 5월의 끝자락이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신문에 실린 경기 점수조차 들여다볼 기운이 없었다. 로즈 경기장에서 위켓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남자는 래플스뿐이었지만, 나는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려 가지 않았다. 하지만 요크셔를 상대로 그가 100점을 몰아치며 활약했을 때, 래플스는 올버니로 귀가하던 길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런 진귀한 경사에는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하며 축하를 해야지.” 그가 말했다. “내 나이쯤 되면 센추리 하나 치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지는 법이라네. 버니, 자네도 아주 근사한 술 한 병이 간절해 보이는군. 카페 로열에서 8시 정각에 만나는 게 어떨겠나? 내가 먼저 가서 자리도 잡고 와인도 준비해 두겠네.”

카페 로열에서 나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내가 처한 곤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사정을 처음 듣는 것이었다. 우리는 빈 병을 치우고 똑갈

이 질 좋은 술을 한 파인트 더 주문한 뒤에야, 나는 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래플스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내 말을 경청했다. 그는 구구절절 말로 위로하기보다, 적절한 침묵과 절제된 태도로 공감을 표했다. 덕분에 나는 그의 배려에 더욱 고마움을 느꼈다. 래플스는 진작에 이런 복잡한 사정을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기에, 그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내 의견에 동의해주었다.

그녀는 자기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데다, 나 또한 정직하게 돈을 벌 형편이 못 되었다. 나는 래플스에게 그녀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고아로, 대부분의 시간은 시골에 사는 귀족 고모와 함께 보내고, 남은 시간은 팰리스 가든스에 사는 거드름 피우는 정치인의 억압적인 집에서 지내고 계셨다. 내 생각에 고모는 여전히 나에게 남몰래 마음을 써 주고 계신 듯했지만, 그분의 이름 높은 오라버니는 처음부터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헥터 커러더스라니!" 래플스가 그 험오스러운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차갑고도 맑은 눈동자로 나를 뵈며 응시하며 덧붙였다. "그자를 별로 본 적은 없겠지?"

"한참 동안 소식이 없었지." 내가 대답했다. "작년에 이삼 일 그 저택에 머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그쪽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고 내가 찾아갔을 때도 집에 없었거든. 그 노인네,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있는 모양이야."

나는 술잔에 대고 쓰디쓴 웃음을 흘렸다.

"근사한 집인가?" 래플스가 은제 담배 케이스에 비친 제 모습을 훑어 보며 말했다.

“최고급이지.” 내가 말했다. “팰리스 가든스에 있는 저택들은 잘 알고 있겠지?”

"생각만큼 잘 알고 있지는 못해, 버니."

"글쎄, 그중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저택이라네. 그 노인네는 크로이 소스 왕만큼이나 부자거든. 도시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시골 별장 같은 곳이지."

"창문 잠금장치는 어떻게?" 래플스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가 말을 건네며 내민 열린 담배 케이스를 보고 나는 움찔하며 물러섰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에는 즐거움과 장난기가 어린 별빛 같은 반짝임이 서려 있었다. 두 달 전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가 원할 때마다 나를 속절없이 무너뜨릴 그 찬란하고도 대담한 악동 같은 빛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매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 눈부신 시선을 외면했다. 래플스가 굳이 계획을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었다. 미소를 띤 채 열의에 찬 그의 얼굴에 새겨진 뚜렷한 표정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나 또한 결심을 굳히며, 그에 못지않은 열망을 담아 의자를 뒤로 밀어냈다.

“절대 아닐 거야!” 내가 외쳤다. “내가 식사도 했던 집이고, 그녀가 있는 것도 직접 본 집이야. 게다가 그녀가 한 달씩이나 머무는 곳이라

고! 래플스, 제발 입 밖으로 꺼내지 마. 만약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난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릴 테니까.”

“커피랑 리큐어를 마시기 전에는 그러면 안 되지.” 래플스가 웃으며 말했다. “우선 설리번을 한 대 피우게. 그래야 시가 맛이 제대로 살아 나니까. 그리고 말인데, 만약 그 집에 늙은 커러더스가 아직 살고 있었다면 자네의 그 결벽증적인 양심이 아주 빛을 발했을 거라는 점을 꼭 짚어두고 싶군.”

"그가 지금은 거기 안 산다는 말인가?"

래플스가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더니, 먼저 내게 건넸다. "내 말은 이 말이야, 버니. 팰리스 가든스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지. 자네는 올해 내내 그 사람들에게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작은 오해는 충분히 설명이 돼. 나는 집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네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들이 대체 누구인가, 래플스? 커러더스 노인이 이사를 갔다면 대체 누가 그 집을 차지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집이 여전히 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아는 건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로크메이븐 경이라네.” 래플스가 천장을 향해 연기 고리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자네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눈치군. 하지만 자네가 읽어주는 신문 기사라고는 크리켓과 경마 소식뿐이니, 그사이 새로 작위를 받은 귀족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길 바

라는 건 무리겠지.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군. 내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아느냐고? 알아내는 게 내 일이니까. 그게 전부라네. 사실 로크메이븐 부인이 가진 다이아몬드는 커러더스 부인이 가졌던 것만큼이나 훌륭해. 만약 자네가 그 보석들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려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부인도 커러더스 부인이 그랬던 것과 비슷한 곳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두었을 걸세.”

마침 잘된 일이었다. 커러더스 씨가 젊은 시절부터 유독 집착해 온 분야라는 사실을 그의 조카딸에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둑들의 수법을 파헤쳐, 오히려 자신의 수법으로 그것을 무력화하겠다는 일념으로 빈틈없이 연구해 온 사람이었다.

나는 1층 창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빗장과 덧창으로 잠겨 있었는지, 그리고 중앙 홀을 향해 열리는 모든 방의 문에 얼마나 특이한 높이로 보조 잠금장치가 달려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모든 열쇠를 돌려 잠그고 수거하는 것은 집사에게 맡겨진 업무였다. 하지만 서재 금고의 열쇠만큼은 집주인이 직접,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 금고 또한 워낙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금고를 보여주었던 여인이 (그 순진한 마음으로)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작은 장신구들까지도 그 안에 엄숙하게 넣어 잠근다고 장담했었다. 금고는 커러더스 부인의 야만적인 화려함을 보존하기 위해 책장 한쪽 뒤편 벽

안으로 정교하게 매립되어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로크메이븐 가문 사람들도 같은 목적으로 그 금고를 사용할 터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래플스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망설임 없이 넘겨주었다. 심지어 메뉴판 뒷면에 1층 구조를 대략적으로 그려서 건네주기까지 했다.

"안쪽 문들의 자물쇠 종류를 알아채다니, 제법 눈썰미가 좋군요." 그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혹시 현관문도 예일 자물쇠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마침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같이 극장에 갔을 때,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말입니다."

"고맙네, 친구." 래플스가 공감한다는 듯 말했다. "버니, 자네한테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정말이지, 오늘 밤 같은 밤은 또 없을 거야!"

그가 악한 본성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을 때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나는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막 시가를 입에 물었을 뿐인데, 그는 벌써 계산서를 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둘 다 거리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를 말릴 방법이 없었다.

"나도 같이 갈게." 나는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버니!"

“그게 왜 말도 안 된다는 겁니까? 난 그 집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요. 게다가 집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 와서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죠. 무엇보다 난 다른 의미로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도둑이었으니까요!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끝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 때면 나는 늘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오랜 친구는 평소와 달리 내 이런 성미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 리전트 거리를 가로질러 걸었다. 나는 그가 내민 차가운 팔에 매달리듯, 그의 소매를 붙잡아야만 했다.

"정말이지 자네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반대편 연석에 다다랐을 때 래플스가 말했다. "이번에는 자네가 필요 없거든."

"하지만 전 지금까지 제법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도 모르지, 버니.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오늘 밤만큼은 자네가 필요 없네."

"하지만 난 이 바닥을 잘 알지만 당신은 모르잖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말했다. "내가 가서 요령을 좀 가르쳐 주지. 대신 훔친 물건은 단 한 톨도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의 짓궂은 태도로 나를 설득하곤 했다. 그 장난스러운 방식에 결국 그가 행복하고 마는 모습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하지만 래플스는 웃으며 너그럽게 물러날 줄 알았지만, 나는 내 주장을 관철하려다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잦았다.

"이 녀석, 정말 못 말리는 토끼 같으니!" 그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네가 모든 말든 네 뿔은 챙겨 두마. 하지만 농담 말고 진심으로 묻는
건데, 그 여자에를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결국 그녀를 포기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데 당신도 동의했잖아. 사실 나도 당신
에게 묻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굳혔어.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그녀에게
그렇게 쓰겠다고 편지도 보냈지. 그런데 벌써 수요일인데, 그녀는 전
보도, 신호도 전혀 보내지 않고 있어. 그녀가 보내올 단 한 마디를 기다
리는 것 때문에 미칠 지경이야.”

"혹시 팰리스 가든스 쪽으로 편지를 쓰신 건가요?"

"아니요, 시골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답장이 올 시간은
충분히 지났을 겁니다."

우리는 올버니에 도착했다. 피카딜리 입구의 현관 앞에서 우리는 약
속이라도 한 듯 발을 멈추었다. 서로의 입에 문 붉은 시가만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방에 가서 답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겠나?" 그가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때를 놓쳐서 수습할 수 없게 된 뒤
에 그녀를 포기한다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늦었어. 난 그녀
를 포기했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 가겠어!”

영국에서 가장 난해한 공을 던지던 그 손이, 일단 구질만 제대로 잡히면 말이다,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좋아, 버니!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이 일로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자, 일단 여기서 좀 쉬자고. 네가 그 시가를 제대로 즐기며 다 피울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는 이 흥차 맛에도 익숙해져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말이지, 버니, 내 친구.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그의 방에서 보낸 그 대기 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경험은, 아마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나는 시계를 살피느라 한쪽 눈을 실 새 없이 굴리면서, 다른 한쪽 눈으로는 래플스가 무자비하게도 열어주지 않는 탄탈로스 잔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래플스 스스로도 그 상황이 마치 크리켓 경기를 할 때 패드를 찬 채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가 세계적인 거장인 그 경기에 대해 내가 가진 경험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상황이 속을 뒤틀리게 할 만큼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반면, 나는 막상 비유적인 의미의 타석에 들어서면 아무렇지도 않았다. 래플스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려 던지는 수많은 허를 찌르는 수법들도, 아마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착하다는 사실을 그가 일찍이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덥석 받아들였던 그 계획에 대해 순식간에,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정이 떨어지고 말았다. 저녁의 들뜬 열기가 식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 저택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양심의 가책과 함께 점점 커져 갔다. 하지만 단순히 거부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부감이 아무리 강해져도, 나는 우리가 너무 충동적으로 중대한 일을 벌이려 한다는 더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감히 래플스에게 이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래플스가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것이라며 흔쾌히 인정해 주었을 때, 나는 그를 이보다 더 사랑하기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 그러나 래플스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로크메이븐 부인과 그녀의 보석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내게 확인했다. 그는 연극의 개막 공연 때마다 그녀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엇을 훔치고 무엇을 포기할지도 이미 오래전에 결정해 두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내가 우연히 제공해 준 저택의 세부적인 지형 정보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목록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저택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각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씩 부족한 점이 있었다. 본드 스트리트 보석상의 경우에는 믿을 만한 공범이 필요했고, 이번 경우에는 저택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지친 의원들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요일 밤이라는 점도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가 그 악명 높은 범죄의 세계를 내게 들려주었을 때, 온 세상이 그를 보고 듣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담배 '설리번'의 연기를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이야기는 그 악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겉모습도, 말투도 결코 그가 범죄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순히 이야기꾼으로서만 따져봐도, 이 세상에서 래플스 같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다시없을 것이다. 그의 말에는 욕설이 섞이는 법이 거의 없었으며, 내 기억 속에서 그가 상스러운 말을 내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마치 외식을 하러 나갈 채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지, 식사를 마친 지 한참 지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남들보다 조금 길었지만, 길다고 해서 결코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 시절 그의 머리카락은 잉크처럼 검었다. 매끄럽고 표정이 풍부한 얼굴에도 아직 주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의 방은 여전히 무질서하면서도 멋스러운 취향이 깃든 아늑한 은신처 같았다. 조각된 책장과 찬장,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참나무 껌깍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와츠와 로세티의 그림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우리가 전용 진입로 입구에서 내리는 대신, 켄싱턴 교회 근처까지 한섬 택시를 타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각이었을 것이다. 래플스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성격이었다. 게다가 마침 엠프레스 룸에서는 무도회가 한창이었고, 춤추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러 서늘하고 한적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목격자가 생길까 봐 더욱 조심스러워했다. 대신 그는 나를 데리고 처치 스트리트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간 뒤, 좁은 골목을 지나 팰리스 가든으로 향했다. 그는 나만큼이나 그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길 건너편에서 먼저 집의 상태를 살폈다. 집은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현관 위에는 희미한 불빛이 감돌았고, 도로에서 더 멀리 떨어진 마구간에는 그보다 밝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좀 김이 빠지는군.” 래플스가 말했다. “부인들이 어딘가 외출 중인가 보군. 꼭 저렇게 분위기를 깨놓는다니까! 마구간 일꾼들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 법도 한데, 불면증이란 게 여자들에게나 우리 같은 직업군에게나 참 지독한 저주라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네. 아마 이 집 아들이겠지. 하지만 그 친구는 워낙 멋쟁이라 아예 집에 안 들어올지도 몰라.”

"또 다른 앨릭 커러더스라니."

내가 기억하는 그 집안사람들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자를 떠올리며,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형제일지도 모르지." 런던의 온갖 뒷골목 사정에 정통한 래플스가 대꾸했다. "글쎄, 버니. 아무래도 자네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군."

"안 될 게 뭐 있겠어?"

"현관문이 그저 덜컹거리는 상태로 걸려 있고, 자물쇠에 대한 자네 말이 맞다면, 나는 마치 이 집 주인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갈 걸세."

그는 사슬에 매단 열쇠 꾸러미를 짊어졌다. 마치 정직한 사람들이 집 열쇠를 챙겨 들고 다니듯 말이다.

"안쪽 문들이랑 금고는 잊으신 모양이군요."

"맞아. 그 일이라면 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버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아."

"그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며 곧장 넓고 한적한 길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길 양옆으로는 넓은 정원을 품은 저택들이 뒤로 물러나 늘어서 있었다. 마치 건너편 저택이 내 집이라도 되는 양 당당한 걸음이었다. 래플스는 뒤에 남겨진 줄로만 알았다. 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어느새 그곳에서 있었다.

"스텝을 가르쳐줘야겠군." 그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발뒤꿈치를 아예 쓰면 안 돼. 자, 여기 잔디 테두리가 있지? 마치 외나무다리를 건너듯 이 위로만 걸어야 해. 자갈은 소리가 나고, 화단은 흔적을 남기거든. 잠깐만, 여긴 내가 안아서 건너가 주지."

진입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문 위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밤새 수레바퀴가 지나가며 골을 만들어 놓은 부드러운 자갈길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금방이라도 소리를 내어 경보를 울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나를 품에 안은 채, 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 위험한 구역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주머니에 구두를 넣다니, 펌프스(pumps)의 묘미가 바로 그거지!"

계단 위에서 그가 속삭였다. 그의 가벼운 꾸러미가 달그락거리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그는 몸을 굽히더니 마치 인자한 치과 의사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열쇠 몇 개를 훑아 보았다. 세 번째 열쇠가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다.

우리가 현관 매트 위에 함께 서 있을 때였다. 그가 천천히 문을 닫으려는데, 집 안에서 시계가 30분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익숙하고도 가슴 떨리게 다가오는지, 나는 나도 모르게 래플스의 팔을 붙잡고 말았다. 나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바로 저런 종소리와 함께 흘러갔었다!

나는 어스름한 빛 속에서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옷걸이와 오크나무 소파, 그 모든 것이 나의 과거였다. 래플스는 내가 도망치듯 나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며, 내 얼굴을 마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셨군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전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가 대답했다. "가구는 헥터 캐러더스의 것이 맞지만, 이 집은 로크메이븐 경의 소유입니다. 자,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몸을 굽히더니 버려진 전보 봉투를 매만지며 펼쳤다. 희미한 불빛 아래 연필로 적힌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로크메이븐 경'. 그 순간 사건의 전말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내 친구들은 가구가

딸린 채로 집을 세놓았던 것이다. 래플스만 빼고 누구라도 처음부터 내게 설명해 주었을 일이었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문 닫아."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고무를 씌운 듯 매끄럽게 문빋장을 걸어 잠갔다.

일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서재 문 앞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작은 랜턴과 등유병을 들었고, 그는 드릴과 가장 큰 비트를 챙겨 들었다. 래플스는 문을 보자마자 예일 자물쇠는 포기했다. 자물쇠는 손잡이보다 한참 높은 곳에 달려 있었고, 래플스가 금세 구멍을 뚫어 연결할 사슬의 위치는 그의 눈높이와 비슷했다. 복도에 놓인 시계가 다시 울렸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기 전, 고요한 집 안에는 시계의 종소리가 두 번 울려 퍼졌다.

래플스는 그다음으로 옷걸이에 걸린 실크 손수건을 가져와, 덧창이 달린 창문에 달린 종이 울리지 않도록 꼼꼼히 감쌌다. 그리고는 비상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덧창을 연 뒤 창문까지 열어 두었다. 다행히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라, 바람이 불어와 일을 그르칠 염려는 거의 없었다. 래플스가 금고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책들로 만든 가림막 뒤에 숨겨진 금고를 그에게 보여주었고, 문턱에 서서 망을 보았다.

문턱에 서서 한 십 분쯤 지났을까. 복도에 놓인 커다란 시계 소리와 내 뒤편 금고 안에서 들려오는 래플스의 조심스러운 금속 마찰음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소리가 들려와 내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

다. 위층 복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 역시 앞선 움직임들만큼이나 아주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래플스에게 경고의 말을 속삭이려 입술을 축였다. 하지만 그의 귀는 내 것만큼이나 예민했고, 게다가 조금 더 일찍 알아챘다.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랜턴 불빛이 어두워지더니, 다음 순간 뒷덜미에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제는 속삭이는 것조차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훼손된 문을 닫는 일은 아예 불가능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문턱에, 래플스는 내 팔꿈치 옆에 선 채로, 촛불을 든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했다.

서재 문은 가장 아래쪽 계단과 직각으로 맞닿아 있었다. 그래서 홀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의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했다. 덕분에 누군가 우리 바로 옆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게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그가 부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마치 극장이나 무도회에서 막 돌아온 듯한 차림새였다. 촛불이 우리 시야 안으로 흔들리며 들어오자,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 그런데 촛불이 채 몇 인치도 나아가기 전, 누군가의 손이 내 입을 단단히, 그러면서도 소리 없이 틀어막았다.

적어도 그 일만큼은 래플스를 용서할 수 있었다! 한 호흡만 더 있었던들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촛불을 든 채, 무도회 드레스를 차려입고, 이 깊은 밤중에, 우편함에 넣을 편지를 들고 나타난 그 소녀라니.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마지막 인물이

었다. 하필이면 그녀 때문에 마지못해 머물게 된 바로 이 집에서, 한밤중에 불청객처럼 나타난 그녀를 마주치다니!

래플스를 잊었다. 그에게 품었던 새롭고도 용서할 수 없는 원망조차 잊어버렸다. 그가 내 입을 막았던 손길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 손을 치워주는 예우를 받기도 전의 일이었다. 세상에는 오직 그 소녀뿐이었다. 내 눈과 머리는 오직 그녀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좌우를 살피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녀는 홀 맞은편에 놓인 작은 참나무 탁자로 향했다. 그 탁자 위에는 편지를 넣어 우체통으로 보내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촛불에 의지해 상자를 비우는 시간이 언제인지 읽으려 몸을 굽혔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몸을 곧게 세우고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양손으로 편지를 쥐고 있었다. 고개를 떨군 그녀의 얼굴에는 달콤하면서도 애처로운 당혹감이 서려 있어, 보는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방금 봉인했던 봉투를 뜯어 편지를 다시 읽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고쳐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그때 그녀가 가슴팍에서 장미 한 송이를 꺼내더니, 편지와 함께 봉투에 끼워 넣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 섞인 탄성을 내뿜었다.

어쩌겠는가? 그 편지는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직접 읽은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확신했다. 그녀는 단단히 제련된 강철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다. 한밤중에 장미를 보내며 그녀가 편지를

쓸 상대가 우리 중에 둘이나 있을 리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가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게다가 그녀는 내가 뼈저리게 받아 마땅한 질책을, 자신의 따뜻한 심장에서 피어난 붉은 장미로 부드럽게 달래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있었다. 도둑질을 하러 침입한 비루한 도둑놈이 말이다!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 때까지 내가 소리를 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손들이 나를 그 자리에 꼼짝 못 하게 붙들었다.

외로운 촛불의 희미한 빛 속이었지만, 그녀가 분명 우리를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우리 쪽을 살피는 그녀의 입에선 아무런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역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복도의 시계만이 쉼 없이 흘러갈 뿐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온 집안을 압도했고, 숨이 막히는 꿈속을 헤매듯 1분쯤의 시간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관문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와 벨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우리 세 사람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주인의 아들이야!”

래플스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도주도로 쓰기 위해 미리 열어둔 창문 쪽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가 먼저 창밖으로 몸을 날린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와 창가에 멈춰 선 나를 붙들었다.

“물러나! 물러나라고! 간헐어!”

그가 외쳤다. 내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단 1초 사이, 나는 그가 경찰관 한 명을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어 그는 다른 경찰관 한 명에게 뒤를 쫓기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 나갔다. 그때 세 번째 경찰관이 창가로 달려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 안으로 급히 몸을 돌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홀로 들어선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린 나의 사랑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전까지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거의 쓰러지듯 비틀거리기에 나는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붙들었다. 내 손길이 닿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나를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당신이라니, 하필 당신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나는 그 비난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서재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그녀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그쪽은 안 돼, 그쪽은 안 돼!" 이제 그녀의 손이 내 몸에 닿았다. 그녀는 계단 밑에 모자와 코트가 걸려 있는 작은 벽장 쪽을 가리키며 나를 끌어당겼다. "저 안으로, 저 안으로 들어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나를 벽장 안에 가두고 문을 닫아버렸다.

머리 위층에서 벌써 문들이 열리고 있었다. 누군가 부르면 다른 이가 대답했고, 소란은 들불처럼 방에서 방으로 번져 나갔다. 복도와 계단에서는 내 귓가에 닿을 듯 가벼운 발소리들이 다급하게 오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내가 왜 제 발로 신발을 신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

만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가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내심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를 붙잡은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들렸다. 사람들이 마치 그녀가 기절이라도 한 듯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혐오스러운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바로 나의 숙적, 앨릭 커러더스의 목소리였다. 방탕한 생활로 망가진 농담계 목소리는 걸걸했지만, 그는 감히 그녀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불렀다. 뒤이어 그녀의 낮은 대답이 들려왔다. 정확히는 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분명 다른 이의 다소 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상황을 통해 나는 그녀가 결코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층 말인가요, 아가씨? 정말 확실합니까?"

그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저 계단 위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모양이었다. 어쨌든 귓가에는 다시금 맨발과 구두가 뒤섞여 다다닥, 쿵광거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나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비굴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목소리와 발소리는 내 머리 위를 지나 점점 더 높이, 저 위로 올라가 버렸다. 도망이라도 처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가벼운 발소리 한 쌍이 다시 아래로 뛰어 내려왔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나를 구해줄 이를 맞이하러 나갔다. 속으로는 한없이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말이다.

"서둘러요!" 그녀가 거친 속삭임으로 외치며, 현관 쪽을 단호하게 가리켰다.

하지만 나는 그녀 앞에 완강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의 냉담함에 내 마음마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다른 모든 일에는 고집스러운 정도로 무관심해졌다. 그렇게 서 있는 내 눈에 그녀가 가리키던 바로 그 손 안에서, 그녀가 쓴 편지가 공처럼 구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빨리요!" 그녀가 발을 구르며 외쳤다. "어서요, 만약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아꼈다면!"

그것은 속삭임이었다. 원망도 경멸도 없었다. 다만 꺼져가는 내 남성성의 불씨 위에 거칠게 몰아치는, 갑작스럽고도 절박한 간청이었다.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몸을 돌려 떠났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녀를 위해서였다. 뒤돌아 걸어 나오는 내 귀에 그녀가 편지를 갈기갈기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잘게 부서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 순간 래플스가 떠올랐다.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분명 그는 지금쯤 올버니의 안락하고 아늑한 방에 잘 있겠지. 그런 그에게 내 운명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상관없다. 이것으로 그와 나 사이의 인연도 끝이다. 이 어두운 밤에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의 종말이었다! 나는 당장 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줄 것이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그 빌어먹을 방으로 달려갈 것이다. 하지

만 그전에 먼저, 그가 나를 내팽개치고 망설임 없이 떠나버린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러나 계단 바로 앞에서 나는 절망하며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진입로와 도로 사이의 관목 숲을 뒤지고 있었다. 경관의 랜턴 불빛이 월계수 덩굴 사이로 번뜩이며 왔다 갔다 했고, 예복을 차려입은 한 젊은 남자가 자갈길 위에서 그를 안내하고 있었다. 내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젊은이였다. 하지만 내가 자갈길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 그가 몸을 획 돌렸다. 그는 다름 아닌 래플스였다.

“여보세요!” 그가 외쳤다. “당신도 출판에 끼어들러 오셨구려! 안쪽은 좀 둘러보셨소? 그럴 시간에 여기 앞쪽 덩굴이나 뒤지는 걸 도와주는 게 훨씬 생산적일 거요. 괜찮습니다, 경관님. 그저 엠프레스 룸에서 온 신사 한 분일 뿐이니깐요.”

우리는 헛된 수색에 힘을 보태는 척하며 꽤 용감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더 몰려오고, 짜증이 난 경사가 눈치를 주자,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자리를 뜨는 아주 좋은 핑계를 얻게 되었다. 사실 내 팔을 떼어 찬 건 래플스였다. 수치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떠나면서, 나는 그를 슬쩍 뿌리쳤다.

“이보게, 버니!” 그가 외쳤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아나?”

나는 모르는 일이며 관심도 없다고 거칠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지.” 그가 말을 이었다. “담장 두 세 개를 뛰어넘으며 필사적으로 달렸어. 하지만 내 뒤를 바짝 쫓던 그

녀석도 만만치 않더군. 결국 그놈한테 밀려 다시 직선 도로로 나갔고, 마치 가로등 점등부처럼 하이 스트리트까지 쫓겨갔다니까. 만약 그놈이 소리라도 질렀다면 난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혔을 거야.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모퉁이를 돌아마자 코트를 벗어 던지고 엠프레스 룸으로 들어가 공연 티켓을 끊었지.”

“그 무도회에도 티켓이 있었겠지.” 내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래플스가 그 무도회나, 혹은 런던 사교계의 다른 어떤 행사에 티켓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결코 우연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무도회인지 물어본 적은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저 옷차림을 점검할 겸, 이제는 필요 없어진 그 눈에 띄는 오버코트를 벗어 던질 기회로 삼았을 뿐이야. 이런 행사 중에는 다들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지만, 만약 내가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면 분명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쳤을 거야. 버니, 네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랬다면 나도 한 곡 정도는 뛸지 모르지.”

“나를 도와주러 다시 돌아온 건 딱 너다운 행동이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나를 피어내어 하필이면 그 집으로 끌어들이다니. 그건 전혀 너답지 않았어, 래플스. 난 그 일도, 너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래플스가 다시 내 팔을 붙들었다. 우리는 팰리스 가든의 하이 스트리트 정문 근처에 와 있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라, 그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거절할 기운조차 없었다.

“이보게, 버니. 그렇게 유혹한 것도 아니었네.” 그가 말했다. “자네를 두고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자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잖나.”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진작에 알아들었을 거야." 내가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넌 도망치듯 떠나버린 뒤에 네 모험담이나 늘어놓으며 잘난 척이나 하겠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만큼 마음이 쓰여서, 확인하러 다시 온 거야."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도 없었어! 이미 잘못된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래플스, 래플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다시 한번 그의 팔을 움켜쥔 것은 내 손이었다.

"짐작하고 있었지." 그가 대답했다. 나조차도 꽤 진지하다고 느낄 만큼 엄숙한 말투였다.

“나를 구한 건 당신이 아니라 그녀였어.” 내가 말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군!”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를 통해 영영 잃어버린 그녀를 떠올리며, 묘하고도 슬픈 자부심을 품은 채 말이다. 이야기를 마치자 우리는 하이 스트리트로 접어들었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엠프레스 룸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악단 소리가 우리에게까지 들

려왔다. 래플스가 그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느릿느릿 지나가던
햄섬 마차를 불러 세웠다.

“버니,”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상황에
서는 슬퍼하는 것조차 모욕이 될 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 하지만 버니, 내 말 좀 믿어줘. 그녀가 집에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맹세할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있는 시골로 편지를 보냈다고 자네가 직접 말했잖나."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 말이야!” 나는 다시금 밀려드는 비통함에 맞서 대꾸
했다. “한밤중에 몰래 써서 몰래 우체통에 넣으려 갔던 그 편지! 내가
며칠 동안 그토록 기다려온 게 바로 그 편지였다고! 내일이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난 영영 그 편지를 받을 수 없겠지. 그녀에게서 다시
는 소식을 듣지 못할 거야.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녀를 만날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모든 게 네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겠어. 그녀
가 거기 있다는 걸 나만큼이나 너도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의 가
족들에 대해 내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건,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
어.”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격렬하게 내뱉었다. 햄섬 마차가
길가 연석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한 말 말고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래플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너를 데려가려고 한 소리는 아니야. 네가 죄책감 없이 나한테 정보를 좀 넘겨주길 바랐을 뿐이지. 하지만 사실 헥터 캐러더스와 로크메이븐 경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어. 너만 빼고는 누구라도 진실을 알아챘을 거야."

"진실이 뭔데?"

"버니,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럼 이제 말해 봐."

"신문을 읽었다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정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국왕 탄신 기념 서훈 명단 맨 윗자리는 노(老) 캐러더스가 차지했어.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른 작위가 로크메이븐 경이야."

그 비루한 말장난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입술을 비틀며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멸시와 분노를 품은 채, 마운트 스트리트에 있는 내 아파트로 차를 몰아 달렸다.

거짓이 아니라고? 천만에! 그것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었다. 래플스가 이토록 비겁하게 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는 최소한의 명예가 있었다. 비록 그것이 도둑과 도둑 사이에 통용되는 종류의 것이었는지언정 말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래플스는 나를 속였다. 래플스는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될 그 여인이 나를 버렸듯, 나 또한 이제 래플스와 끝이다.

그를 지독히도 원망하고 그 기만적인 행위를 혐오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과가 의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칠 생각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 어떤 해를 끼칠 의도조차 없었다. 기만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일이었고, 그 이유 또한 래플스가 내게 설명한 그대로였다.

그가 로크메이븐 귀족 작위를 새로 만들어진 작위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 후계자에 대해 언급한 방식 역시 앨릭 캐러더스에게만 해당되는 식이었다. 그는 내게 힌트를 주었지만, 내가 너무 둔해서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그는 이 치명적인 모험에 내가 동행하지 못하도록 분명 여러 차례 만류하기도 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명확하게 말했다면, 나 역시 그를 말리는 데 온 힘을 쏟았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신의를 생각했을 때, 래플스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그리고 결과물과 의도를 언제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리해내는 일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인적인 이성이 필요한 일인 듯싶다. 적어도 이번 경우만큼은,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이어진 비참한 며칠 동안, 신문을 멀리했다는 비난을 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팰리스 가든스에서 발생한 보석 강도 미

수 사건에 관한 기사를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살살이 읽어 내려갔다. 그 보도 내용이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우선,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수 사건에 불과했다. 결국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으니까. 게다가, 우리 중 누구와도 직접 맞닥뜨릴 뻔했던 그 집안의 유일한 목격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범인을 체포한다 해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워할 정도였다!

그 공고를 읽으며 어떤 복잡한 심경이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 글귀는 내 마음속에 희미한 불씨 하나를 계속 지펴 놓았다. 그러다 아침이 밝아왔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선물들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그것은 책들이었다. 보석은 당국에 의해 금지된 물건이었으니까. 소포에는 그녀의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책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왔다.

다시는 래플스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 결심을 후회하고 있었다. 사랑을 잃었고 명예를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부터, 내 발로 멀어져야만 하는 처지였다.

설상가상으로 내 주머니 사정까지 최악이었다. 은행가로부터 최후 통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매일 우편물을 확인하며 전전긍긍할 정도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래플스였다. 우리가 함께 보낸 어두운 삶이나 그 비열한 보상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다. 그의 유쾌함과 유

며, 눈부신 대담함,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용기와 기지를 사랑했다. 게다가 단순히 탐욕 때문에 그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는 자존심이, 처음에 가졌던 분노 섞인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러나 분노는 금세 사그라들었다. 마침내 래플스가 먼저 내게 다가와 그 간극을 메워주었을 때, 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났다. 사실 실제로 흐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내게는 몇 달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하지만 연기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은 덜 밝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군더더기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 여자한테서 소식 온 거 없어, 버니?" 그가 물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내가 대답했다. "래플스, 괜찮다면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말자고."

"그런 식이라니!" 그가 외쳤다. 그는 놀란 동시에 실망한 기색이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그런 식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뭘 더 기대한 겁니까?"

“모르겠어.” 래플스가 말했다. “그저 내 생각엔, 한 남자를 곤경에서 구해내려고 그토록 애를 쓴 여자라면, 그 남자가 또 다른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힘을 보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이 뒤섞인 짜증이 슬며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에게서 소식은 들었다는 거지?” 그가 집요하게 물었다.

“그 여자가 내가 준 초라한 선물들을 아무 말도 없이 돌려보냈을 뿐이야. 그걸 소식을 들은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내가 말했다.

래플스에게 내가 그녀에게 책만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차마 고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직접 책을 돌려보낸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내 대답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알아들은 듯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이 안도감이었는지 아니면 후회였는지 말이다.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군!” 래플스가 말했다.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진작 찾아오지 못했네. 자, 버니, 그곳 사람들이 자네를 원치 않는다면, 올버니에 아주 작은 지옥 하나를 마련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환영이라네.”

그의 미소에는 여전히 마법 같은 장난기가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내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슬픔의 기색이 아주 미세하게 스며 있었다.

은제 상자

내가 우두머리로 모시던 그 무리들이 다 그렇듯, 래플스 역시 어떤 형태든 거추장스러운 전리품을 챙기는 일에는 아주 강한 경멸을 드러냈다. 그것이 오래된 세필드제 도자기든, 목직한 은제품이나 금붙이든 상관없었다. 몸에 지니고 숨길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는 결코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우리와는 달리,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래플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종종 수집가로서의 욕심에 눈이 멀어 전문가다운 신중함을 저버리곤 했다.

그는 분명 정직한 시민처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을 오래된 참나무 상자들과 마호가니 와인 쿨러들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 안에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은식기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차마 꺼내 쓸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녹이거나 팔아치울 배짱도 없었다. 내가 그에게 말하곤 했듯이, 그는 그저 잠긴 문 뒤에서 그것들을 흐뭇하게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국 나는 그가 그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

내가 초보 시절을 보낸 다음 해였다. 올버니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래플스는 빈틈없는 범행을 이어갔고, 나는 매번 그의 공범이 되어 뒷수습을 맡았다. 그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전보를 보내왔기에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를 마주했을 때,

나는 그가 청동 쟁반이나 빗바랜 찻주전자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라 생각했다. 그 물건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시선이 그가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고 있는 거대한 은제 상자에 머무는 순간, 나는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이것 좀 봐, 버니! 자네가 들어오면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뒤에 있는 문들을 다 잠근 다음, 열쇠는 내 주머니에 넣어두겠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래플스가 말했다. "자네를 죄수처럼 가두려는 건 아니네, 친구. 다만 우리 중에는 밖에서 열쇠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 물론 내 재주 중 하나는 아니지만 말이야."

"설마 또 크로세이인가요?" 나는 모자를 쓴 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외쳤다.

래플스는 특유의 감질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곤 했다. 나는 찰나의 순간 직감했다. 우리의 가장 질투심 많고 위험한 라이벌이자, 구시대의 거장인 그 적이 래플스를 또다시 찾아왔음을 말이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 신중하게 대답이 돌아왔다. “내 입장에서서는 그 친구를 본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거든. 그 창문 너머로 그를 떠나보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말이야. 사실, 난 그자가 감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

“늙은 크로셰이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는 두 번이나 당할 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전문적인 빈집털이범 중에서도 가히 왕자라 불릴 만하지.”

"정말 그럴 셈인가?" 래플스가 차갑게 물었다. 나를 꿰뚫어 보는 그의 눈빛 또한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난 뒤에 왕족들이 들이닥쳐도 잘 맞서 보라고."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모자와 코트를 둘 곳을 찾아 구석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러고는 우리 친구가 가장 아끼는 보물 중 하나인 그 유서 깊은 찬장에서 먹을거리를 좀 꺼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건지, 그리고 왜 이 골칫덩어리들을 한 보따리나 챙겨서 가시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래플스는 그의 잡다한 식기들에 대한 나의 묘사를 듣더니, 특유의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자신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꺼내 나와 함께 나누어 피웠다. 다만 자신의 디캔터에 담긴 술을 보면서는,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 버니.” 그가 말했다. “우선 이 방들부터 새로 단장할 생각이야.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전등도 달고, 네가 그토록 나를 들볶던 전화기도 설치할 거다.”

"잘됐군!" 내가 외쳤다. "그럼 이제 밤낮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

"남의 귀에 들어가서 우리만 헛수고하게 만들 작정인가? 자네가 잡혀갈 때까지 난 기다릴 생각이라네." 래플스가 잔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내가 새로 칠한 페인트가 좋아서 라거나 전등 불빛이 그리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버니, 그 이유는 나중에 자네 귀에만 살짝 속삭여 주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게나. 사실 이 복잡한 올버니 건물 안에서 나를 경계하는 기색이 아주 조금 감지되고 있거든. 분명 그 고리타분한 매켄지 순경이 시작한 일이겠지. 아직은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 자,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네. 아예 이곳을 떠나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 당국이 내 방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질 수밖에 없는 구실을 만들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지. 버니,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빠져나와야죠!" 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래플스가 대꾸했다. "하지만 내 계획이 왜 타당한지는 이제 알겠지? 난 세상의 그 어떤 물건도 잠그지 않을 생각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철제 띠와 고정 장치가 둘러진 거대한 오크 상자를 발로 툭 찼다. 상자 안에는 항아리와 촛대 모양을 한 목직한 꾸러미들이 가득 들

어차 있었고, 그 아래 깔린 부드러운 초록색 천은 물건들에 눌러 보이지도 않았다.

“그건,” 래플스가 대답했다. “나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여기 남겨둬서도 안 되는 물건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은행 계좌도 있고, 거래하는 은행원도 있잖나.” 그가 말을 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다만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건 래플스뿐이었고,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은행원을 잘 구슬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나였다.

"그래서요?"

“자, 오늘 오후에 이 지폐 뭉치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게. 리버풀과 링컨에서 아주 보람찬 한 주를 보냈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즐거운 부활절을 보내러 파리에 잠시 다녀오는 동안 은기류를 좀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나. 짐이 꽤 무거운 거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말고. 결혼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맡겨두고 싶을 만큼,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들이 아주 많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움찔했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나머지는 다 들어주기로 했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럴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래플스에게는 은행 계좌가 없었다. 그가 가끔 손에 넣는 거액의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설명할 방법이란 도저히 없었다. 어쨌면 그는 지금처럼 난처한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해,

내 작은 계좌를 미리 관리해 두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떤 이유로 보나 그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별다른 불만 없이 흔쾌히 승낙했던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 상자는 언제쯤 준비되는 건가?” 나는 지폐들을 담배 케이스에 쭈셔 넣으며 가볍게 물었다. “그리고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서, 이곳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물건을 빼낼 생각이지?”

래플스가 나를 향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핵심을 아주 빨리 짚어내는군, 버니. 자네가 밤을 틈타 물건을 먼저 자네 집으로 가져다 놓는 방법도 생각해 봤네. 하지만 아무리 어둠을 이용한다 해도 결국 눈에 띄기 마련이지. 차라리 대낮에 움직이는 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덜 의심스러울 거야.

자네가 구로러(growler)를 타고 은행까지 가는 데는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테니, 내일 오전 9시 45분에 차를 대동하고 여기로 오게. 그러면 계획에 딱 맞을 걸세. 하지만 오늘 오후에 그 지폐들로 미리 길을 닦아두려면, 지금 당장 한섬(hansom)을 잡아타야만 하네!”

그 시절의 래플스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행동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내 손을 잡으려 내민 손을 짧게 맞잡으며 화제와 나를 동시에 털어버리듯 대화를 끝맺었다. 나는 그에게 담배를 한 대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가 교묘하게 말을 아끼며 설명해주지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떠나는지조차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코트 단추를 채우고 장갑을 끼는 와중에, 겨우겨우 그에게서 그 정보를 캐내야만 했다.

"스코틀랜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활절쯤이겠군요." 내가 말했다.

"언어를 배우려는 거지." 그가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내게는 내 혀 말고는 다른 게 없지만, 대신 그 혀를 아주 다채롭게 다듬어서 부족함을 메우려 노력 중이야. 그중 몇몇은 버니, 네 지식에도 도움이 되었을 걸? 세인트 존스 우드에서 보낸 그날 밤, 내 코크니 발음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기억나?"

그는 말을 이었다. "무대용 아일랜드 발음은 물론이고, 진짜 데번서 발음이나 꽤 괜찮은 노퍽 발음, 그리고 확연히 구분되는 요크셔 방언 세 가지도 구사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갤러웨이 스코틀랜드 발음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드시 그렇게 만들 생각이요."

"아직 어디로 편지를 보내야 할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먼저 편지할게, 버니."

"적어도 배운 정도는 하게 해줘." 나는 문가에서 그를 붙들며 재촉했다. "기차 편만 알려준다면, 네 티켓은 절대 훑쳐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유스턴 역에서 출발하는 11시 50분 열차 말이야."

"그럼 10시 15분 전에는 그쪽으로 갈게요."

그의 얼굴에 서린 조바심을 읽고는 더는 말을 섞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내가 즐기는, 그러나 래플스가 질색하는 그 긴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상황은 충분히 명확해 보였다. 그래도 적어도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서운했다. 하지만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담배 케이스 속의 지폐를 세어보고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뒤로는 서운함 따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금액은 이미 세 자릿수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래플스가 자신이 없는 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챙겨준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은행에 가서 그가 말한 거짓말을 아주 능청스럽게 늘어놓았고, 다음 날 아침 그가 맡긴 상자를 받기로 차질 없이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그가 들을까 싶어 클럽으로 향했다. 결국 함께 저녁을 먹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사륜마차를 타고 올버니에 도착했을 때 마주할 실망감에 비하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래플스 씨는 가셨습니다, 손님.”

짐꾼이 은밀하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래플스는 그를 아주 아꼈다. 래플스는 짐꾼을 부릴 때나 팁을 줄 때나 아주 능수능란하고 세심하게 대하곤 했다. 나 역시 그와 안면이 없는 편은 아니었으나, 래플스만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

"사라졌다고!" 나는 경악하며 되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스코틀랜드입니다, 선생님."

"벌써요?"

"어젯밤 11시 50분 열차였습니다."

"어젯밤이라니! 난 오늘 아침 11시 50분을 말하는 줄 알았던 말이야!"

"손님께서 오지 않으시자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전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열차는 아예 없다고 말입니다."

나 자신과 래플스에게 느끼는 자괴감과 짜증 때문에 옷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건 내 잘못만큼이나 그의 잘못도 컸다. 만약 그가 나를 떼어내려 그토록 무례하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유의 통명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오해나 실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전언은 없습니까?" 내가 침울하게 물었다.

"상자 일뿐입니다, 나리. 래플스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 나리께서 상자를 맡아주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 한 명을 불러냈는데, 그 친구가 마차까지 옮기는 걸 도와줄 겁니다. 상자가 워낙 무겁긴 하지만, 래플스 씨와 저 둘이서도 충분히 들 수 있었으니 저와 제 친구라면 문제없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오전 열 시에 그 끔찍한 궤짝을 싣고 클럽과 공원을 지나 운전할 때, 궤짝의 무게보다 그 엄청난 크기가 훨씬 더 걱정스러웠음을 고백해야겠다. 사륜마차 뒷좌석에 최대한 몸을 붙여 앉아 보았

지만, 지붕 위에 실린 거대한 철제 결속 궤짝과 나 사이의 관계를 숨길 방법은 없었다. 달아오른 상상력 속에서 그 나무 상자는 마치 유리로 된 것처럼 투명해 보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든 죄스러운 내용물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한 번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순경이 우리가 다가오자 교통을 통제했는데, 나는 그 단순한 절차조차 소름 끼치는 의미로 곡해하고 말았다. 길가에 있던 소년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설령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분명 그랬다고 생각했다—그 외침이 "도둑 잡아라!"라고 들리는 듯했다. 내 인생에서 겪은 가장 불쾌한 마차 운행 중 하나였다는 말로는 충분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하지만 은행에서의 일은 래플스의 선견지명과 통 큰 결단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매끄럽게 풀렸다. 나는 마차꾼에게 후한 팁을 주었고, 궤짝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제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에게도 플로린 동전 하나를 건넸다. 리버풀 경마 승자들에 대한 내 농담이나 패밀리 플레이트 경기의 최신 배당률 이야기에 신사처럼 호탕하게 웃어주던 친절한 은행원에게는 금화라도 쥐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예금에는 은행에서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잠시 당혹스러웠을 뿐이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런던의 은행 중 이런 경우에 영수증을 끊어주는 곳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처럼 느껴졌기에, 그렇게 믿고 싶었던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날 남은 시간은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음을 짓누르던 짐과 손에 쥐고 있던 일거리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래플스에게서 밤늦게 도착한 기이하고도 당혹스러운 전갈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는 전보라면 거침없이 보내는 사람이었지만, 편지를 쓰는 일은 드물었다. 간혹 전령을 시켜 휘갈겨 쓴 쪽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밤사이 열차 안에서 이 글귀를 급히 적어 내려간 모양이었다. 새벽녘 크루 역에서 부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교수들의 왕'을 조심하게! 내가 떠날 때도 그자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거든. 만약 은행 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면, 즉시 돈을 인출해서 착한 친구답게 자네 방에 보관해 두게."

A. J. R.

"추신. 다른 이유들도 있네. 곧 듣게 될 걸세."

머리가 복잡할 때 이보다 더 지독한 잠자리는 없을 것이다! 자금은 늘고 걱정은 줄어든 덕분에 꽤 즐거운 저녁을 보냈건만, 이 수수께끼 같은 경고문이 남은 밤을 통째로 망쳐버렸다. 늦은 우편물로 도착한 그 편지를 차라리 밤새 우편함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침이 밝자, 이 질문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나를 거세게 몰아 붙였다.

크로셰에 관한 소식은 놀랍지 않았다. 래플스가 여행을 떠나기 전, 그 불한당을 기억해 두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설령 그가 그 악당을 직접 다시 마주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그 불한당과 이번 여행은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래플스는 결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있었다. 그 사실은 이전보다 더욱 명확해졌다. 래플스가 훔친 물건이 내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크로세 본인이라 해도 그 물건을 찾아낼 수는 없다. 그가 내 마차를 뒤쫓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끔찍한 마차를 타고 가며 느꼈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만약 그가 뒤를 쫓았다면 나는 뺏속 깊이 그 기척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꺾을 굽히는 것을 도와주었던 짐꾼의 친구를 떠올려 보았다. 아니,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크로세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또렷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다.

은행에 있는 그 빌어먹을 상자를 다른 마차 위에 얹어 옮긴다니. 더 나은 구실도, 구체적인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했다. 나는 늘 래플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오늘이나 어제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몫 그 이상을 해왔다. 그 저주스러운 상자를 직접 맡아 운반하는 일을 피하려는 이유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었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헌신적인 조력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 나는 늘 그러했듯,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마다 하던 대로 행동했다. 점심은 거의 먹지 않은 채 노섬벌랜드 애비뉴로 향해 터키식 목욕탕을 찾았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을 씻어내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또한 정신을 맑게 하여, 어찌다 지니고 있을 판단력을 최대한 날카롭게 다듬는 데 이만한 방법도 없다. 래플스조차도, 잃을 것도 달랠 신경도 없는 처지일 때면, 다른 모든 방법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몸과 마음의 평온함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인정하곤 했다.

나에게는 신발을 벗기도 전부터 즐거움이 시작되었다. 웅성거리는 발소리, 분수의 가느다란 물소리, 소파 위에 나른하게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깨끗하고 따스하며 한가로운 분위기 전체가 나의 소박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뜨거운 방에서 보내는 30분은 내게 몸의 나른한 해방감과 그에 뒤따르는 지적 고양감에 이르기 위한 고된 한 걸음에 불과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목욕탕 밖에서 샀던 『팻 몰 가제트』지의 결정적인 소식이, 가장 뜨거운 방의 화씨 270도에 달하는 열기 속에서 내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다.

나는 뜨겁고 바스락거리는 신문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마치 불타는 화로 속에 있는 듯한 그 열기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과 머리말들이 마치 실제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며 내 눈으로 튀어 들어왔다.

웨스트엔드 은행 강도 사건 — 대답하고도 미스터리한 범행

슬론가(Sloane Street, W.)에 위치한 시티 앤 서버번 은행에서 대담한 절도와 비열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이번 강도 사건은 오늘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능숙하게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포셋이라는 이름의 야간 경비원은 새벽 1시와 2시 사이, 은행 고객들의 은식기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하부 금고 근처에서 미세한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아래로 내려가던 그는 곧장 흉악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괴한은 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포셋은 자신을 습격한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불운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복도 바닥 위에서 타오르고 있던 양초 하나를 제외하면 도둑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다. 도둑들이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산에 넣은 듯하여, 은식기함과 기타 귀중품을 노린 이번 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을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반 은행 영업실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범인들은 지하에 있는 석탄 저장고를 통해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은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소식에 나는 거의 마비된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믿기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역시 크로세였다! 크로세가 또다시 래플스의 뒤를 쫓

아 그 부당한 이득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금 래플스를 원망했다. 그의 경고는 너무 늦었다. 애초에 그 상자를 은행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곧장 전보를 보냈어야 했다. 보물을 담아두기에 그토록 눈에 띄고 뻔한 상자를 선택하다니, 그는 정말 미친 게 분명했다. 만약 도둑들이 털어간 것이 바로 그 상자라면, 래플스는 자업자득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모아둔 보물의 정체를 떠올리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범죄의 흔적들이 모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만약 그의 상자가 정말로 털려서, 단 하나의 은제품만 남기고 모든 은불이가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에게 목격된 그 마지막 은제품 하나만으로도 래플스는 종신형이라는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크로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교묘한 복수를 꾸미고, 아무런 가책이나 죄책감도 없이 그것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내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지시받은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상자를 되찾아 와야 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붙잡히고 말 것이다. 래플스가 경고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게 주소라도 남겨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 봐야 소용 없었다. 아직 세 시가 되지 않았으니, 네 시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일단 목욕을 마저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이것이 향후 몇 년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목욕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터키식 목욕을 즐길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을 인내심도, 찬물에 몸을 던질 기운도 없었다. 몸무게를 재는 일만큼은 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에 무의식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갔지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직원의 원망 섞인 말투를 듣고서야 그에게 6펜스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어오면서 아주 공들여 차지해 둔, 내가 가장 아끼는 구석진 자리의 냉각실 소파는 이제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다. 그 뒤에 닥쳐올 딱딱한 판자 침대의 끔찍한 환영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떠나기 전, 옆 소파에서 도둑맞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리기를 귀를 기울였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리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실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끔찍했던 시간의 가감 없는 기록이다. 다행히 외부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없었다. 다만 슬론가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거리 곳곳의 게시판이 온통 그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게시판에서 '결정적인 단서'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나는 내가 기꺼이 맞이하리라 결심한 비극적인 운명을 직감했다.

시티 앤 서버번 은행의 슬론 스트리트 지점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내가 탄 마차가 도착했을 때, 적당한 크기의 꺾꽂이를 실은 마차 한 대가 막 떠나던 참이었다. 은행 안에서는 한 여성이 소란을 피우며 소란스러운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제 내 농담에 호탕하게 웃어주던 싹싹한 은행원은 다행히도 더 이상 농담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보자마자 아주 무례하게 굴기까지 했다.

“오후 내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가 말했다. “그렇게 창백한 얼굴을 할 필요는 없소.”

"안전한가요?"

"그쪽의 그 노아의 방주 말인가요? 네, 들었습니다. 도둑들이 막 그 곳에 손을 대려던 참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제 막 시작했을 겁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손님이야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저희는 안 됩니다." 서기가 으르렁 거리듯 말했다. "매니저님 말씀으로는, 그 모든 소동의 원인이 손님의 상자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일 마일 밖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결국 미행까지 당했으니까요." 사무원이 말했다.

"지배인이 저를 보자고 합니까?" 내가 당당하게 물었다.

"그를 꼭 만나야했다면 모를까."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왔다. "오후 내내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느라 진이 다 빠졌거든. 당신처럼 싸게 먹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 은식기 때문에 더는 곤란할 일은 없겠군." 내가 호기롭게 말했다. "상태가 괜찮다면 그냥 두고 가려 했네만, 자네 말을 듣고 보니 도저히 그럴 수는 없겠어. 당장 사람들을 불러서 상자를 가져오게 나. 그들도 오후 내내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느라 고생했을 테지만, 내가 그 수고가 아깝지 않게 보답해 주지."

이번에는 그 물건을 싣고 거리를 달리는 것도 괜찮았다.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안도감이 워낙 커서, 당장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4월 초의 햇살은 어딘지 모르게 물기가 어린 듯 희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다. 공원을 지날 때면 나무마다 초록빛과 금빛이 섞인 새순들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그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는 기분이었다. 부활절 휴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태운 한섬 마차가 지나갔고, 자전거와 유모차를 엮은 사륜마차도 보였다. 마차에 탄 그 누구도,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내 마차를 모는 나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짐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마운트 스트리트에서 운 좋게도 바로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요원과 힘을 합쳐 그것을 내 집까지 옮겼다. 방금 전까지 무겁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 황홀한 기분에 취한 나는 마치 삼손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방 한가운데 놓

인 이 거대한 골칫덩이를 마주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유리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도, 사이편은 여전히 제 할 일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말해둘 수 있다.

"버니!"

래플스였다. 하지만 나는 잠시 동안 허공을 헤매며 그를 찾았다. 창가에도, 열린 문 앞에도 그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 래플스였다. 적어도 목소리만큼은 확실했다. 그 목소리는 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툭툭 튀어 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내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을 때, 상자 뚜껑 한가운데에 그의 생생한 얼굴이 나타났다. 마치 쟁반 위에 놓인 성인의 머리처럼 말이다.

하지만 래플스는 살아 있었다. 래플스는 성대가 끊어질 듯이 호탕하게 웃어댔다. 눈앞에 나타난 래플스의 모습에는 비극의 그림자도, 환영의 기묘함도 없었다. 그는 마치 커다란 장난감 상자 속에서 튀어나오는 인형 같았다. 래플스는 여행용 가방의 끈처럼 상자를 둘러싼 두 개의 철제 띠 사이를 직접 잘라내고, 뚜껑 안쪽에 또 다른 뚜껑을 만들어 그 사이로 머리를 쑥 내밀고 있었다. 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짐을 싸는 척하며 이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음이 분명했다. 어찌면 밤이 깊도록 공을 들였는지, 작업은 실로 완벽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에도 래플스는 내 얼굴을 마주 보며 웅크린 채 웃어댔다. 그러더니 갑자기 열쇠를 왼 팔 하나가 틈 사이로 쑥 빠져나왔

다. 열쇠로 커다란 자물쇠 두 개 중 하나를 돌리자 뚜껑 전체가 들렸고, 래플스는 마치 마술사처럼 그 안에서 성큼 걸어 나왔다.

"결국 당신이 그 도둑이었군요!" 마침내 내가 외쳤다. "차라리 몰랐던 게 다행입니다."

그는 이미 내 손을 한 번 째 쥐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내 손을 으스스려 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이 착한 녀석!" 그가 외쳤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을 게다. 북극성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 해도 너만큼은 해내지 못했을 거다. 내 말 잊지 마라. 나는 듣기로는 아주 많이 들었고, 눈으로 본 것도 들은 것만큼이나 많으니까. 버니, 네가 대체 어디서 가장 대단했는지 모르겠구나. 올버니에서였는지, 여기였는지, 아니면 네 은행에서였는지 말이다!"

"어느 점이 가장 괴로웠는지 모르겠어." 나는 대답했다. 상황을 조금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자, 내 말투도 한결 가라앉았다. "자네가 나를 대단한 수완가로 보지는 않았지만, 나라도 그 비밀을 공유하며 자네만큼 잘 해낼 자신은 있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뿐이겠지. 물론 그건 고려할 대상도 아니지만 말이야."

하지만 래플스는 특유의 매력적이고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연신 떠들어댔다. 그는 낡고 해진 옷차림이었고 얼굴과 손도 꽤 지저분

했지만, 겉보기에는 방금 겪은 고생이 무색할 만큼 아주 멀쩡해 보였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그 미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래플스다운 미소였다.

“자네는 분명 온 힘을 다했을 거야, 버니! 자네의 용맹함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계산은 따져야 하는 법인데, 자네는 그걸 깜빡했어. 나는 그 계산을 잊을 수가 없었네, 버니.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 내가 자네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지 말게! 나는 자네의 그 충직한 끈기에 내 목숨까지도 맡겼단 말일세. 만약 그 금고 안에서 내가 일을 망치게 내버려 뒀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나? 내가 몰래 빠져나와 스스로 자수라도 했을 것 같아? 그래, 이번 한 번만 술을 좀 마시겠네. 모든 법의 묘미는 그것을 깨뜨리는 데 있는 법이지. 설령 그 법이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칙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나에게도 그를 위한 설리번이 준비되어 있었다. 채 일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내 소파에 몸을 길게 뻗고 누웠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빠근했던 팔다리를 아주 즐겁다는 듯 쪽쪽 폈다. 그의 승리이자 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꺾꽂이 위에는, 노란 술이 찰랑찰랑 가득 찬 잔이 손에 닿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게 언제 생각났는지는 신경 쓰지 마, 버니. 사실 바로 요전날이었어. 이미 말해준 진짜 이유들 때문에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말이야. 내가 너한테는 실제보다 이유를 좀 더 거창하게 늘어놓았을지도 모르

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들은 분명히 존재해. 그리고 난 정말로 전화기와 전등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 은식기들은 어디에 숨겨두었나?”

"아무 데도 아니야. 내 짐들이었어. 포트만토 가방이랑 크리켓 가방, 그리고 별 내용물도 없는 여행용 가방뿐이었지. 어쨌든 짐은 전부 유스턴 역에 두고 왔으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중 한 명이 가서 찾아와야 해."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크루까지 가셨던 건가요?"

"내 쪽지를 못 받았어? 버니, 자네한테 몇 줄 적어 보내려고 크루 역까지 간 거란 말이야! 자네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애써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자네가 적절한 표정 관리를 해주길 바랐는데, 자네라면 분명 잘해냈을 거라 믿었어. 게다가 내 기차가 들어오고 4분 뒤에 런던으로 돌아가는 상행 열차가 있었거든. 크루 역에서 편지를 부치고 나서 바로 다음 열차로 갈아탔을 뿐이야."

"새벽 두 시라고요!"

"세 시에 가까워졌어, 버니. 내가 데일리 메일을 챙겨서 들어왔을 때는 이미 7시가 넘은 뒤였지. 우유 배달원이 나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더라고. 그래도 자네가 오기 전까지 두 시간 정도는 아주 여유 있게 보냈네."

"세상에,"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속이다니!"

"네가 도와준 덕분이지." 래플스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직접 찾아 봤다면 아침에 그런 열차는 없다는 걸 알았을 거야. 난 그런 열차가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지만 버니, 난 네가 속아 넘어가길 바랐어. 아니, 사실 속이려고 걱정했지. 전부 우리 팀을 위해서였으니까! 뭐, 네가 아주 훌륭한 기세로 나를 끌고 갔을 때는 한 30분 정도 꽤 불편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 촛불도 있었고 성냥도 있었고, 입을거리도 아주 많았거든. 그 금고 안은 꽤 아늑하기까지 했어. 아주 불쾌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야."

"어서 말해 보게, 친구!"

"설리번 한 잔 더 주시게. 고맙네. 아, 성냥도 좀 부탁하네. 아까 그 불쾌한 소동은 문밖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네! 마침 나는 그 께짝 뚜껑 위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지. 등불을 끄고 상자 뒤로 몸을 숨길 겨우 시간밖에 없었네. 다행히 그건 그냥 상자가 아니라 보석함이었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이지. 곧 내용물을 보여줄세. 부활절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덕분에,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거뒀다네."

그의 말을 듣자니 터키식 목욕탕에서 주머니에 넣어온 '팻 몰 가제트'지가 떠올랐다. 나는 신문을 꺼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종이는 온통 구겨지고 눅눅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중요한 기사들이 적힌 문단 위로 엄지손가락을 얹은 채, 래플스에게 신문을 건넸다.

"정말 즐거운걸!"

그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말했다.

"도둑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니, 게다가 침입 경로가 하필이면 석탄 창고라니! 내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좀 썼지. 그 석탄들이 아주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양초 기름도 넉넉히 남겨두었거든. 하지만 버니, 그 창고는 막힌 뒷마당 쪽을 향하고 있어서 여덟 살짜리 아이라도 그 바닥 문을 통과하긴 힘들었을 거야. 스코틀랜드 야드 놈들이 그 가설을 붙들고 오랫동안 즐거워했으면 좋겠군!"

"그런데 당신이 때려눕힌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물었다.
"그건 당신답지 않았어, 래플스."

래플스는 내 소파에 몸을 뒤로 기댄 채 생각에 잠겨 담배 연기로 고리를 만들어 내뿜었다. 쿠션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빛을 등진 그의 창백한 옆얼굴은 마치 가위로 오려낸 듯 선명하고 날카로웠다.

"그게 아니었다는 건 나도 알아, 버니." 래플스가 유감스럽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시인들이 말하듯, 그런 일은 내 승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 금고를 부수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렸어. 그중 3분의 1은 침입한 것처럼 보이게 꾸미는 무해한 작업에 쏟았지. 그러다 그놈의 은밀한 발소리를 들은 거야. 어떤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상대를 죽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빠질 뿐이야. 나는 촛불을 둔 채로 그 불쌍한 녀석에게 살금살금 다

가갔어.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다가, 놈이 지나갈 때 그대로 들이받았지. 비겁한 공격이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자비롭게 휘둘렀다는 증거도 있어. 피해자가 이미 자기 입으로 다 말해줬으니까.”

래플스는 잔을 비우더니, 내가 다시 채워주겠다고 권해도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플라스크를 꺼내 보여주었다. 플라스크 안에는 술이 거의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휴 동안 따로 식량과 술을 챙겨둔 모양이었다. 부활절이나 बैंक 홀리데이 중 어느 날이라도 내가 그를 돕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도망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부담은 엄청났을 터였다. 그가 나를 믿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달아오른 내 얼굴이 벅찬 감동으로 떨려왔다.

그가 내 은행 금고에 맡겨둔 보석함들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늘어놓거나 세세한 내역까지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그 수익 덕분에 나 또한 래플스가 미뤄두었던 스코틀랜드 휴가를 함께 떠날 수 있었고, 래플스 역시 다가올 여름 시즌에 미들섹스 팀의 경기에 예년보다 훨씬 자주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 가끔씩 치밀어 오르는 불만—그가 늘 지나칠 정도로 비밀스럽게 행동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내 눈에 충분히 가치 있는 성과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일하게 가볍게 나무랐던 점은 그놈의 유령 같은 크로셰 이야기뿐이었다.

“그가 다시 도주 중이라고 믿게 만들더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가 당신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던 그날 이후로, 그에 대해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군.”

“버니, 그제 자네가 나를 찾아와 첫마디를 내뱉기 전까지는 그 사람 생각조차 전혀 안 했네. 자네가 내 머릿속에 그를 떠올리게 만든 거지. 내 계획의 핵심은 말이야, 자네가 처음부터 줄곧 그랬던 것처럼 그 은식기 세트에 대해 아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네.”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겠습니다.” 내가 대꾸했다. “하지만 제 말은, 당신이 너무 과하게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해 저한테 대놓고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나도 거짓말은 안 했네, 버니.”

“자네가 떠날 때, 그 '교수님들의 왕'이 '곧 나타날 것 같다'는 얘기 때 문은 아니었나?”

“이보게, 버니! 정말 그랬다니까!” 래플스가 외쳤다. “나도 한때는 그리 깨끗한 아마추어는 아니었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이제는 내가 교수들의 교수라고 자부해도 되겠어. 저들 패거리를 나보다 잘 이끌 주장감이 또 있는지 한번 보고 싶군!”

요양(療養)

래플스를 못 본 지 한 달은 족히 넘은 듯했다. 나는 그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운트 스트리트에 있는 내 가구들에 대해 매매 증서를 손에 넣은 어떤 불한당 때문에, 내 삶은 건디기 힘든 짐이 되어 버렸다. 그 여우 같은 악당이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려면 다른 곳에 머무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즉시 지불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은행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래플스의 도움이 간절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내 처지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런던 시내에서,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이의 시야에서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8월 말이었다. 래플스는 7월 이후로는 일류 크리켓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미들섹스 팀의 주전 자리를 학생 보조 선수에게 내준 뒤로는 더욱 그랬다. 나는 그가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하곤 하는 저택 경기를 찾아보려 《필드》와 《스포츠맨》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경기 일정은 실려 있었으나, 그 어디에도 마법 같은 이름, 'A. J. 래플스'는 보이지 않았다. 올버니에서도 그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올버니나 클럽 양쪽 모두에 편지 처리에 관한 어떠한 지시도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그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일요 삽화 신문에 실린 범죄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범인들의 얼굴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래플스에게 일어날 법한 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

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특유의 방식으로 생존 신호를 보내왔을 때, 나는 비로소 두 배의 안도감을 느꼈다.

올버니에 벌써 십 번째 발걸음을 했지만, 결국 평소와 다름없는 절망감만을 안고 피카딜리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때 한 부랑자가 은밀한 몸짓으로 내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내 이름이 정말 그 이름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건 당신 거예요.” 내 긍정에 그가 대답하며 건넸다. 그와 동시에 내 손바닥에는 구겨진 쪽지 하나가 닿았다.

래플스가 보낸 것이었다. 나는 구겨진 종이 조각을 조심스레 펴 보았다. 연필로 휘갈겨 쓴 문장은 단 두 줄뿐이었다.

"오늘 밤 어두워지면 홀랜드 워크에서 만나세. 내가 갈 때까지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게. A. J. 래플스."

그게 전부였다! 몇 주 동안이나 소식 한 자 없더니, 고작 한다는 게 학자답고 섬세하던 평소 필체는 온데간데없이 휘갈겨 쓴 몇 마디뿐이라니! 더는 이런 일로 가슴을 졸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가장 싫어하던 래플스의 모습이었으니까. 게다가 분통 터지는 일은 따로 있었다. 그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겨우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편지를 가져온 정체불명의 전령마저 이 기묘한 사건에 걸맞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날 저녁, 홀랜드 워크의 너털너털한 나무들 사이에서 내가 처음으로 마주친 유일한 존재이긴 했다.

"아직 못 봤나?" 그가 지독한 파이프 연기를 내뿜으며 은밀하게 물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 그를 어디서 봤는지 당장 말해 주십시오." 나는 엄하게 대답했다. "그의 쪽지를 건네주자마자 왜 그렇게 급히 도망친 겁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그가 대답했다. "나도 명령을 거역할 만큼 멍청하진 않소. 시키는 대로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나는 질투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래플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 버니! 내가 런던에 왔다는 걸 켄싱턴 전체에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

내 누더기 차림의 친구가 펄쩍 뛰어오르며 대답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순식간에 그저 조금 초라해 보일 뿐인 래플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 내 팔을 잡아. 보기만큼 엉망인 상태는 아니니까. 하지만 말이야, 자네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내가 런던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적어도 지금은 말이지."

"그럼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내가 물었다. "자네 대체 어디 있는 건가?"

"이번 휴가 동안 이 근처에 집을 하나 빌렸어. 나만의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휴식을 취해볼 생각이야. 왜냐고? 오, 이유는 아주 많지, 버니. 우선 예전부터 수영을 길러보고 싶었거든. 저기 다음 가로등 밑을 봐.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래플스가 덧붙였다.

"그리고 자네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스코틀랜드 야드에 나를 꽤 오랫동안 지켜봐 온 빈틈없는 놈이 하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시선으로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놈을 지켜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 바로 오늘 아침, 울버니 밖에서 그놈과 눈이 딱 마주쳤어. 그때 자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네가 나올 때 전해주려고 짧게 쪽지를 적어둔 거야. 만약 그놈이 우리가 대화하는 걸 봤다면, 단번에 나를 알아챘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군요!"

"난 이걸 ‘휴식 요법’이라고 부르고 싶어." 래플스가 대답했다. "정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들 런던 시내에 집을 얻을 엄두도 못 낼 시기에 난 가구가 다 갖춰진 집을 하나 구했거든. 이웃들도 내가 여기서 사는지 전혀 몰라. 뭐, 사실 이웃들이 집에 있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하지만 말이야. 하인도 두지 않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 무인도에 온 것만큼이나 재미있단 말이지. 딱히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야. 정말

쉬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책을 읽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야. 참 웃기지 않아, 버니? 내가 빌린 이 집 주인이 여왕 폐하의 교도소 조사관이라니. 게다가 그의 서재는 범죄학 자료가 가득한 창고나 다름 없어. 누군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실제로는 어떤지, 대자로 누워서 찬찬히 살펴보는 게 꽤 즐겁더라고.”

“그래도 운동은 좀 하시죠?” 내가 물었다. 그는 캄든 힐의 울창한 오솔길을 꽤 빠른 속도로 나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경쾌하고 가벼웠기 때문이다.

“내 평생 해본 운동 중에 최고였어.” 래플스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운동인지 꿈에도 모를걸. 내가 이런 초라한 옷차림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지. 바로 마차를 쫓아가는 거야. 그래, 버니. 해 질 녘쯤 나가서 유스턴이나 킹스크로스 역에 도착하는 급행열차를 기다리지. 물론 역 근처에서 빈둥거리며 탈 마차를 고른 다음, 한 3, 4마일 정도는 전력 질주하곤 해. 보상으로 동전 한 닢 정도를 받으면서 말이야. 이 운동을 하면 몸 상태가 아주 아주 아주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매너 좋게 굴면 짐가방을 위층까지 들어 올려 주기도 하거든. 덕분에 꽤 넓고 호화로운 저택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둔 적도 있지. 가을이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정보들이야. 사실 버니, 새로 생긴 로턴 하우스들도 그렇고, 내 수염도 그렇고, 이번 휴가도 아주 알차게 보냈으니, 갈팡질팡하는 래플스가 다시 런던에 나타나기 전까지 아주 괜찮은 가을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역시 내 처지가 훨씬 더 형편없다는 사실을 슬쩍 끼워 넣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고민을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래플스는 훨씬 더 나쁜 인간들만큼이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와 함께 있는 게 덜 즐거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래플스가 나와 비슷한 처지로 내려오는 기분이 들어, 나 자신과도 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의 자만심은 겉치레에 불과했다. 그것은 마치 래플스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벗어던질 수 있는 외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바로 그 사실을 내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세상에, 버니, 바로 이거야!” 그가 외쳤다. “자네도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고. 우리 둘이 나란히 몸을 좀 숨기고 지내는 거야. 대신 이건 정말로 ‘휴식 요법’이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자네가 없을 때처럼 문자 그대로 아주 조용히 지내고 싶거든. 당장 우리 둘만의 ‘침묵 수도회’를 결성하는 건 어때? 어때, 동의하지? 좋아, 그럼 바로 저기 길 건너 저 집이야.”

언덕을 따라 완만하게 굽어 올라가는 길에서 갈라져 나온, 아주 조용한 작은 골목이었다. 한쪽에는 덩치가 크고 못생겼지만 부러움을 살 만한 저택이 넓은 대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저택의 정원 담벼락이 골목 한 면을 온통 가로막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작지만 높게 솟은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양쪽 길 어디에도 불을 밝힌 창문은 드물었고, 보도나 도로 위를 지나가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래플스는 그 높은 집들 중 한 곳으로 앞장서 걸어 들어갔다. 집은 가로등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 앞에는 담쟁이덩굴이 마치 계단까지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었고, 1층의 돌출형 창문은 덧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래플스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주 좁은 현관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어 래플스가 나를 부드럽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 오겠네.” 그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그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려다 나는 그만 전기 스위치 뭉치에 몸을 기댔고, 그가 등을 돌린 사이 아무 생각 없이 스위치 하나를 눌러 버렸다. 순식간에 복도와 계단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래플스가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내게 달려들었고, 다시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만큼은 분명히 들렸다.

지금 당장 내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전등이 켜지며 쏟아진 혼란스러운 광경과 카펫도 깔리지 않은 계단, 그리고 불을 끄려고 급히 몸을 날리던 래플스의 얼굴에 비친 찰나의 빛만으로도, 나조차도 충분히 경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털었다’는 말이군.” 나는 그가 평소 쓰던 말투를 흉내 내며 나직이 말했다. “‘털었다’라니, 아주 좋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야!”

"내가 대리인을 써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세상에, 버니. 자네가 이 농담의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믿어줄 만큼 자네를 높게 평가해준 줄 알았더니만!"

"집을 한 채 사서, 제값을 치르고 살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내가 왜, 올버니에서 삼 마일도 안 되는 곳에서 그래야 하냐 말이야." 그가 맞받아쳤다. "게다가 거기 가면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을 테고. 내 휴식 요법에 대해서 했던 말은 전부 진심이었던 말이지."

"도대체 도둑질하러 침입했던 집에 지금 실제로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까?"

"흠치는 게 아니야, 버니! 난 아무것도 흠치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 머물고 있는 건 확실하지. 바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니까."

"난 이제 한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할 거야!"

래플스는 성냥을 그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평범한 런던의 작은 집이었다면 뒷쪽 응접실이었을 공간이다. 하지만 교도소장 출신인 이 집 주인은 접이식 문에 책장을 채워 넣어 그곳을 별도의 서재로 개조해 두었다. 나는 래플스가 말했던, 그의 취향에 딱 맞을 법한 책들이 있는지 살피려 서둘러 책장을 훑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여유는 없었다. 래플스가 양초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페라 모자 윗부분에 양초를 꽂아 두었는데, 심지에 불이 붙자마자 모자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빛이 타원형 기둥 모양으로 천장을 향해 쏘아 올려졌고, 나머지 방 안은 이전처럼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미안해,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상판을 떼어낸 책상의 한쪽 다리 부분에 걸터앉아, 나머지 한쪽 다리 위에는 임시 등불을 올려두었다. “대낮에는, 밖에서 들킬 염려가 없으니 인공 조명을 얼마든지 마음껏 켜도 돼. 글이라도 쓰고 싶으면 저기 벽난로 선반에 세워둔 책상 상판을 써도 좋아. 방해받지 않고 작업하기엔 저만한 장소가 없거든. 하지만 밤늦게까지 불을 켜거나 전기를 쓰는 일은 절대 안 돼! 저들이 마지막까지 신경 쓴 게 바로 이 덧창을 고정하는 일이었다는 걸 눈치챘겠지? 책상을 밟고 올라서지 않고도 덧창에 손이 닿게 하려고 책상 상판까지 떼어낸 모양이야. 하지만 저 빌어먹을 덧창이 끝까지 다 올라가지는 않더군. 만약 우리가 어둠이 내린 뒤에 불을 밝힌다면,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뒷집 사람들에게 바로 들키고 말 거야. 그리고 전화기는 조심해! 수화기에 손만 대도 교환실에서 이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대령이 자기가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교환실에 미리 정확히 말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양반은 워낙 꼼꼼하거든. 소중한 책들에 먼지가 앉지 않게 종이를 덧대놓은 것 좀 봐!”

“그가 대령이야?” 래플스가 자리에 없는 집주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내가 물었다.

“공병대 출신이지. 게다가 빌어먹을 빅토리아 훈장까지 받았어! 로크스 드리프트 전투에서 땀다더군. 그 뒤로는 계속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감독관을 맡았고. 취미가 뭐지 알아? 권총 사격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쓴 ‘후스 후(Who's Who)’를 읽어보면 다 나와. 버니, 그 양반이 집에 있을 때 맞닥뜨리면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괴물이라니까!”

"그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불안한 듯 물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야?"

“스위스라고 하더군.” 래플스가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그 친구가 라벨을 너무 많이 써 붙여 놓은 모양이야. 우리 길잡이라도 되라고 일부러 남겨둔 모양이지. 뭐, 알다시피 9월 초에 스위스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게다가 하인들보다 먼저 돌아올 생각은 아무도 안 할 테고 말이야. 하인들이 도착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거야. 내가 문빗장을 끼워놓긴 했지만, 하인들은 빗장이 저절로 걸린 줄 알겠지. 그들이 열쇠 수리공을 부르러 나간 사이에 우리는 신사처럼 유유히 걸어 나가면 돼. 아니, 이미 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걸어 들어왔을 때처럼 말이지?"

어느덧 내 눈이 익숙해진 희미한 불빛 속에서, 래플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버니. 유감스럽게도 도머 창문으로 들어왔어. 옆집 바로 옆집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더라고. 사다리를 타는 건 딱 질색이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물쇠를 따는 것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니까 말이야.”

"그놈들이 다른 것들뿐 아니라 현관 열쇠까지 남겨두고 갔단 말이나!"

“아니야, 버니. 그건 그냥 혼자서 해낸 것뿐이야. 난 지금 ‘스위스 가족의 로빈슨’이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나의 친애하는 프라이데이, 이제 그 장화 좀 벗어주겠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섬을 좀 둘러보자고.”

계단은 매우 가파르고 좁았다. 래플스가 대령의 모자 꼭대기에 촛불 하나를 얹은 채 앞장서 올라가자, 계단은 겁이 날 정도로 빠격거리는 소리를 냈다. 중간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래플스는 불을 켰다. 그곳에는 창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건너편 길의 집 뒷모습을 뻘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거실 문 앞에 이르러서야 다시 불을 붙였다. 나는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다. 흰 천으로 덮인 세미그랜드 피아노와 금색 액자에 담긴 수채화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들른 욕실은 아주 훌륭했다.

“오늘 밤엔 꼭 한번 목욕을 해야겠어.”

지난날의 비참했던 은신처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를 떠올리며,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절대 안 돼.” 래플스가 쏘아붙였다. “우리 섬이 적대적인 부족들이 사는 군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제발 명심해 줘. 조심해서 욕조에 물을 받는 건 가능하겠지만, 물이 빠질 때 서재 창문 밑으로 흘러나가면서 엄청난 소음을 내거든. 그래서 난 버니,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퍼낸 다음 부엌 싱크대로 버리고 있어. 그러니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는 반드시 나한테 먼저 물어봐 줘. 자, 여기 네 방이야. 내가 커튼을 치는 동안 등불을 문밖에 좀 들고 있어 줘. 여긴 이 집 노신사의 드레스룸이니까. 이제 들어와도 좋아. 어때, 옷장이 아주 근사하지? 안쪽 옷걸이에 걸린 코트들 좀 봐. 정말 깔끔한 노신사 아닌가? 저 위 선반에 놓인 구두랑 넥타이를 걸어둔 작은 황동 막대도 좀 보고! 내가 이분이 아주 꼼꼼하다고 말했지? 만약 우리가 이분의 옷을 건드리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아마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모르실걸?”

"그 일이 그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충격적이기만을 바랄 뿐이야." 나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그건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 래플스가 대답했다. "그건 덩치 큰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거든. 자네나 나나 그 노인 옷이 맞을 만큼 덩치가 크지도 않잖아. 그보다 버니, 이쪽 제일 좋은 침실로 들어오게. 내가 자네한테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이것 좀 보게, 친구! 이 집에서 내가 쓰는 방은 여기뿐이라네."

나는 그를 따라 꽤 괜찮은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큼직했지만 커튼이 굳게 쳐져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매달린 램프의 불을 켜다. 두꺼운 초록색 갓을 통과한 강렬한 빛줄기가 책이 잔뜩 쌓인 탁자 위로 쏜

아졌다. 나는 그 책더미 속에서 『크림 전쟁 침공』이라는 제목의 책 몇 권을 눈여겨보았다.

“거기서 몸을 쉬게 하고 머리를 굴리는 거지.” 래플스가 말했다. “킹레이크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어. 하룻밤에 한 권씩은 읽을 수 있겠더라고. 대단하지 않나, 버니!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는지, 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 대령님이 왜 이 책에 빠져 있는지 알 것 같다니까.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 크러츨리야, 버니. 크러츨리 대령님. 공병대 소속에, 빅토리아 훈장 수훈자시지.”

“그의 용기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볼 수도 있겠군!”

점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조차도 웬지 모르게 용기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어 내가 말했다.

“계단에서는 목소리를 낮춰.” 래플스가 속삭였다. “우리과 저쪽 사이에는 문이 딱 하나뿐인데—”

래플스는 내 발치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럴 만도 했다! 텅 빈 집안으로 귀를 찢는 듯한 두 번의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래플스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즉시 등불을 꺼버리기가 지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 다 숨을 죽였다. 1층 계단참을 향해 내려가던 우리는 잠시 동안 쥐새끼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 래플스가 깊은 한숨을 내뿔었고, 저 아래 깊은 곳에서 대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체부뿐이야, 버니! 우체국에 분명히 따로 지시를 내려두긴 했겠지만, 그래도 우체부는 가끔 들를 거야. 그 노령의 대령님이 돌아오시면 우체국 사람들을 단단히 혼내주셨으면 좋겠군. 솔직히 말해서, 난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니까."

"가슴이 철렁?!" 내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죽어도 좋으니, 제발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란 말이야."

"이보게, 버니. 그건 내 휴식 요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네."

"그럼 작별이야! 더는 못 참겠어. 내 이마를 짚어봐, 심장 소리 좀 들어보라고! 크루소는 발자국을 발견했을지는 몰라도, 대문에서 두 번씩이나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단 말이야!"

"차라리 소란스러운 곳에서 사는 게 낫지, 이런 끔찍한 곳에 머무르니 말이야." 래플스가 인용하듯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버니, 우린 양쪽 모두를 다 겪고 있는 셈이야. 그런데 지금 집에 차밖에 없네."

"그런 건 어디서 만드는데? 연기가 나지는 않아?"

"식당에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어."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가 외쳤다. "더 아래층에 지하실이 또 있을 거야!"

"이보게, 착한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이미 말했잖아, 난 일하러 온 게 아니라고. 난 치료를 하러 온 거야. 이 사람들이 빨래비나 전기료

를 좀 내게 된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전혀 없어. 게다가 그 비용은 충분히 남겨두고 떠날 생각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브루투스가 워낙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니, 일단 지하실에서 술 한 병을 빌려 쓴 다음,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시 채워 놓기로 하지.”

래플스가 내 등을 가볍게 툭 쳤다. 내 주장이 관철되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때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이번처럼 작은 승리가 이토록 달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물론 이곳은 아주 작은 지하실이었다. 주방 계단 아래에 놓인 초라한 찬장이나 다름없었고, 자물쇠조차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했다. 술이 가득 쌓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위스키 한 병과 첼팅거 와인이 놓인 선반, 그리고 클라레 와인이 담긴 선반을 찾아냈다. 맨 위쪽에는 짧은 선반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위로 금빛 라벨이 붙은 병들이 코르크 마개를 드러낸 채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래플스는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뻗지는 않았다. 내가 접은 모자와 촛불을 들고 있는 동안, 그는 조심스레 와인 라벨들을 살폈다.

“음, 뭘음(Mumm), '84년산이라니!” 그가 속삭였다. “G. H. 뭘음, 그리고 서기 1884년산이야! 버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술꾼은 아니지만, 이 술의 상세한 내력을 너도 나만큼은 높게 평가해 주길 바라. 내 눈에는 이게 이 상자의 마지막 남은 단 한 병처럼 보이거든. 참 아까운 일이지. 하지만 지하실에 인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술을 쌓아두고 썩

히는 구두쇠보다는 훨씬 덜 아까운 일이야! 자, 버니, 앞장서게. 이 귀한 몸을 정성껏 모셔야 하니까. 지금 이 술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내가 가구 완비된 집에서 맞이하는 첫날밤을 축하하며 보냈다. 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는 그곳에서 이토록 달콤한 잠을 자지 못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른 아침 우유 배달부의 발소리가 들리고, 한 시간 뒤 우체부가 거리를 따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기분이 묘했다. 마치 파멸의 천사들이 차례로 나를 지나쳐 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충분히 일찍 일어난 뒤, 거실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의 계단들이 하나둘 깨끗하게 청소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우리 집 계단만큼은 예외였다. 하지만 래플스는 이미 한참 전부터 깨어 있었던 모양이다. 집 안은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쾌적해져 있었다. 마치 그가 방마다 돌아다니며 환기를 시킨 것 같았다. 가스레인지가 있는 방에서는 무언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캠든 힐에서 실내에만 처박혀 보낸 그 일주일의 시간을 제대로 써 내려갈 필력만 있었어도 좋으련만! 아마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결코 즐거운 기억이 아니었다. 물론 래플스와 함께 있을 때면 억지로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플 정도로 웃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말 그대로 서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보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 지독한 '요양'에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아주 불쾌할 정도로 진지하게 매달렸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층 가장 좋은 침대에 누워, 매달린 등불 아래에서 킹레이크의 책을 몇 시간씩 읽어 내려갔다. 그동안 나는 아래층 거실에서 겨우 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나는 범죄 관련 서적들에 파묻혀 힘겹게 흥미를 붙여보려 애썼지만, 결국 양말 신은 발끝이 떨릴 정도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 뿐이었다.

가끔은 히스테릭할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해서 래플스를 깨우고, 우리 주변에 소란이라도 일으키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한 번은 피아노의 소프트 페달을 밟은 채 단 한 음을 눌러 실제로 그를 끌어내려 내게 달려들게 만든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가 나를 방치하는 것이 마치 고의적인 무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가 위험한 친밀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침묵을 지킨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혈관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그 비밀스럽고 고독한 외출들 또한 충분히 정당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드나드는 솜씨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영리했다. 설령 내가 그만큼 은밀하고 신중했다 하더라도, 내가 곁에 있었다면 위험은 두 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는 평범한 주의 의무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작은 복수라도 계획하고 말았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가져온 옷이라고는 이 집으로 가져온 양복 한 벌뿐인데 그마저도 점점 낡아가는 것을 보니, 래플스가 이제는 완벽한 변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가 나를 이토록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또 다른 핑계가 바로 그것이었고, 나는 반드시 그 핑계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그가 또다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잠에서 깬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해 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크러츨리 대령은 유부남이었다. 집안에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지만, 대령의 부인이 사교계의 세련된 여성이라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었다. 옷장과 방 안에는 그녀의 드레스가 넘쳐날 정도였고, 위층 구석구석에는 커다란 판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부인은 키가 큰 편이었고, 나도 키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래플스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캄든 힐에 머무는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대령이 내 방에 두고 간 아주 잘 드는 면도기로 정성껏 면도를 마쳤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인의 옷장과 판지 상자들을 뒤져 내가 입을 옷을 골랐다.

내 머리카락은 밝은 색이었는데, 당시에는 꽤 길었다. 나는 크러츨리 부인의 집계와 버려진 머리망을 이용해, 남부끄러울 정도로 풍성한 앞머리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거울용 깃털이 달린 커다란 검은 모자를 써서 머리 장식을 완성하니, 내 스케이트용 치마와 깃털 보아와 마찬가지로 계절에 전혀 맞지 않는 차림이 되었다. 물론 그 귀한 부인께서는 여름용 드레스를 모두 챙겨 스위스로 떠나신 뒤였다. 9월 날씨가 워낙 무더웠던 터라 이 상황은 더욱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달아오른 얼굴에

파우더를 덧바르느라 정신이 없던 차에, 래플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반가울 정도였다.

계단참에서 잠시 그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그가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단장을 마치기로 말이다. 내 계획은 두 가지였다. 우선 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깜짝 놀랄 공포를 선사하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그 못지않게 해외로 떠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서재로 내려가며 내가 채우고 있었던 것은 대령의 장갑이었다. 전등은 낮 시간대인 평소처럼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는 내가 범죄 생활을 하며 마주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위압적인 형체가 서 있었다.

마르고도 아주 탄탄한 체구의 사내를 떠올려 보라. 중년은 훌쩍 넘은 나이였고, 피부는 마치 덜 익은 야생 사과처럼 검붉고 창백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래플스가 가장 사나울 때처럼 차갑게 적대적이었으며, 동시에 무심한 듯 날카롭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틀림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불같은 성미에 감옥까지 직접 시찰하고 다닌다는 바로 그 대령이었다!

그는 이미 나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 총은 래플스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고집 피웠던, 그 책상 서랍 중 하나에서 꺼낸 듯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자물쇠에는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그의 종잇장처럼 얇고 주름진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번지자, 한쪽 눈은 주름 속으로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반대쪽 눈은 외알 안경을 끼워 겨우 뜨고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자 그 안경은 줄에 매달린 채 달랑거렸다.

"여자라고, 젠장!" 그 전사가 외쳤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이 발칙한 계집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단 한 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포와 경악에 휩싸인 나머지, 나는 평온한 상황이었다면 결코 그만큼 그럴 듯하게 해내지 못했을 만큼 내가 맡은 역할을 훌륭히 연기했음이 틀림없다.

“자, 자, 이 아가씨야.” 늙은 참나무가 말을 건넸다. “내가 네 몸에 총알이라도 박아 넣을 것 같으냐! 전부 다 털어놓으렴.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게다. 자, 이 지긋지긋한 물건은 치워 두마. 그런데—세상에나, 이 발칙한 계집애가 부인의 옷을 비집고 끼입었던 말이냐!”

옷이 실제로 몸에 꼭 끼긴 했는데, 격앙된 기분 탓인지 그 조임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노련한 그가 나를 향해 품은 적대감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번뜩이는 안경 너머로 유머러스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리고는 품격 있는 신사답게 품속으로 권총을 갈무리했다.

“허, 참나. 내가 들여다본 게 천만다행이군.” 그가 말을 이었다. “그저 혹시나 편지가 왔을까 싶어 들른 것뿐인데, 만약 내가 안 왔더라면 자네는 일주일은 더 편히 먹고 자며 지냈겠어. 세상에, 코끝만 들이밀자마자 자네 필체가 바로 보이더군! 자, 이제 고집 피우지 말고 자네 그 잘난 양반이 어디 있는지 말하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혼자였다. 침입도 나 홀로 감행했다. 이 일에는 나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집 안에도 단 한 사람의 흔적조차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억지로 쉼 소리를 내며 더듬더듬 설명했다. 하지만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노인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친구를 팔아넘기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여보게, 난 해병대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믿으라고 하면 곤란하지. 뭐, 말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네. 그럼 말해줄 사람들을 불러오는 수밖에.”

찰나의 순간, 그의 사악한 계획이 눈에 들어왔다. 받침대 중 하나 위에는 전화번호부가 펼쳐져 있었다. 계단에서 내 발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번호부를 살펴보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는 지금 다시 한번 번호부를 확인하려 들었고, 바로 그 순간이 내게 기회로 다가왔다. 평소의 나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침착함이 발휘되었다. 나는 거짓말처럼 보일 만큼 날쌔게 움직여, 구석에 놓인 전화기로 몸을 날려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그와 동시에 나 역시 반대편 구석으로 튕겨 나갔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 전화기는 꽤 정교한 모델이었다. 덕분에 그 섬

세한 기계 장치를 오늘 하루는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나는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내 적수가 굳이 사실을 확인하려 애쓰지는 않았다. 그는 전등 불빛 아래서 나를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잔뜩 경계 태세를 갖추고 서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권총을 떨어뜨린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나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지만—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래플스와 내가 이 비극적인 현장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며 함께 비워냈던 술병이었다.

“내 눈앞에 있는 자가 진짜 그놈이 아니라면 차라리 총에 맞아 죽겠다!” 대령이 무기를 쥔 주먹을 내 얼굴 앞에 휘두르며 소리쳤다. “양의 털을 쓴 젊은 늑대 같은 놈 같으니라고. 당연히 내 와인에 손을 댔군! 당장 그 병 내려놔! 지금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네 몸통에 구멍을 내버리겠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이보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네! 지금 당장 자네를 썬 죽일 구실을 만들지 말게나. 내 기꺼이 그 기회를 잡을 테니까! 내 마지막 '84년산 와인을…… 이 비열한 악당 같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놈!”

그는 위협적인 기세로 나를 몰아붙여, 자신의 구석진 자리, 자신의 의자에 앉혀 놓았다. 그는 한 손에는 빈 병을,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을 든 채 내 위로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보랏빛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가 내뱉는 욕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앙상한 목줄기는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올 때마다 부풀어 오르며 파르르 떨렸다. 내가 아내의 옷을 입고 있는 꼴을 보고도

그는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그는 마지막 남은 최고급 샴페인 한 병을 위해서라면 내 피라도 기꺼이 뽑아 마실 작정일 것이다. 이제 그의 눈은 숨겨져 있지 않았다. 이제는 외알 안경으로 떠받칠 필요도 없을 만큼, 분노로 커진 눈동자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 위로 튀어나올 듯 번뜩였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 눈이 왜 그렇게까지 부릅떠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불행한 장교의 어깨 너머로 래플스의 얼굴이 보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가 한창 말다툼을 벌이며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래플스는 소리도 없이 살며시 기어 들어왔다.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대령에게 접근했다. 내가 다른 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래플스는 대령의 권총을 왼 손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내가 묘사하려 애썼던 것처럼, 대령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손을 대령의 등 뒤로 거칠게 꺾어 버렸다.

하지만 평생을 싸워온 사내에게는 아직 기백이 남아 있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대령은 독기 서린 몸짓으로 뒤를 향해 병을 휘둘렀다. 병은 래플스의 정강이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 틈을 타 나도 온 힘을 다해 달려들었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대령의 입을 막고 의자에 꽂꽂 묶어 놓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깔끔한 승리가 아니었다.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래플스의 상처는 살점이 드러날 정도로 깊었다. 그가 절뚝거릴 때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의자에 묶

인 대령은 그 붉은 자국을 매서운 눈빛으로 쫓으며, 불길한 만족감을 담아 번뜩이고 있었다.

사람이 저토록 단단히 묶이고 입까지 틀어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 알았다. 하지만 래플스의 피와 함께 인류애마저 모두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그는 식탁보를 찢고 블라인드 줄을 끊어냈다. 거실에서 먼지 덮인 천까지 가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결박을 더했다. 불운한 사내의 다리는 의자 다리에, 팔은 의자 팔걸이에 꽂꽂 묶였고, 허벅지와 등은 가죽 시트에 아예 용접이라도 한 듯 달라붙어 있었다. 사내의 턱 튀어나온 뺨 사이로는 자의 양끝이 빠져나와 있었고, 콧수염에 가려진 채 자의 중간 부분이 입안을 막고 있었다. 재갈은 머리 뒤쪽을 무자비하게 묶어 고정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차마 오래 지켜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처음부터 그 무자비한 눈빛이 뿜어내는 흥포한 기세에 놀려 눈을 마주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나의 나약함을 비웃으며 사내와 의자 위로 먼지 덮인 천을 툭 던져 덮어버렸다. 천 너머로 비치는 그 기괴한 윤곽을 건디지 못한 나는 결국 방을 뛰쳐나왔다.

그것은 내가 전에도 후에도 본 적 없는, 래플스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다. 고통과 분노에 미쳐버린 래플스, 이 나라의 그 어떤 범죄자만큼이나 절박해 보이는 래플스였다. 하지만 그는 무모한 폭력을 휘두르지도, 비열한 조롱을 내뱉지도 않았다. 아마 자신이 겪는 고통의 십분의 일도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가 명백히 잘못했고, 피해자 역시 마땅히 옳았다. 하지만 상황의 발단이 된 잘못을 차치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벌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래플스가 우리의 공동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한 이보다 더 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나조차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그의 야만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났다면, 나는 그것을 사소한 범죄에 더해진 유별난 악행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투명한 유리창은 있었지만 블라인드는 없었던 욕실, 그 환한 대낮의 빛 아래서 나는 래플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상처가 그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즉시 알아차렸다.

"한 달은 꿈쩍 못 하고 누워 있어야 할 거야." 그가 말했다. "만약 그 V.C.가 살아남는다면, 그놈이 입힌 상처와 내가 입은 상처가 똑같다는 게 금방 탄로 나고 말 테니까."

빅토리아 훈장이라니! 비논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이에게 그 사실은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였다. 하지만 그가 무사히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에 단 한 순간이라도 의구심을 품는단 말인가!

"당연히 그는 나타날 겁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하인들이나 부인이 올 거라고 말하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서둘러야겠군요."

"아니, 래플스. 아무래도 그분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 편지를 확인하러 들르지 않았다면, 일주일은 더 우리끼리만 이 집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나한테 말했거든. 그게 제일 문제야."

래플스는 먼지 방지용 천을 가져와 정성껏 감으며 미소를 지었다. 피가 배어 나오지는 않았다.

“난 동의 못 해, 버니.” 그가 말했다. “내 생각엔 오히려 이게 최선이야.”

"뭐라고요, 그가 죽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안 될 게 뭐 있겠나?"

래플스는 맑고 푸른 눈으로 나를 뵈듯 응시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으며, 보는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그의 목숨과 우리의 자유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고 나 또한 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소. 그를 이렇게 꼼꼼히 묶어버린 건 이미 내 결정을 내린 뒤의 일이었지.” 래플스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 남아서,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스스로 풀고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줄 생각이라면, 내가 괜한 수고를 했다는 생각뿐이오. 가스레인지 위에서 가방을 씻고 말리는 동안 가서 천천히 생각 좀 해보시오.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릴 테니, 그동안 나는 킹레이크의 마지막 권을 마저 읽을 참이오.”

그가 떠날 준비를 마치기도 한참 전부터,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옷은 갖춰 입었으나,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은 엉망인 상태였다. 나는 한두 번 정도 래플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식당 안을 살폈다. 그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역시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으나, 붉은 표지의 책에 푹 빠져 앉아 있는 그의 왼쪽 다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꺼내 보았던 책들을 원래 있던 선반에 되돌려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남자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가 먼지 덮인 천을 획 걷어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잠시 기다리더니, 마치 그 저주받은 집이 제 소유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앞장서서 바깥 공기 속으로 나를 이끌었다.

"들키겠어요." 나는 그의 뒤를 바짝 쫓으며 속삭였다. "래플스, 래플스! 저 모퉁이에 경찰이 있어요!"

"그를 아주 잘 압니다." 래플스가 몸을 돌려 반대편을 향하며 대답했다. "지난 월요일에 그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었죠. 그때 나는 대령님이 계시던 연대의 퇴역 군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집 안 공기도 좀 환기하고, 남는 편지나 좀 보내주러 오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보시다시피 나는 항상 스위스 주소로 보내는 편지 한두 통을 품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걸 그에게 보여주니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는 뒤로는, 우편함 쪽을 귀 기울여 살피며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해 봤자 아무 소용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부린 그 기묘한 재주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힐 정도로 영악했지만, 그는 정작 그 비결을 내게 들려주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최근의 행적을 왜 숨겼는지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혼자 외출할 때마다 겪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말하곤 했다. 게다가

지난번 나의 변장에 대해 마치 가르치려 드는 듯한 모욕적인 칭찬까지 덧붙였으니, 나는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할 뿐이었다.

"나를 따라와서 뭐 하겠나?"

내가 노팅힐의 큰 길을 가로질러 그를 따라붙자, 그가 물었다.

"함께 죽든 함께 살든, 운명을 같이하는 수밖에 없겠군." 내가 침을 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 계획은 이래. 지방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가는 길에 면도도 좀 하고, 크리켓 가방을 포함해서 필요한 장비들도 하나씩 새로 장만할 생각이야. 크리켓 가방은 정말 새로 사고 싶었거든. 그리고 나면 투구할 때 쓰는 다리에 예전 같은 통증을 그대로 안고 절뚝거리며 올버니로 돌아오겠지. 아, 지난 한 달 동안은 가명까지 써가며 시골 저택들을 돌며 경기를 해왔다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소속 팀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하고도 품위 있는 방법이니까. 이게 내 일정이야, 버니. 그런데 네가 왜 같이 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교수대에 매달리는 게 낫겠군!" 내가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친구." 래플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교수대에 서까지 자네와 동행하게 될까 봐 슬슬 겁이 나는걸!"

그 지방 순회 여행에 대해서는 펜을 들지 않으려다. 그렇다고 해서 래플스가 여행 중의 무료함을 달래려 벌였던 그 소소한 일들에 내가 동참했다는 뜻은 아니다. 런던에서 저지른 마지막 사건은 내 영혼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 용맹한 장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낮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그가 나타났다. 어떤 때는 그 불굴의 눈빛이 나를 사납게 쏘아보았고, 어떤 때는 시트 아래로 앙상한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 환영 때문에 내 일상도 어두워졌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내 마음은 그를 떠날 수 없었고, 오직 래플스가 농담처럼 말했던 그 교수대만을 떠올릴 뿐이었다.

아니, 나는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가볍게 맞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안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죽음을 마주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둘째 날 밤을 지새우며 나는 결심했다. 우리가 위기에 빠뜨린 그 생명을 구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바로 그날 아침,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말이다. 나는 내 결심을 래플스에게 전하기 위해 일찍 몸을 일으켰다.

우리가 머물던 호텔의 래플스 방에는 신랑이라 해도 믿을 만큼 새것 같은 옷가지와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자물쇠가 채워진 크리켓 가방을 들어 올렸는데, 가방 무게가 도저히 크리켓 장비만 들어있을 법한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래플스는 면도를 깨끗이 마친 모습으로 마치 갓난아기처럼 잠들어 있었다. 내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다.

“자백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버니? 잠깐만 기다려 봐. 이 밤중에 경찰을 불러 깨우면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욕부터 먹을 테니까. 그나저나 내가 늦게 나온 신문을 한 부 샀는데, 이것 좀 봐. 바닥에 떨어진 게 분명 저거야. 버니, 속보란에 적힌 내용을 좀 읽어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 대목을 찾아냈다. 그리고 내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웨스트엔드에서의 만행

캠든 힐의 피터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R.E. 소속, V.C. 수훈의 크러츨리 대령이 자택에서 비열한 습격을 당했다. 가족들이 해외로 떠나 비어있던 집을 대령이 예기치 않게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집에는 불한당 두 명이 침입해 있었으며, 이들은 상당한 폭력을 휘둘러 명망 높은 장교인 대령을 제압하고 붙잡아 두었다. 켄싱턴 경찰의 정보망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용맹한 피해자인 대령은 입이 막힌 채 손발이 묶여 있었으며 기력이 다해 탈진한 상태였다.

"켄싱턴 경찰 덕분이지." 내가 공포에 질려 마지막 문장들을 소리 내어 읽자, 래플스가 관찰하듯 말했다. "내 편지를 받자마자 떠났을 리는 없거든."

"편지 말인가요?"

"유스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에게 몇 자 적어 보냈어. 그날 밤에 바로 받았겠지만, 어제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용을 확인했을 거야. 그리고 확인하자마자 자기들이 다 해낸 것처럼 생색을 내면

서, 나한테는 자네가 준 것만큼이나 아주 쥐꼬리만 한 보상밖에 안 주더라고, 버니!"

베개 위에 놓인 곱슬거리는 머리칼을 보았다. 그 머리카락 아래로 미소 짓는 잘생긴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서서히 죽이는 거라니요? 저를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몇 시간 동안 억지로라도 폭 쉬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으니까요."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나, 래플스!"

"그렇지도 모르지, 버니. 하지만 자네는 분명 나를 믿었어야 했어!"

범죄학자 클럽

"그런데 그들이 대체 누구야, 래플스? 집은 또 어디 있고? 휘태커 명단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클럽은 나오지 않던데."

"버니, 범죄학자라는 사람들은 수가 너무 적어서 특정 장소에 모여 살 정도는 아니야. 그렇다고 자기네 이름을 떠벌리기엔 너무 콧대 높은 사람들이지. 그저 현대 범죄를 연구하는 엄숙한 학자들이 모여서, 가끔씩 서로의 클럽이나 집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라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더러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걸까요?"

나는 나를 올버니까지 급히 달려오게 만든 그 초대장을 휘둘러 보였다. 발신인은 가터 훈장(K.G.)을 받은, 존귀하신 손너비 백작 각하였다. 초대장에는 파크 레인에 있는 손너비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해 범죄학 클럽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어 달라는 정중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제안이었다. 하물며 래플스 역시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사람들은 요즘 스포츠의 가장 큰 저주가 바로 검투사 같은 요소라고 굳게 믿고 있더군요.” 그가 말했다. “특히 직업 검투사들의 처지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이 그들의 이론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리그 선수 한 명의 사례를 인용하더군요. 교수형에 처해진 선수 말이죠. 그 외에도 자살 사건은 셀 수 없이 많고요. 사실 이런 건 제 대중적 이미지와 꽤 잘 어울리는 편이죠."

“자네 분야라면 모를까, 내 분야는 아니야.” 내가 말했다. “아니, 래플스. 그들은 우리 둘 다를 주시하고 있어. 우리를 살살이 뒤져보려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애초에 왜 하필 나를 찍었겠나.”

래플스는 당황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차라리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버니! 그러면 지금 계획 중인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테니까. 하지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들에게 네 이름을 말한 건 바로 나야. 내가 그들에게 말했거든.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범죄학자라고 말이야. 내 힌트를 그들이 잘 알아듣고, 그 끔찍한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니 정말 기쁜걸.”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엄격한 태도로 내가 말했다.

“안 그러면 말이야,” 래플스가 대꾸했다. “우리 둘 다 아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게 될 거야. 잘 생각해 봐, 버니! 저 사람들은 온갖 최신 범죄를 파헤치며 즐기려고 모이는 거잖아. 우리는 마치 그들보다 범죄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처럼 그 틈에 끼어들어 함께 즐기면 되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살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을 가진 범죄학자란 드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해. 저 사람들은 기분 전환 삼아 도둑질이라는 정교한 예술에 그 병적인 정신을 쏟아붓게 될 테고, 그동안 우리는 버니, 우리 자신의 고결함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슬쩍 떠볼 수도 있잖아. 작가로서, 그리고 공동 집필자로서 우리는 비평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들과 마주 앉아, 전문가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될 거야. 비록 엄청난 수확은 아닐지라도 아주 묘하고 자극적인 경험이 되겠지. 만약 우리가 선을 너무 넘는다면, 분명히 그 소리를 듣게 될 테니 그때 가서 적절히 조절하면 그만이야. 게다가 덤으로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을 수 있을걸. 만약 우리 고결한 호스트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유럽 전역에 퍼진 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셈이니까.”

“그를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경계서 원하신다면 파빌리온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지요.” 래플스가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압니다. 한때 M.C.C. 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회장은 없었을 겁니다. 경기를 보는 눈은 아주 탁월하시지만, 평생 크리켓 채 한번 잡아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면서도 정작 직접 해본 일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결혼도 안 하셨고, 상원 의회에서 입을 떼는 적도 없으시죠. 하지만 그 존엄한 의회에 그분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는 없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지난번 호주 팀이 방문했을 때도 정말 멋진 연설을 해주셨고요. 온갖 책은 다 읽으셨으면서도,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게 글 한 줄 써본 적이 없으시니 참 대단한 일이죠. 요컨대 이론은 거창한 고래 같지만 실천은 쥐꼬리만 한 분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이론과 실전 모두에 능숙해 보이시더군요!”

나는 이 놀라운 귀족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건딜 수 없었다. 그가 대중의 흥미를 끌려고 사진을 신문에 내놓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호기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래플스에게 손너비 경의 저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는 나의 주저함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해버린 것이다.

분명 그는 미리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을 터였다. 내 뛰어난 기억력이 이끄는 대로 적어 내려가는 그의 짧은 대사들은 하나같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이 있다. 실제 래플스의 말투는 래플스 소설 속 인물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숨 가쁘게 말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댔고, 그 연기 사이로 대화의 마침표가 찍혔다. 때로는 그 마침표가 마치 별표를 늘어놓은 것처럼 길게 이어지기도 했으며, 그사이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곤 했다. 또한 그는 가장 무심하고 자연스러워 보일 때조차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나는 결국 그 점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초기 시절이었기에, 그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설명하러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싸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내 눈에 비쳤다.

그 무렵 나는 래플스를 꽤 자주 보았다. 사실 내가 그를 찾아가는 횟수보다 래플스가 나를 찾아오는 횟수가 더 많았던 유일한 시기였다고 기억한다. 물론 그는 늘 제멋대로인 시간에 나타나곤 했다. 외식하러 나가려고 막 옷을 차려입을 때 불쑥 찾아오는 일도 허다했다. 진작에 그에게 집 열쇠를 맡겨두었기에,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그가 이미 와 있는 모습이 떠오를 정도다.

살풍경한 2월이었다. 우리는 아늑한 저녁을 보내며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우리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떼지 않았다. 사실 그때는 딱히 논의할 만한 잘못도 없었다. 오히려 래플스

는 아주 품격 있는 사교계에서 꽤 부지런히 활동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의 권유 덕분에 나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클럽을 자주 드나들었다.

"이맘때쯤이면 이만한 게 없지." 그가 말했다. "여름에는 크리켓을 하니까 남들 눈에 띄게 건전한 일에 몰두할 수 있거든. 아침부터 밤까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한밤중에 내가 뭘 하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실은 오랫동안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다. 덕분에 손너비 경이 다른 범죄학자들과 손님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여는 날 아침,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눈부신 재능을 가진 친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는 길에 나를 데리러 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 5분 전이 되도록 래플스나 그의 마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7시 45분까지 와서 8시에 식사하라는 초대였으니, 결국 나는 혼자 서둘러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손너비 하우스는 내가 살던 거리의 거의 끝자락에 있었다. 게다가 그 집이 지금처럼 위엄 있는 안뜰 안쪽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내게는 또 하나의 행운처럼 느껴졌다. 마침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내 뒤로 한 대의 한섬 택시가 불빛을 반짝이며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래플스가 타고 있기를 바라며 슬그머니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택시에는 그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서둘러 현관에서 벗어났다. 다른 손님들도 나만큼이나 늦게 도착

한 듯했으므로,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1분 정도 더 기다리기로 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이 택시비를 지불하며 연극 속 속삭임 같은 소리로 재잘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쏟어비가 프레디 베레커와 그 일로 내기를 했다더군. 듣기로는 프레디가 못 온다나 봐. 물론 오늘 밤 당장 승패가 갈리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 가여운 친구는 자기가 크리켓 선수로 초대받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니까!"

"그가 다른 쪽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소." 첫 번째 목소리가 부드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통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부 헛소리라고 믿고 있단 말이오. 믿고 싶지 않지만, 내 생각은 그 령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을 집어삼키듯 닫히는 순간, 다른 한 사람이 대꾸했다.

나는 힘없이 손을 내저으며 허공을 내리쳤다. 래플스는 그가 '섬뜩한 만찬'이라 불렀던 그 자리에 불러 나갔다. 하지만 그는 크리켓 선수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 용의자 신분으로 불러 나간 것이었다! 래플스가 내내 틀렸고, 이번만큼은 내 원래의 예감이 맞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래플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고해 줄 래플스도, 나타나 줄 래플스도 없었다. 래플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계는 여덟 시를 알리고 있었다!

그 순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무의미하다. 시계들이 일제히 울려 퍼지는 순간, 사고와 감정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적 자극이 일시적으로 멈춘 덕분에, 나는 내 비루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감각적인 인상들이 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다가왔다.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다.

미친 듯이 두 짝의 문을 두드리는 내 소리가 들린다. 문은 가운데가 갈라지며 활짝 열리는데, 마치 화려하고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다. 양옆으로는 실크 다리를 가진 하인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집사 한 명은 마치 성직자처럼 계단 계단 위에서 축복을 내리듯 정중히 고개를 숙인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있는 서재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그곳은 벽난로 앞 페르시아 양단 카펫 위로 겨우 몇 명의 사람만이 모여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중 한 명은 래플스였다. 그는 반신반인의 이마를 가졌으나 눈매와 턱은 타락한 불독을 닮은 거구의 사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가 바로 우리의 고귀한 주인이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쏘어비 경은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뵈히 응시했다. 그는 곧 나를 키가 크고 꼴사나운 남자에게 소개해주었다. 그는 어니스트라고 불렸지만, 그의 성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어니스트는 수줍고 서툰 태도로 남은 손님 두 명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들은 아까 한섬 택시를 타고 온 일행이었다. 한 명은 킹

스밀 법률 고문(Q.C.)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시골 소설가 패링턴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법률 고문은 통통하고 깔끔한 차림에 나폴레옹을 닮은 인상이었던 반면, 소설가는 예복을 차려입었음에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덩수룩하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나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한 명씩 말을 건넬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래플스에게 향해 있었다. 하지만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우리 여섯 명은 커다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밝게 빛나는 작은 식탁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임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속으로 '둘이서 하나를 상대하는 꼴이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어리석었다. 하지만 곧 나는 숫자가 주는 안전함이 간절해졌다. 인원이 너무 적은 탓에, 적어도 나는 일반적인 대화의 위험을 피해 이웃과 단둘이 속닥거리는 은밀한 대화 속으로 숨어들 수도 없었다.

곧이어 시작된 일반적인 대화는 이내 공격으로 변했다. 그 공격은 너무나 교묘하게 짜였고 예술적으로 전달되어서, 래플스가 그것을 공격이라고 알아챌 수 있을지, 그것도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지, 혹은 그에게 위험을 어떻게 경고해야 할지도 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클럽 회원들이 나조차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무시한 채, 더 큰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첫 발을 쏜 것은 다름 아닌 쏘어비 경 본인이었다. 세리주 잔을 앞에 둔 채였다. 그의 오른쪽에는 래플스가, 왼쪽에는 문학계의 야생아 같은 친구가 앉아 있었다. 래플스는 오른쪽에서 법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나는 파링턴과 어니스트 사이에 끼어 앉았다. 어니스트는 식탁 끝 자리에 앉아 마치 귀족 가문의 가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쏘어비 경이 몸을 뒤로 기대며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말을 건넨 대상은, 바로 우리처럼 제각각인 이 기묘한 무리였다.

“래플스 씨가 제게 들려주더군요. 지난 3월에 극형을 당한 그 불쌍한 사내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사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최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최후였어요! 운 나쁘게 경정맥을 건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맞이한 최후만큼은 교수형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통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합니다. 래플스 씨, 직접 이야기해 주시지요. 제 친구들에게도 저만큼이나 신선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지난번 트렌트 브리지에서 경기를 뛴 때 직접 들은 이야기라네. 신문에는 한 번도 안 실렸을 거야." 래플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무렵 호주에서 열린 테스트 매치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나? 결정적인 경기의 결과가 사형수의 마지막 날에나 나올 예정이었거든. 그 사람은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정도였지. 기억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잖나.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더군. 덕분에 기분 좋게 교수형을 당할 수 있겠다고 말이야."

"그가 또 뭐라고 했는지 어서 말해 보게!" 쏘어비 경이 통통한 손을 비비며 외쳤다.

"목사는 이 시국에 고작 경기 하나에 이토록 흥분하느냐며 그를 나무랐다. 그러자 죄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니, 교수대 저편으로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내게 가장 먼저 물어볼 게 바로 그거일 텐데요!'"

그 이야기는 나조차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그 내용을 음미할 겨를은 없었다. 내 관심은 오로지 그 이야기가 일행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피는 데 있었다. 내 왼쪽에 앉은 어니스트는 배를 잡고 웃어대더니, 한동안 몸을 들썩이며 킬킬거렸다. 성격이 더 예민한 다른 옆자리 친구는 처음에는 움찔하더니, 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결국 목공용 연필로 제 셔츠 소매를 마구 두드리기까지 했다. 킹스밀 법률 고문은 래플스를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듯 보였으나, 입을 여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그가 높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친구,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 뭐 아는 거라도 있나?" 쏘어비 경이 물었다.

"검사 측을 이끌었지요." 변호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거의 그 불쌍한 사람의 목 둘레를 직접 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분명 계획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쏘어비 경은 그 냉담한 변호사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흘겨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야 어니스트가 킁킁거렸고, 패링턴은 연필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거렸다. 그사이 나는

요한니스베르거 와인을 훌쩍이며 순식간에 잔을 비웠다. 래플스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가 보여준 경악스러운 표정만 봐도, 그가 얼마나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 딱히 동정심이 생기는 일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가 침묵을 깨며 던진 첫마디였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당신에겐 위안이 되었겠군요." 래플스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작가가 맹세하듯 말했다. 변호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며칠 전 페컴과 솔로몬스를 교수형에 처하는 데 일조했다면, 저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왜 하필 페컴과 솔로몬스인가?" 경이 물었다.

"그들이 그 노부인을 죽이려 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

"하지만 그놈들은 그녀가 잠든 침대에서, 그녀가 쓰던 베갯잇으로 목을 졸라 죽였던 말입니다!"

"상관없어." 무례한 문인이 말했다. "도둑놈들이 그것 때문에 침입한 게 아니거든. 그녀를 죽일 생각 따위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 그 어리석은 노인이 소란이라도 피웠겠지. 그러다 보니 한 놈이 너무 짝 졸라 맨 거야. 난 그저 그놈들에게 지독한 불운이 따랐을 뿐이라고 봐."

"조용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예의 바른 도둑들 말입니다." 쏘아 비 경이 덧붙였다. "자신들의 그 미천한 직업을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수행하는 그런 도둑들 말이죠."

그가 부풀어 오른 미소를 지으며 래플스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우리가 이미 리허설까지 마친 프로그램의 순서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은 샴페인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나는 그 작은 배려에 감사를 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그 귀족의 농담에 너무나도 재빨리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모습이 일품이었다. 그 모습은 래플스가 나의 오래된 역할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함을 이용해,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 양 독보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것은 래플스에게 내려진 참으로 시적인 응보라 할 만했다.

나는 이 기묘하고도 새로운 상황을 잠시 즐기며, 이 부유한 신사가 차려낸 진수성찬을 만끽했다. 양고기 요리는 메뉴에 이름을 올린 보람이 있을 만큼 훌륭했다. 하지만 그 맛이 뒤이어 나온 핑 날개 요리의 풍미를 해치지는 않았다. 나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기대하며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문학계의 명사라는 그가 던진 추가적인 발언이 나를 식탁의 음식으로부터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킹스밀 씨,” 그가 말했다. “아마도 ‘수많은 도둑을 가족과 친지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절도죄로 기소된 불쌍한 이들이 아주 많다고 해두죠." 쾌활한 성격의 Q.C.가 대답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아주 많다'는 표현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는 런던에서 형사 사건은 아예 말지 않거든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딱 그 종류뿐이라네." 소설가가 손가락으로 젤리를 떠먹으며 말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주인장이 대화에 끼어들며 맞장구를 쳤다. "세상에는 변호해야 할 범죄자가 참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모험심 강한 빈집털이범을 택하겠습니다."

"이 일 중에서 가장 경쾌한 분야임이 틀림없어." 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거미줄처럼 가벼웠고, 꾸밈없는 태도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의 기술이 일궈낸 승리처럼 보였다. 마침내 래플스도 위험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내가 잔을 다시 비우는 동안, 그는 샴페인을 더 마시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느낀 위험의 성질은 서로 달랐다. 범죄학을 주제로 솔직하게 이어가던 대화가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해도, 래플스가 놀라거나 당황할 이유는 없었다. 누군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나에게는 이 상황이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그에게는 그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상대방의 태도에서도 그를 경계하게 만들 만한 기색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래플스 자신의 방식보다 아주 조금 덜 가벼울 뿐이었다.

"난 사이크스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소." 변호사가 마치 자기 차례가 온 것처럼 선언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선사 시대 사람이냐 다름없었소." 나의 경이 대꾸했다. "스위트 윌리엄 시절부터 먼도날 아래로 흘러간 피가 한둘이 아니란 말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겐 피스가 있었지요." 패링턴이 말했다. 그러더니 그 범인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이 화제 전환이 영영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 하지만 쏜버리 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윌리엄과 찰스는 둘 다 죽은 왕들이냐 다름없어." 그가 말했다. "그쪽 동네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왕은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불쌍한 덴비의 집을 털어버린 바로 그놈이지."

세 공모자 사이에 죄책감이 서린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니스트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온 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사람 잘 알지." 래플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쏜버리 경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뵈히 바라보았다. 나폴레옹을 닮은 변호사의 얼굴에 어린 미소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억지로 굳어 있는 듯 보였다. 칼로 치즈를 조금씩 베어 물던 우리 작가는 수염에 핏방울 하나를 남겼다. 오직 어리석은 어니스트만이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뭐라고!" 그분이 외쳤다. "자네, 그 도둑을 안단 말인가?"

"저도 그러면 좋겠군요." 래플스가 낄낄거리며 대꾸했다. "아닙니다, 쏜버리 경. 저는 그저 보석상 덴비 씨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혼 선물을 사고 싶을 때면 늘 그를 찾아가거든요."

내 숨을 들이켜기도 전에, 누군가 깊게 숨을 세 번 몰아쉬는 소리가 하나로 뭉쳐져 들려왔다.

"참으로 묘한 우연이군요." 주인장이 무미건조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도 밀체스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레이디 멜로즈의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건이 불과 몇 달 뒤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마침 제가 거기 머물고 있었거든요." 래플스가 열을 올리며 말했다. 거물들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속물만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드는 이도 없었다.

"범인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쏜버리 경이 말했다. 그는 범죄학 클럽을 대표해서 말하는 듯했으나, 목소리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자를 우연히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래플스가 유쾌하게 말을 이었다. "교수대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사형수 방에서 크리켓 이야기를 늘어놓는 당신네 살인자들보다, 그자가 내 취향에는 훨씬 더 범죄자답거든!"

"그자가 지금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르네."

쏜버리 경이 래플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맞지 않는 배역을 맡은 배우 같았다. 그는 끝까지 이 상황을 받아들여 보려 애쓰는 듯했으나, 그 눈빛에는 쓰라린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막대한 판돈을 잃기 직전의 부유한 도박사처럼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겠지!" 서부극 작가가 외쳤다.

“불길한 징조는 사양하겠네!” 래플스가 좀 더 품위 있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시간대가 가장 인기 있는 때라는 건 분명할 겁니다.” 킹스밀 법률 고문이 반박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 남자의 성격으로 보아, 범죄학 클럽 회장을 살짝 방문하는 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죠. 하필이면 회장이 다른 회원들을 대접하고 있는 저녁 시간을 골라서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우리를 맞이한 고귀한 주인보다 더 확신에 찬 기색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법조인 특유의 숙련되고 능수능란한 능력스러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쏜버리 경은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덧붙인 그 농담이 전혀 즐겁지 않은 모양이었다. 쏜버리 경은 다소 날카로운 태도로 집사를 불렀다. 집사는 지금 엄숙한 표정으로 식탁보를 치우는 일을 감독하고 있었다.

“레젯! 지금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들은 다 열려 있는지, 방들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킹스밀, 자네가 제안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제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끔찍한 생각이야!”

경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며 다시 정중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우린 바보 취급을 당할 걸세. 그나저나,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도둑놈들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었는지는 모르겠군. 래플스 씨, 드 퀸시가 쓴 명작 『살인은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나?”

“한 번 읽었던 것 같기도 하군요.” 래플스가 의구심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다시 읽어봐야 하네.” 백작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주제에 관한 결론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드 퀸시의 글에 어울릴 만한, 불길한 사례를 들거나 피로 얼룩진 각주를 다는 것 뿐이지. 자, 레겟, 어떻게 생각하나?”

연륜이 느껴지는 노집사가 내 곁에서 쉼쉼거리며 서 있었다. 그가 천식 환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송구하오나, 경께서 무언가 잊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함께 들려왔지만, 그 속에 담긴 질책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하고도 섬세했다.

“잊었다니, 레겟! 대체 무엇을 잊었다는 건가?”

“경, 경의 드레스룸 문을 경께서 나가신 뒤에 잠그셨어야지요, 경.”

불운한 레겟은 숨이 가빠 헐떡이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한 번에 몇 마디씩 끊어서 간신히 말을 이어 나갔다.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경. 침실 문도, 드레스룸 문도, 전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이면 고귀한 주인님은 그 남자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다. 매끈하던 이마에는 푸르스름한 핏줄이 엉킨 듯 솟아올랐고, 처진 턱살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1초도 지나지 않아 주인님은 호스트로서의 체면을 내팽개친 채 방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또 1초가 지나자, 우리 역시 손님이라는 본분을 잊은 채 그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기 시작했다.

래플스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이미 우리 모두를 앞질러 달려가고 있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꼬마 변호사와 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주를 벌였고, 결국 내가 그 자리를 지켜냈다. 뒤이어 숨을 헐떡이는 집사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예의를 갖추듯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서서 도움과 조언을 자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밀어붙여 봐야 소용없네, 쏜버리!” 그가 외쳤다. “뺨기와 송곳을 써서 뜯어낸 거라면, 문을 부수려 들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이 근처에 사다리라도 있나?”

“화재를 대비해서 어딘가에 사다리가 있을 걸세.”

그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며 막연한 듯 말했다.

"레겟, 그 사다리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

"월리엄이 가져오겠습니다, 경."

그리고 한 쌍의 기품 있는 종아리가 허공을 향해 번쩍 치솟았다.

"그걸 내려서 뭐 하겠나!" 패링턴이 소리쳤다. 흥분한 나머지 그는 거친 야성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그냥 저놈이 자네 창문 바로 위층에 그걸 걸어두게 두게나. 그럼 내가 기어 올라가서 나머지를 처리하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장담하건대, 이 문들 중 하나를 순식간에 열어젖혀 주지!"

잠긴 문들은 우리가 사이에 끼어 서 있는 계단참을 중심으로 직각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손을 들어 저자를 물러가게 한 쏜버리 경이 마치 사냥개를 목줄에서 풀어주는 모양새 같았다. 그 후, 쏜버리 경은 남은 우리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친구 패링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이군." 그가 말했다. "장담컨대, 그는 나보다 이런 상황을 훨씬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지요." 래플스가 너그럽게 말했다.

"맞아, 바로 그거야! 다음번 그의 책에 그 내용이 통째로 실리게 될 거라고."

"우선 그 사건을 올드 베일리 법정에서 먼저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킹스밀 법률 고문이 말했다.

"글을 쓰는 문인이 이토록 행동파라니, 참으로 신선한 일이군요!"

이 말을 내뱉은 건 래플스였다. 평소의 그답지 않게 다소 진부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어조에는 내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패링턴의 그 참견하기 좋아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이미 의심을 사고 있던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문학계의 모험가라는 자가 래플스를 주목받지 못하는 그늘 속으로 밀어 넣어준 것이다. 래플스의 목소리에서 내가 포착한 것은 바로 그 은밀한 도움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나 역시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마움과 동시에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통찰이 번뜩였다. 패링턴은 래플스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거나, 적어도 그 의심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래플스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나? 만약 그 자신이 아주 교활한 악당이며,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면?

나는 평소 결정을 내릴 때 걸리는 시간의 십 분의 일도 채 쓰지 않고 그에 대한 판단을 마쳤다. 그때 탈의실에서 내가 점찍은 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례할 정도로 큼지막하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맞이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패링턴이 나타났다. 그는 얼굴이 벌겋

게 달아오른 채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고, 한 손에는 송곳을, 다른 한 손에는 썰기를 쥐고 있었다.

방 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었다. 서랍들은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져 거꾸로 세워져 있었고, 그 안의 내용물은 카펫 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빈 단추 상자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수건에 싸인 시계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급히 던져진 듯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구석에 있는 열린 찬장 사이로 긴 양철 뚜껑 하나가 빠져나와 있었다. 그 뚜껑 뒤로 보이는 쏜버리 경의 씩씩한 표정만 보아도, 그가 내용물이 거의 비어버린 양철 트렁크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짐작할 수 있었다.

"흠치기엔 참으로 묘한 물건들이군!"

그가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왕관까지 세트로 갖춰진 귀족의 예복이라니!"

우리는 예의를 갖춘 침묵 속에서 그를 에워쌌다. 나는 우리 곁의 기록자가 한마디 거들 줄 알았다. 하지만 그조차도 경외심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것인지 입을 떼지 못했다.

"그걸 보관하기에 참으로 묘한 장소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쏜버리 경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그런 골칫덩이들을 대체 어디에 뒀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들은 눈처럼 하얀 코끼리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앞으로는 빌려서 쓰겠다고 맹세하죠!"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자신의 손실을 오히려 즐거운 듯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유를 깨달은 것은 조금 뒤의 일이었다. 우리는 범죄 현장을 경찰에게 맡겨둔 채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쏜버비 경은 래플스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래플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그를 감돌던 유쾌함도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표정마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를 환대하던 주인님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걷혔음을 직감했다.

“이 일이 저녁 식사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신사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으련만.” 그가 말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직감이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으니, 당연히 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야.”

“글쎄, 나도 궁금하군!” 래플스가 나를 향해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선생님!” 경이 외쳤다. “그놈의 대담함은 오직 그놈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제가 일 년 중 단 하루, 동료 범죄학자들을 대접하려 애쓰는 바로 그날 밤에 제게 예우를 갖췄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조롱입니다. 영국 내 그 어떤 범죄자도 감히 떠올리지 못할 그런 교묘한 조롱 말입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래플스는 이번만큼은 눈치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내 얼굴을 보고 그 말을 한 것이라고 나는 내심 자만했다.

"더욱 확실한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집주인이 말을 이었다. "세상 그 어떤 범죄자라도 이토록 달콤한 구상을 이토록 완벽한 성과로 완성해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경위님께서도 분명 우리 의견에 동의하실 겁니다."

쏜버비 경이 말을 이어가던 중,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이 노크를 하고 서재로 들어왔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경."

"이 유쾌한 소동을 저지른 범인은 뻔합니다. 1, 2년 전 레이디 멜로즈의 목걸이를 가로채고, 불쌍한 댄비의 주식 절반을 털어간 그 신사적인 도둑놈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경께서 정확히 짚으셨다고 믿습니다."

"넘블리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다가 다시 넘블리 경에게 돌려준 그 사람 말이야, 자네도 알지?"

"어쩌면 그가 경에게도 똑같이 대할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 아니야! 내 옆질러진 우유를 두고 울고 싶지는 않거든. 그 저 그 친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챙겨갔길 바랄 뿐이야. 그나저나, 위층에 새로 들어온 건 좀 없나?”

"예, 경. 도난 사건은 8시 15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대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수건에 싸여 묶여 있던 시계는 8시 20분에 멈춰 있었다.

"내 부하를 조사해 보았나?"

"그렇습니다, 경. 그분은 15분 전쯤까지 경의 방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방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이었습시다."

"그럼 도둑이 집 안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 지금 그자가 집에 있을 리 없습니다. 그자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이라곤 경의 침실이나 드레스룸뿐인데, 저희가 그 두 곳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거든요."

경위가 챙 달린 모자를 어루만지며 물러나자, 쏜버비 경은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우선 이 문제들부터 정리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고개를 까닥이며 설명했다. "그곳에서 내 부하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내 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 작가에 대해 품었던 나의 의심이, 그 사람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원망을 품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막연한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가 우리를 탈의실로 들여보낸 순간부터, 그의 행동 때문에 나의 추측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친근했던 태도가 갑자기 침울하게 바뀌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 친근한 태도가 유용한 봉사와 결부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던 쏜버비 경이, 그 임무가 완벽히 끝나는 순간 얼마나 냉정하게 사람을 처내는지 말이다.

패링턴의 결백이 증명되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가설을 품었던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래플스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은 기적 같은 행운이었고, 우연 중의 우연이었다. 사람들은 래플스를 낱알이 파헤치려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몰아세우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해결되며 그의 결백이 입증된 것이다. 기적은 일어났고, 그 효과는 사람들의 표정마다 역력히 드러났으며 목소리마다 생생히 묻어났다.

다만 어니스트만은 예외였다. 그는 결코 이 비밀을 알 리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유쾌한 범죄학자는 생애 처음으로 범죄의 현장을 목

격한 탓에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었다. 반면 다른 세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공평함을 만회하려 안달이었다.

킹스밀 법률 고문은 래플스에게 언제 사무실로 찾아오면 좋을지 알려주며, 앞으로 어떤 재판이든 듣고 싶다면 법정 좌석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패링턴은 자신의 저서들을 선물하겠다고 말하며, 래플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 집주인과도 화해를 시도했다. 쏜버비 경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가 애스나이엄 클럽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위원회에 있는 친구들을 거론하더니, 내 귀에는 (아마도) 제2조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각자 갈 길을 떠날 때까지도 경찰은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내 방은 바로 모퉁이만 돌면 되는 거리였지만, 래플스를 내 방까지 끌고 오는 것조차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었다. 래플스는 거리에서 도둑맞은 사건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방으로 가는 게 낫겠다며 마지못해 동의했다.

방에 도착한 뒤, 나는 그에게 방금 겪은 위험과 내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 내가 엿들었던 몇 마디 말과, 그가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살얼음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화려한 동작을 선보였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생각해주어야 한다. 나는 곁에서 듣고 지켜보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경고의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다.

래플스는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기 전, 마지막 남은 설리번 시가 한 모금을 내뿜으며 내 화로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지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더는 안 마실게.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버니,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 설마 내가 처음부터 저 잘난 척하는 녀석들의 속셈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나는 그가 그날 저녁 전부터 그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는 진작 내게 이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래플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황은 정반대였다고 따져 물었다. 설마 내가 재미 삼아 사자 입속에 머리를 들이밀 만큼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게다가 그 재미있는 광경을 보라고 나를 굳이 거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자네를 원했을지도 몰라, 버니. 정말로 그럴 뻔했던 말이지."

"제 얼굴 때문인가요?"

"나에게는 오늘 밤 전에도 이런 행운이 찾아온 적이 있었네, 버니. 그리고 이 행운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자네가 믿기 힘들 정도로 자신감도 생겼지. 자네는 생각보다 나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어."

"갤러리와 프롬프터 박스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대단했어, 버니! 하지만 나 역시 농담으로 넘길 상황은 아니었다네, 이 사람아. 당시엔 정말 아슬아슬했거든. 자네를 언제든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헛걸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나."

"하지만 이제 어쩌면 좋지, 래플스?"

"싸우면서 길을 뚫고, 그대로 달아나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생기가 가득했고, 입술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마 그 일에 당신이 손을 댔다는 건 아니겠지?"

"내가 유일하게 손을 댄 거야, 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당신은 식탁에 앉아 있었잖아.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을 공연에 데려갔을지도 모르지. 난 항상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면 충분해, 버니."

래플스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는 담배 한 대를 더 꺼내 물었다. 나 역시 그의 케이스에서 담배 한 대를 더 꺼내 물었다. 래플스에게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내뱉은 믿기 힘든 말은, 결국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물론이지.” 내가 말을 이었다. “만약 자네가 정말로 이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낸 거라면, 그 수단이 어떠했든 나는 결코 비난하지 않을 걸세. 자네는 자신을 꺾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훨씬 강력한 세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까지 증명해 보였으니까. 이제 그들은 평생 자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 했다는 말은 믿어달라고 하지 말게! 세상에!” 나는 갑자기 벅차오르는 열정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어떻게 해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는 상관없네. 이건 자네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업적이야!”

래플스가 이토록 환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세상 모든 것이 제 뜻대로 풀리는 듯한 만족감, 그리고 평소라면 오직 나만이 느껴졌을 법한 그 고양된 희열에 래플스가 이토록 가까이 다가서 있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다.

"내 부탁대로만 해준다면, 버니, 그 일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해 줄게."

"자, 어서 물어보게, 친구.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해 줄 테니."

"전등을 꺼 주세요."

"전부 다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됐군요."

"자, 이제 뒤쪽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올려."

"그래서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잘됐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다본 적은 처음이야. 저 집에서 불이 켜진 창문은 저기 하나뿐이야!"

그는 창문에 뺨을 바짝 댄 채, 길게 이어진 마구간 골목 너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선은 약간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꺾여 있었는데, 골목 끝자락에서 노란 타일처럼 작게 빛나는 사각형의 불빛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빛을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설마 저 건물이 손어비 하우스라는 말인가요?"

뒷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내게 낯선 모습이었다.

"당연히 알고 말고, 이 토끼 같은 녀석아! 네 쌍안경으로 좀 똑바로 들여다봐. 그게 지금까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

쌍안경의 초점을 맞추기도 전에 내 눈앞의 안개가 더 걷혔다. 지난 몇 주 동안 왜 그토록 래플스를 자주 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항상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타나 이 창가에서 바로 이 쌍안경을 눈에 댄 채 기다렸던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쌍안경 너머가 또렷하게 보였다. 래플스가 가리켰던 불 켜진 창문 하나가 어두운 시야 속으로 툭 떨어지듯 들어왔다. 방 안 내부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려진 블라인드 위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비쳤다. 심

지어 빛이 새어 나오는 사각형의 창틀에는 검은 실 하나가 여전히 대롱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곳이 분명했다. 용감한 패링턴이 위층에서 내려왔던 바로 그 창문임이 틀림없었다.

“정확해!” 내 외침에 래플스가 대답했다. “바로 그 창문을 지난 몇 주 동안 지켜봐 왔어. 낮에는 이쪽 집 외벽의 1층 위쪽이 흰히 다 보이거든. 운 좋게도 그중 하나가 이 집 주인이 밤마다 화려하게 차려입는 방이었지. 적절한 때를 맞춰 지켜보기만 하면 금방 눈에 띄더라고. 자네가 일어나기도 전인 어느 날 아침에는 그가 면도하는 모습까지 봤다니까! 저녁에는 하인이 뒷정리를 하려고 남는데, 바로 그 점이 골칫거리였어. 결국 그 하인에 대해 알아내야만 했지. 하인의 여자친구인 척 하며, 8시에 밖에서 만나자는 전보를 보냈어. 물론 그놈은 그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발뺌하겠지만, 그건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그래서 그 불쌍한 친구가 할 일을 내가 미리 해치워 버렸지. 방을 뒤지기 전에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잘 접어서 제자리에 돌려놓았거든.”

"그럴 시간도 있었나 보군!"

"딱 1분 정도 더 걸렸고, 덕분에 시곗바늘을 정확히 15분 앞당겨 놓은 셈이었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발견한 시계의 경우 저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계를 멈춰 세워 시간을 조작하는 건 아주 오래된 수법이죠. 하지만 시계가 마치 누군가 훔쳐가려고 막 포장해 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은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모두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강도가 들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사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손어비 경이 옷을 갈아

입으러 방을 나갔고, 바로 다음 분에 그의 하인이 뒤따라 나갔으며, 그 다음 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왔다고요?"

"물론이지. 정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도시에서 정원을 가꾸려면 여러모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 담벼락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 유쾌한 뒷문 말이야. 자물쇠 따위는 우스운 수준이었네."

"하지만 창문은요? 그건 1층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래플스는 코트와 함께 내려놓았던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끝부분이 매끄럽게 닦인 튼튼한 대나무 지팡이였다. 그는 지팡이 끝의 마개를 돌려 빼더니, 그 안에서 점점 가늘어지는 여러 개의 대나무 막대들을 차례로 꺼냈다. 마치 아이들이 쓰는 낚싯대 같은 모양새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래플스는 강철로 된 이중 갈고리를 꺼내 맨 끝마디에 재빨리 연결했다. 그러고는 조끼 단추를 세 개쯤 풀더니, 마닐라 삼으로 만든 최고급 로프를 허리에 여러 번 감았다. 로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밧을 걸 수 있는 고리들이 깔끔하게 달려 있었다.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래플스가 밧줄을 풀며 물었다. "이쪽 끝을 갈고리 끝에 단단히 묶어두면, 갈고리의 나머지 절반은 지나가는 물체마다 걸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줄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낚싯대는 그냥 매달아 두기만 하면 되지. 물론 무엇에 갈고리를 걸어야 할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탈의실에 도자기 욕조를

설치할 정도의 남자라면, 내 방식에 딱 맞는 사람이지. 배관이 전부 외부에 있었고, 벽의 아주 적절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거든. 보시다시피 난 밤마다 여러 번 정찰했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미리 살펴봤어. 운에 맡기고 사다리를 만들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셨군요!"

"여보게, 버니." 래플스가 허리에 삼베 벨트를 다시 한번 단단히 감으며 말했다. "난 사다리를 타는 일은 질색이었네. 하지만 만약 내가 사다리를 써야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물건을 쓰겠다고 늘 다짐해 왔지. 이 사다리는 조만간 또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마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지에서 태어나 대지로 돌아간다라? 오늘 밤 그 과정은 고작 5분 남짓이었네. 그중 1분은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데 썼지만 말이야."

"세상에!" 내가 외쳤다. "그러니까 네 말은, 그 짧은 5분 사이에 위아래로 기어 다니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찬장과 커다란 양철 상자까지 털어냈다는 거야? 게다가 문을 고정해 두고는 귀족의 예복까지 몽땅 챙겨서 유유히 사라졌단 말이지?"

"물론 아니죠. 당연히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럼 대체 무슨 뜻이고,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두 번이나 기회를 잡았지, 버니! 어젯밤 한창 깊은 밤에 리허설을 한 셈이야. 진짜 물건을 챙긴 건 그때라고. 옆방에 계신 우리 고결한 친구분은 내내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지만 말이야. 그래도 내 소소한 업적 중에서는 꽤 손꼽힐 만한 일이야. 원하는 건 다 챙기면서도 현장은 처음 본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유지했거든. 뒷정리까지 아주 착한 아이처럼 깔끔하게 해두었으니까.

그 작업은 시간이 꽤 걸렸어.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저 방을 좀 어지럽히고, 단추랑 커프스링크 몇 개를 쓸어 담은 뒤에, 마치 '오늘 밤'에 그 빌어먹을 예복들을 뒤진 것처럼 보이게 증거를 잔뜩 남겨두기만 하면 됐지. 잘 생각해 봐, 자네 같은 작가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결론 도출(Q.E.F.)'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나? 나는 이 가여운 범죄학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저지를 리 없다는 걸 보여준 데서 그치지 않았어. 나 말고도 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고, 실제로 저지른 다른 놈이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 보인 거지. 그들이 나랑 그놈을 헛갈려 하다니, 정말이지 완벽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래플스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채 녀를 잃고 있었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경지를 넘어선 상태였다. 만약 그가 지금 당장 영란은행이나 런던탑을 털었다고 말한다 해도, 나는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 올버니로 돌아가 그의 침대 밑에서 왕실 보물을 찾아내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가 외투를 입을 때 나도 내 외투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래플스는 내가 함께 가겠다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아니야, 버니. 잠도 부족한 데다 너무 흥분했더니 이제는 아주 진이 빠지는군. 자네는 믿지 않겠지만, 나를 아주 뻔뻔한 악마처럼 볼지도 모르겠네만, 자네가 말한 그 5분은 내 취향에도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어. 저녁 식사는 명목상 7시 45분이었네. 지금 와서 말하자면, 난 실제보다 두 배는 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 그런데 12분 전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주최 측이 시간을 좀 끌었지. 난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싶지 않아서 정각 5분 전에는 응접실에 가 있었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은, 어쩌면 나의 생각과도 같을 것이다. 래플스가 가터 훈장(K.G.)을 받은 손어비 백작 각하의 예복과 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굳이 범죄학자가 될 필요도, 하물며 범죄학자 클럽의 회원일 필요도 없다. 그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그와 어울리던 신사들이라면 충분히 예상했을 법한 행동을 정확히 해냈다. 또한 그 방식은 너무나도 래플스다웠기에,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그와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의구심마저 깨끗이 떨쳐버리게 만들 정도였다.

카터 패터슨 운송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명백한 이유로 소포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주소를 적는 것도 피해야만 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그 값비싼 물건들을 차링 크로스 역의 옷 보관소에 맡겨두고는, 손어비 백작에게 그 보관표를 보내버렸다.

빌립보의 들판

래플스가 크리켓 팀 주장이었을 때, 니퍼 네스미스가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이었다. 그가 '니퍼'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건 순전히 통학 학생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당시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내가 학교에 다닐 적에 그 용어가 품고 있던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 중 한 명이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은행의 파트너이며 지점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별명이 결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오명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스미스는 상하 관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미움을 샀고, 본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즐기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나치게 양심적인 나머지, 자신의 직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 애썼다. 게다가 타협을 모르는 성격 탓에 보고 들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공공 도덕을 지키는 야만적인 파수꾼 같았던 그는, 한술 더 떠서 가망 없는 일에 집착하는 괴팍한 열정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는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파를 지지했고, 근거 없는 신념이라도 그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면 기꺼이 그 편에 섰다.

적어도 첫 학기를 마친 뒤 내가 느낀 니퍼 네스미스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 학기가 그의 마지막 학기이기도 했지만 말이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으나, 학교 토론회에서 그가 보여준 놀라울 정도로 강렬하고 열정적인 연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형클어진 머리, 빗질도 안 한 코트, 위압적인 안경, 그리고 독단적인 턱선까지, 그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 래플스가 운명적인 번덕을 부려 '동문 경기'에 다시 출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결단에 이끌려 파운더스 데이의 잔잔한 축제에 참여하러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인물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하지만 이번 모임은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다. 개교 200주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터라, 경건한 설립자를 기릴 적절한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한창이었다. 학교 강당에서 특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래플스는 신임 교장으로부터 특별 초대를 받았다. 교장은 래플스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인물로, 케임브리지 시절 함께 1군 크리켓 팀에서 뛰었던 동창이었다. 래플스는 수년 동안 모교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나는 졸업한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익숙한 여정이 나의 비천한 가슴 속에 불러일으킨 감정들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겠다. 패딩턴 역은 온갖 연령대의 졸업생들로 북적였다. 비록 우리가 방학을 맞아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만큼 떠들썩하지는 않았고, 우리 동창들도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예전보다 콧수염을 기르고 담배를 피우며 화려한 무늬의 넥타이를 맨 이들이 더 많아졌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인파 속에서 두세 명이 래플스를 두 번, 세 번 쳐다보기도 했지만, 래플스나 나나 아는 얼굴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여정의 끝자락인 환승역에 도착해서야 겨우 아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니퍼 네스미스를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 남자는 우리 둘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소년의 친아들이었다. 그는 거칠게 자란 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마치 돌보지 않아 제멋

대로 뻗어 나간 덩굴처럼 얼굴 주위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체구는 뚱뚱하고 몸은 굽어 있었으며,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플랫폼을 쿵쿵 내디디며 걷는 발걸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렸고, 래플스 역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 걸음걸이만으로 그를 알아보고 말았다.

“분명 니퍼야!” 그가 외쳤다. “판토마임 행렬에서나 볼 법한 그 걸음걸이라니, 이건 내 이름을 걸고 단언할 수 있어! 발걸음 하나하나에 깃든 그 당당한 기세를 좀 봐. 저건 억압자의 목덜미를 짓누르는 뒷꿈치 질이라고. 험령한 바지를 입은 비국교도적 양심이 그대로 드러나잖아. 버니, 저 친구와 꼭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비록 나랑은 사사건건 부딪히긴 했어도, 옛날의 니퍼는 참 괜찮은 친구였거든.”

그는 순식간에 소년의 별명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토록 짹짹하고 시원시원한 얼굴과 손길을 가진 이라면, 설령 별명을 부른다 해도 무례하다고 느낄 사람은 거의 없을 터였다. 그는 그런 실례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내 이름은 네스미스요.” 상대방이 몸을 곧게 일으켜 세우며 쏘아붙이듯 말했다.

“용서하게나.” 래플스가 기죽지 않고 말했다. “별명만 기억하고, 그 별명이 예전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지. 자, 악수하세, 친구! 나는 래플스라네.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5년은 된 모양이군.”

“적어도 그건 그렇군.” 네스미스가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래플스에게 악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네가 그 대단한 모임에 참석하러 내려간다는 말이지?” 네스미스가 비아냥거렸다. 나는 마치 여전히 미들 포스(middle fourth)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당연하지!" 래플스가 외쳤다.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걱정이군.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사람이 될 생각이야. 네스미스, 자네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

그는 평소 보기 드문 열정을 쏟아내며 말했다. 기차를 타고 오며 래플스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소년 시절의 기차가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몰아치듯 그를 휘감았다. 그는 런던에서 명예로운 직업을 따라 분주히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화려하지만 고된 일과를 잠시 뒤로하고 얻어낸 짧은 휴식 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고 확신한다. 그날 이후, 그 기억은 해골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깨어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내 곁에는 언제나 그 해골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스미스가 여전히 부동산자세로 콧웃하게 대답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사거든요."

"학교 말인가요?"

"제 아버지도 그러하셨지요."

"축하하네, 이 사람아!" 래플스가 쾌활하게 외쳤다. 그 모습은 내가 런던에서 보아온 그 어떤 래플스보다도 훨씬 젊고 활기차 보였다.

"축하하실 것까진 없을 텐데요." 네스미스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분명 엄청나게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행사에 가려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니퍼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바닥 돌을 뒤꿈치로 짓이기며, 그 이름을 떠올린 듯했다.

"하지만 당신, 분명히 그 학교 건물에서 열리는 모임에 갈 예정 아니었나요?"

"모르겠어. 만약 간다면 돌풍이라도 불 것 같은 말이야. 래플스, 네가 이 대단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은……"

덥수룩한 수염이 빠져나와 있었고, 거친 콧수염 사이로 앙다문 치아가 보였다. 이윽고 그가 참아왔던 견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생각들은 편협하고 무절제했으며, 내가 1학년 때 토론 동아리의 선동가였던 그를 보며 들었던 것만큼이나 괴팍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없는 활력과 독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네스미스의 사고방식은

세월이 흘러도 넓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타고난 힘이나 성격만큼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목청을 높여 아주 기운차게 말을 이어갔다. 곧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젊은 졸업생들의 뻗뻗한 칼라와 너털웃음도 이 초라한 선동가를 막지는 못했다. 200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왜 돈을 써야 한단 말인가? 그게 그 사람이나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게다가 그는 명목상으로만 우리의 설립자일 뿐이다. 그는 위대한 공립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다. 그저 150년 동안 그럭저럭 명맥만 이어온 작은 시골 문법학교를 세웠을 뿐이다. 지금의 위대한 공립학교는 지난 50년 사이에 성장한 결과물이며, 이는 결코 그 경건한 설립자의 공로가 아니다. 더욱이 그는 이름뿐인 경건한 인물이었다. 네스미스는 조사를 해 봤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쁜 사람을 위해 귀한 돈을 낭비해야 한단 말인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까?"

선동가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자, 래플스가 물었다. 그러자 네스미스는 번뜩이는 눈빛을 띠며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없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 밤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듣자하니 올해는 아주 이례적인 모임이 될 거라더군. 부디 제정신인 사람이 몇 명이라도 섞여 있기를 바라야지. 지금 운영진 중에는 한 명도 없고, 내가 아는 이사 중에서도 딱 한 명뿐이니까!"

춤을 추는 듯 생기 있게 빛나던 래플스의 눈동자가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웃음을 참았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네.” 그가 말했다. “나 역시 어느 정도는 자네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설령 이 움직임이 우리가 꿈꾸던 방향이나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런 대의를 지지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하네. 내 생각에 자네도 뭔가 내놓겠지, 네스미스?”

“뭘 내놓으라고요? 내가?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완고한 은행가가 외쳤다. “그렇게 하는 건 내 모든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입니다. 나는 이번 일을 진심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반대하며, 내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막아설 겁니다. 아니, 선생, 나는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부 행위까지도 뿌리째 뽑아버리는 데 앞장설 작정입니다.”

래플스에게서 일어난 그 갑작스러우면서도 미묘한 변화를 알아챈 사람은 아마 나뿐이었을 것이다. 굳게 다문 입술과 그보다 더 차갑게 빛나는 눈빛 말이다. 적어도 나는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일 밤 모임에서 네스미스가 연설을 할 것인지 물으며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을 건넸고, 그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다. 네스미스는 연설을 할지도 모르겠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각오하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우리를 태운 열차가 역에 들어설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럼 필리피에서 다시 만납시다!" 래플스가 유쾌한 작별 인사를 건네며 외쳤다. "네스미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솔직했어. 그러니까 나도 내 차례가 되면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지. 나 역시 반대편에서 입을 열 작정이라고!"

래플스가 대학 시절 오랜 친구인 신임 교장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으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래플스와 내가 머물 곳은 학교 건물 안이 아니었다. 우리가 소년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저택이었다. 그 사이 저택에도 변화가 있었다. 건물 한쪽에는 별채가 증축되었고, 2층으로 된 작은 공부방들은 눈부신 전등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중정이나 파이프스 코트까지 변한 것은 아니었다. 공부방 창가를 감싼 담쟁이덩굴도 예전보다 두꺼워지지 않았고, 어느 소년의 방에서는 우리가 학생일 때 보았던 그 유명한 채링 크로스 다리 판화도 그대로였다. 여러 공부방을 전전해 온 그 판화는, 예전에 그 판화를 처음 팔고 떠났던 건설업자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래플스와 내가 학생이었을 때 내가 매일같이 돌보던 박제 새의 양상한 잔해까지 남아 있었다.

우리가 모두 기도를 드리기 위해 줄을 지어 안으로 들어갔다. 교사 구역과 학생 구역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초록색 펠트 문을 지나자, 복도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서서 홀에 모인 이들에게 정숙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스라한 옛 시절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몸과 마음이 그 풍경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뿐이었다.

초록색 펠트 문 너머 우리 쪽에서는 근사한 환대와 함께 술잔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주 젊은 졸업생들이 제법 모여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들의 시절이 마치 선사 시대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이 나누는 현대적인 농담과 수다의 물결 속에서, 우리 같은 노련한 이들은 즐거움의 뒤편으로 한참이나 밀려나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파티의 중심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주인공은 단연 래플스였다. 그것은 결코 그의 크리켓 실력 덕분이 아니었다. 우리 중에는 크리켓 선수가 또 없었기에, 래플스는 오히려 그들만의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며, 때로는 한꺼번에 어울려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가 이토록 활기찬 모습인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그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처럼 굴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훨씬 더 보기도 문 존재, 즉 젊은이들의 열기와 즐거움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 줄 아는 세속적인 신사였다. 나의 근심과 후회는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래플스는 마치 삶에 그런 것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동창회 경기에서 영웅이 되지는 못했다. 학교 전체가 그에게 기대했던 바였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는 정적이 흘렀고, 경기장을 나올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나 위대한 래플스가 투구를 시작하자마자 경기장 곳곳으로 공을 얻어맞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물론 그 일로 그의 기분이 꺾이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를 환대하

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와 네스미스가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 모임이 이어졌다.

네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모임의 분위기는 다소 냉랭했다. 우리는 각자 초대한 이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이 모임에 다소 무심한 태도로 모여든 참이었다. 참석자들의 마음속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팽배했다. 개회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은근한 편견과 그보다 더 큰 무관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었다. 그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여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니퍼 네스미스가 입을 열자 회의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사건의 정황을 따져볼 때, 그의 발언이 다소 저속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까다로운 소수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으면서도, 어수룩한 대중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명분들을 그가 비판할 때처럼, 이번 발언 역시 순수한 본능에서 터져 나온 것이리라. 물론 그의 논거는 이미 우리 중 몇몇에게 들려주었던 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풀이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각 논거가 상징하는 명확한 원칙들을 간결하게 설명하며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그 자체로도 감탄스러울 만큼 신랄한 수사법을 덧붙여 공격력을 높였다. 한마디로, 그 말의 방식은 그가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근간에 걸맞을 만큼 대담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투덜거리며 그 말을 삼켰을 것이다.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멈춘 듯한 걱정적인 울림이 지나갔다. 그러나 래플스가 반박하

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단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래플스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의 말이 채 들리기도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보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를 두고 이보다 더 큰 착각을 한 적은 없었다. 설마 서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주고받을 줄 알았건만, 모여 있던 모든 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A. J. 래플스가 니퍼 네스미스에게 건넨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래플스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단호하게, 오랜 친구인 네스미스가 자신에 대해 늘어놓은 말들을 단 한 마디도 믿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래플스는 네스미스를 2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토록 크게 짓어대면서 정작 무는 법은 없는 개는 처음 보았다. 사실 래플스는 너무나 마음이 너그러워서 누군가를 물어뜯을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 네스미스가 일어나서 아무리 크게 항의하며 발끈한다 해도 소용없었다. 래플스는 그가 네스미스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래플스는 네스미스가 가진 훌륭한 자질 뒤에 숨은 결점들을 짚어냈다. 그는 스포츠맨으로서의 기질이 지나치게 좋았다. 약한 쪽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완벽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네스미스가 그날 밤 우리 모두가 들었을 법한 과격한 언사를 내뱉게 된 것이라고 래플스는 설명했다. 그리고 래플스는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로 말을 뱉었다. 네스미스가 새로운 기금에 대해 무엇이랴 말하든, 혹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

에, 그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너그럽고 좋은 친구'답게 우리 중 누구보다도 기꺼이 거액을 기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래플스는 낮에 학교를 실망시켰던 것처럼, 그날 저녁 올드 보이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그가 품격 있는 농담이나 고결하고도 의리 있는 경멸을 보여주길 기대했으나, 그는 그저 그리 세련되지도 않은 친근한 농담 따위로 우리를 적당히 넘겨버렸다. 하지만 중대한 잘못을 이토록 가볍게 넘기는 그의 태도 덕분에, 오히려 그 자리에 감돌던 불편한 기류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다. 네스미스조차 더 진지한 공격이었다면 맞받아쳤겠지만, 이런 식의 가벼운 태도에는 대꾸할 방도가 없었다. 그는 그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래플스가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뒤이어 연설한 이들은 래플스만큼 너그럽지 못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기에 토론 중에 더 이상의 양금은 남지 않았다. 하지만 네스미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직접 확인하게 될 터였다.

상황을 따져보면 그는 그날 저녁의 대미를 장식할 교장 선생님의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악명 높은 니퍼처럼 변덕스러운 인물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는 아마도 가장 사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네스미스가 래플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네스미스와 내가 무도회장 벽에 바짝 붙어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대놓고 비판하는 이

들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신을 과분할 정도로 다정하게 대해준 '친절한 적'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래플스라는 대단한 분과 함께 계신 걸 본 것 같군요." 네스미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며 말을 건넸다. "그분을 잘 아십니까?"

"아주 잘 압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네요. 어제 내려오는 길에 그가 역지로 내게 들어갔을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게 밝혀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마치 우리가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양 떠돌고 있군요."

"너랑 그 친구는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그의 말투에 울컥한 나는 맞받아쳤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때의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데다, 래플스에 대한 존경심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될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니퍼 네스미스가 말했다.

그의 거침없는 모욕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다행히도 찰나의 순간, 되받아칠 말이 번뜩 떠올랐다.

“도시에 사시니 관찰할 기회가 남다르셨겠군요.” 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긴 머리카락과 덩수룩한 수염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에 첫 일격을 가했으나, 그게 전부였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밤마다 몰래 나갔단 말이지?” 내 맞은편의 상대가 말을 건넸다. “자네가 아주 대놓고 친구를 팔아넘기는군.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대답 대신 래플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지금 어느 교사의 부인과 왈츠를 추고 있었다. 래플스는 무엇을 하든 늘 그렇듯, 춤조차도 완벽하게 해냈다. 그들 앞에 선 다른 커플들은 마치 빛에 녹아내리듯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했다. 그의 팔에 안긴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된다고 말하자, 네스미스가 설명하듯 말했다. “런던 시내든, 그가 그 신비로운 삶을 꾸려가는 곳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리한 말투는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 정작 내 귀를 종긋 세우게 만든 건 그가 래플스를 수식하며 붙인 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래플스를 따라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 꽤 애를 먹어야 했다.

“다들 그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크리켓을 치는 데 쓰니까요.”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만약 내 말투에 무례함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그건 순전히 내 신경이 날카워진 탓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

"그게 그 사람 생계 수단의 전부인가요?" 질문자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건 래플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회의 때 사람들 앞에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

하지만 당혹감이 밀려오자 나는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태도에 반해 네스미스는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다.

"정말이지, 자네가 그렇게 신비주의를 떠는 걸 보니 그자가 무슨 천박한 직업이라도 가진 모양이군!" 그가 외쳤다. "그건 그렇고, 나는 일류 크리켓조차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네. 신사여야 마땅할 사람들이 신사 옷만 걸친 채 실제로는 프로 선수처럼 구는 꼴을 보고 있자니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검투사 같은 운동광 열풍은 이 시대의 큰 악덕 중 하나라고 보네. 하지만 소위 아마추어라고 불리는 자들이 교묘하게 프로처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그 열풍이 낳은 가장 큰 악덕이지. 신사라는 작자들이 경기를 뛰고, 정작 다른 문으로 들어서는 진짜 선수들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내 젊었을 적엔 이런 일이 없었네. 아마추어는 순수하게 아마추어였고, 스포츠는 스포츠였지. 당시 일류 크리켓계에는 래플스 같은 자가 없었던 말일세. 래플스가 요즘 일류 크리켓 선수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군. 이제야 그자가 왜 그러는지 설명이 되는구먼. 내 아들이 그런 자가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어떤 모습이 되는 게 낫겠나?"

나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주는 묘한 매력에 사로잡혀, 누군가 내게 말해줄 때까지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그자가 도둑놈인 게 낫겠어!" 네스미스가 맹렬하게 내뱉었다. 그러고는 나를 쏘아보던 눈길을 거두더니, 그대로 뺨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나의 곤혹스러운 상황도 일단락되었다.

더 나쁜 상황이 닥치기 위한 전조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일까? 양심 때문에 겁이 나 주춤거리고는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도무지 없었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 끝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머지않아 발을 헛디딜 것이고, 결국 구덩이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말 터였다. 나는 차라리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나는 예전 집의 내 방으로 돌아왔다. 춤추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그곳에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비록 나 자신은 지키지 못했을지언정, 더 나은 사람들이 맺는 숭고한 서약만큼이나 단호하게 다짐했던 결심이었다. 그곳에서 느낀 고통스러운 연상 작용은 단순히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는 자책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방 안에서 다른 춤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래플스가 가르쳐준 덕분에 맛을 알게 된 담배를 여전히 피우고 있던 그때였다. 문득 고개를 들자, 래플스가 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직 래플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제는 역시 전문가다운 솜씨로 문을 닫았다.

“아킬레우스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놓쳤어.” 그가 말했다. “그런데도 아직 저 텐트 안에서 씩씩거리며 틀어박혀 있단 말이지!”

“그랬었지.” 그가 늘 그렇듯 나를 웃게 만들기에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잠시 멈춰서 담배 한 대 피워준다면 나도 그만둘게. 주인도 상관없어 할 거야. 재떨이도 준비되어 있잖아. 원래대로라면 침대 시트 속에 들어가 뽀로통하게 누워 있어야 할 시간인데, 네 곁에서 아침까지 깨어 있을 준비가 됐어.”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어.” 래플스가 대답했다. 유혹적인 설리번 담배를 뿌리친 것은 그로서도 드문 일이었다. “사실 지금은 아침이야. 한 시간만 지나면 곧 동이 틀 테고. 워필드 숲이나 스토크리 도로, 아니면 어쩌나 미들 근처만큼 해돋이를 보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어? 나도 너만큼이나 잠을 자고 싶지 않아.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기서 겪은 일들은 지난 몇 년간 그 무엇보다 나를 고양시켜 주었거든. 하지만 버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신선한 공기라도 좀 마시자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나?" 내가 물었다.

"오래전 일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었어. 왜 묻는 건가?"

"만약 그들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다시 나온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래플스는 장난기와 교활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장난이었으며, 더없이 천진하고 익살스러운 교활함이었다.

“우리가 하는 소리는 전혀 못 들을 거야, 버니.” 그가 말했다. “예전 그 좋았던 시절처럼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야. 내려온 뒤로 줄곧 기회만 엿보고 있었거든. 지금은 전혀 위험할 게 없어. 자, 나랑 같이 가자. 예전엔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여줄게.”

“하지만 난 알고 있소.”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간 뒤 로프를 끌어 올렸다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다시 내려놓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래플스는 눈꺼풀을 살짝 내리깐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상대가 불쾌해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유머러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보게, 착한 버니! 설마 그때 내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난 평생을 대비책 하나쯤은 남겨두며 살아왔다네. 자네가 준비되면, 내가 이곳에 머물 때 어떤 수를 써두었는지 보여주지. 우선 그 부츠부터 벗고 테니스화를 챙기게. 코트도 하나 더 걸치고, 불은 끄게나. 2분 뒤에 복도에서 만나세."

래플스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려 나를 불러 세웠다. 그는 나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발소리를 죽이려고 발바닥을 벽면에 바짝 붙인 채, 계단 한 칸마다 두 발씩 조심스레 내디디며 이동

했다. 래플스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예전의 조심스러운 습관을 재연하는 듯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 과정이 무척이나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번만큼은 감옥에 갈 위험이 없었으니까!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거의 내지 않고 홀에 도착했다. 그 상태라면 현관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는 것도 전혀 위험하거나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래플스는 그런 식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기어코 나를 초록색 펠트 문 너머, 소년부 구역으로 이끌었다.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이어졌지만, 래플스는 이런 가짜 장애물을 넘는 것을 무엇보다 즐기는 듯 보였다. 몇 분 뒤, 우리는 귀를 바짝 세운 채 소년부 복도에 자리를 잡고 멈춰 섰다.

"이 창문들을 통해서 말인가요?"

피아노 위의 시계가 제멋대로 짹짹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정적을 채우고 나서야,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긴장된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 방법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래플스가 속삭이며 창문을 열었다. 아침마다 우리 편지가 놓여 있곤 하던 창턱이 있는 창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중정(中庭)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끝에 있는 문을 지나면 돼. 말하지 마, 버니. 바로 머리 위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방은 앞쪽에 있었잖아, 기억나지? 만

약 그들이 나를 봤더라도, 그들이 다른 쪽을 살피는 사이에 난 얼른 이 길로 되돌아왔을 거야.”

별빛이 쏟아지는 밖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을 때, 래플스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정숙을 요구했다. 매끄러운 돌바닥을 지나 탁트인 안뜰로 들어서자 자갈이 발을 찔러왔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여름학기 둘째 수업 시간의 번역 숙제를 준비하곤 했던 긴 초록색 벤치 두 개 중 하나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 고무 밑창 신발을 신은 덕분에 우리는 파이프 코트 너머의 문을 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인적이 끊긴 황량한 시골길로 내려왔다. 바깥쪽 서재 창문 아래를 돌아 나올 때도, 잠든 마을의 대로를 지나갈 때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발소리는 밤이슬이나 시인의 시구처럼 고요하게 잦아들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 팔짱을 끼고, 걷는 내내 속삭임으로 재잘거렸다.

“그러니까 자네랑 니퍼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지? 아니, 대화라기 보다는 투덜거리는 소리였나? 내가 춤을 추고 있을 때 결눈질로 자네를 봤고, 귀로도 슬쩍 들었거든. 버니, 분명히 말소리 같았어. 내 이름도 들린 것 같고 말이야. 그 친구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한결같고, 소년 시절 모습이 가장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그 친구도 기꺼이 동의할 거야. 내가 그를 설득한 걸 아주 다행스럽게 여길걸.”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속삭여 답했다. 래플스는 네스미스가 자신에 대해 떠들어댄 말을 전부 듣지 못했다. 게다가 내가 다시 전해

주려던 말도 그는 듣지 않으려 했다. 내 눈에는 터무니없는 망상처럼 느껴지는 그 확신을, 그는 그저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말을 끊고 그에게 물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이미 말했잖아." 래플스가 말했다. "그를 꼭 그렇게 만들 작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말이죠?"

"필리피에서 말이야, 버니. 내가 그를 거기서 만나겠다고 했잖아. 인 용구 하나 제대로 못 받아치다니, 정말 못 말리는 친구라니까!"

"필리피 평원에서 카이사르의 최후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노(老) 브루투스에게 그 결정적인 수를 누가 알려주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셰익스피어는 잊었을지 몰라도, 그건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버니."

나는 막연하게나마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래플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전쟁터 말일세."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무대의 뒷문 앞에 서 있는 셈이지!"

래플스가 걷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여름밤의 마지막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으나, 인근 가로등 불빛 덕분에 고개를 돌리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언제인지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저를 좀 들어 올려 주시겠어요?”

그의 뒤편에는 머리 높이보다 겨우 조금 높은 곳에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은 창살조차 없이 탁 트여 있었고, 철사로 짠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그 철사 위에는 금색 글자로 여러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에는 네스미스라는 이름도 보였다.

"정말로 침입할 생각은 없는 거야?"

"지금 당장 도와주신다면 좋겠고요, 만약 안 된다면 한 5분이나 10분 뒤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설마, 설마 그…… 도구들을 가져온 건 아니겠지?”

그는 주머니 속에서 그것들을 가볍게 흔들며 짤랑거렸다.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야, 버니. 하지만 한두 개쯤은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 이번에 전부 다 두고 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하마터면 통째로 다 남겨두고 올 뻔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나무라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 덕분에 네스미스 노인이 ‘설립자 기금’에 거액을 기부하게 될 테니까. 장담컨대 아주 큰 액수가 될 거야! 운 좋게도 내가 마스터키 꾸러미까지 챙겨온 보람이 있군. 자, 이제 나를 도와 이 열쇠들을 쓸 건가, 말 건가? 도와줄 거라면 지금이 기회야.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당장 비켜서서—”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래플스.” 내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건 내려오기 전부터 계획한 일임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물건을 전부 챙겨올 리가 없잖아요.”

“여보게, 버니. 이건 내 소지품 중 하나일 뿐이야! 저녁 예복을 챙길 때면 항상 같이 챙긴다네. 이 보잘것없는 은행은 생각지도 못했어. 서명도 없이 백 파운드 정도를 인출하는 게 공적인 의무가 될 줄은 더욱 몰랐지. 버니, 내가 건드리는 건 딱 여기까지야. 오늘 밤은 큰 건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 위험할 것도 없어. 만약 들켜더라도 그냥 샴페인을 마신 척하면서 소란을 좀 견뎌내면 그만이야. 지난번 모임에서 있었던 일도 있으니, 다들 내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 테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계속 떠돌고 있으면 분명히 들키고 말 거야. 자, 어서 침대로 돌아가게. 자네가 정말로 나를 고발할 작정이 아니라면 말이야!”

우리가 선 자리에서 속삭인 지 채 1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거리는 여전히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위험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나를 돌려보내자마자 몸을 돌리더니, 창틀을 붙잡았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손으로 말이다. 그는 한 팔로 몸을 끌어올리며 다리를 시계추처럼 흔들었다. 그러고는 다른 쪽 손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창틀을 딛고 아주 천천히 허리 높이까지 몸을 올렸다.

하지만 창틀이 너무 좁았다. 도움 없이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그가 보여준 묘기는 그 자체로 내 양심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 만큼 대단했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그가 쓴 조잡한 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만 상태였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시는 내가 학창 시절 교지에 썼던 글 중 일부였다. 래플스는 나 자신보다 그 글을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나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침 섞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거절한 셈이다.

결국 그는 나를 이기고 말았다. 순식간에 내 둥근 어깨는 매달린 그의 발을 받치는 받침대가 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에 젖은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고, 바로 뒤이어 창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위로 밀려 올라갔다. 바로 밑에서 듣고 있는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래플스는 손부터 먼저 창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자취를 감췄다. 그러고는 몸을 밖으로 기울이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버니!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해. 창틀을 꼭 잡아, 내가 거드랑이를 받쳐 들어 올려 줄 테니까. 자, 다 같이 힘을 써서—조심조심—영차, 됐다!"

은행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구태여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그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지배인이 거처하는 개인실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 마치 무대 뒤편에 대기하듯 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지켜보던 중, 머리 위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지배인 본인만큼이나 울림이 크고 공격적이었다. 반대로 래플스의 움직임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래플스가 우리 사이의 문을 닫아걸었기 때문인데, 만약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내가 그에게 신호를 주기로 약속했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은행에 머물렀던 20분 동안 신호를 보낼 일은 전혀 없었다.

나중에 래플스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 중 19분을 열쇠 하나를 가는데 썼다고 한다. 하지만 래플스가 최근에 고안해낸 물건 중 하나가 아주 유용했다. 바로 열쇠를 담아 다니는 작은 벨벳 주머니였다. 이 주머니는 입구에 신축성 있는 천이 달려 있어서, 손목에 끼우면 아주 단단히 밀착되었다. 덕분에 래플스는 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갈면서도 소리를 거의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열쇠들은 유명한 금고 제작 회사 두 곳의 전형적인 모델을 아주 정교하게 흉내 낸 가짜였다. 래플스가 이 열쇠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내막은 범죄 세계의 사람들이 직접 알아내야 할 몫이다.

그가 문을 열고 나를 손짓해 부를 때, 나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완벽히 해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에게 굳이 성공 여부를 캐묻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 또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밤하늘

은 마치 먹물과 물을 섞어놓은 듯 어두웠고, 그 속으로 별들이 하나둘 잠겨가고 있었다. 어서 침대로 달려가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래플스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살피는 동안, 나는 속삭이듯 그 말을 내뱉었다. 곧이어 그의 머리가 창틈으로 쑥 들어왔고, 나는 다음 순간 벌어질 최악의 상황이 두려워 숨을 죽였다.

“방금 그게 무슨 소리였나, 버니? 아니, 아냐, 이 사람아! 내 눈에는 자네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나. 이왕 이렇게 된 거 거짓 흔적이라도 깔아두는 게 좋겠어. 준비됐나? 그럼 나를 따라오게. 창문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거리로 소리 없이 내려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올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걷는 대신,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달렸다. 우리는 마치 생쥐처럼 커다란 교실 옆을 몰래 지나쳐 달렸다. 교실의 박공지붕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회랑 아래의 그림자조차 희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교사들이 사는 집들이 스쳐 지나갔고, 길 양옆으로 작은 지형지물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윽고 우리는 스톡리 로드의 양옆에 늘어선 울타리 사이로, 막 밝아오는 새벽빛을 향해 내달렸다.

"방금 냅의 집에서 번쩍한 불빛 봤어?" 래플스가 앞장서며 외쳤다.

"아니요, 왜요?" 나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냅의 탈의실에 있었어."

"네?"

"전에도 거기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그 노인은 잠귀가 워낙 밝아서 귀가 길가까지 닿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새벽녘에 그 노인에게 얼마나 자주 쫓겨 다녔는지 말하기도 싫을 정도야! 아마 마지막쯤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넌 증거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몰아세울 위인이 아니니까."

나는 한마디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다. 래플스는 바람을 탄 요트처럼 거침없이 앞서 나갔고, 나는 바다 위를 표류하는 작은 나룻배처럼 뒤쳐져 허우적거렸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거친 파도에 휘말린 듯 몸이 무거워졌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래플스가 멈춰 섰다. 그 덕분에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내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무언가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괜찮아, 버니." 새벽빛을 받아 상기된 얼굴로 그가 말을 이었다. "역사는 다시 제 궤도를 찾았어. 우리를 쫓고 있는 건 분명 그리운 넵 영감일 거야. 자, 어서 가자, 버니!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힘껏 달려보자고.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말이야."

더는 말려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대로 가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뒤를 쫓는 것뿐이었다. 사실 나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싶었다. 머지않아 닥쳐올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래플스의 기지에 모든 걸 맡기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워낙 지

구력이 부족한 편이었고, 도시에서 밤늦도록 지새우던 생활이 그 부족함을 한층 악화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일류 크리켓 선수로 다져진 래플스의 체력은 일류였고, 그는 나나 뱀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생, 뱀 본인은 한때 옥스퍼드의 마일 경주 선수였던 터라 나보다 훨씬 잘 버텼다. 아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섰다. 내가 기운이 빠져 비틀거릴 때마다, 내 뒤에서는 그가 규칙적으로 땅을 박차는 발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서둘러, 서둘러! 안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잡히고 말 거야!” 래플스가 뒤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등 뒤로 거칠고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되돌아왔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열은 안개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안개는 목을 조여 오더니 폐부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연신 기침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 결국 나는 넘어지고 말았다. 실수라기보다는 차라리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나는 길 위에 머리를 처박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때 늙은 뱀이 지나가며 나를 말로 한 번 툭 차듯 비아냥거렸다.

"이 짐승 같은 놈!" 그가 으르렁거렸다. 예전에 교실에서도 그가 그렇게 으르렁대는 걸 들곤 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치는 것을 포기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며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 래플스와 늙은 뱀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은빛 안개 속에서 래플스는 몸을 뒤로 젖힌 채, 그 경쾌한 마음을 만끽하며 온 마음을 다해 웃고 있었다. 그 곁에는 늙름한 노인 뱀이 서 있었다. 한때는 검은빛이 돌

던 그의 백발 수염에는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고, 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하고도 무거웠다.

“드디어 널 붙잡았구나!” 그가 외쳤다. “내가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어!”

“그렇다면 저희보다 운이 좋으시군요.” 래플스가 대답했다. “아무래
도 그자가 우리를 따돌린 모양입니다.”

“자네들이 쫓던 사람 말인가!” 녀가 되물었다. 녀의 짙은 눈썹이 쭉
치솟았다. 나 역시 눈썹을 추스르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우리도 추격전에 한창 빠져 있었던 셈이지요.” 래플스가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그 열의 때문에 우리 중 한 명이 대가를 치르기도 했고요.
어쩌면 우리 역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쫓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
다.”

“개과천선했다는 뜻은 아니겠지.” 추격자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갑자기 예전처럼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하며 상대의 허를 찔렀
다. “설마 그 학교 학생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제 래플스는
그와 대등한 상대였다.

“그건 너무 나간 말씀입니다, 선생님. 아니, 제 말은, 처음부터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불을 끄
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내가 아주 수상쩍게 행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놈은 장화를 손에 들고 양말 차림으로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무 소리도 못 들으신 게 분명합니

다. 양말은 고무 밑창보다 소리가 덜 나니까요. 아,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아무튼 버니가 막 저를 떠나려던 참이라, 제가 버니를 붙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탐정 놀이라도 하듯 살금살금 내려갔죠. 하지만 그놈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랑 쪽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헛수고만 잔뜩 하며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막 떠나려던 찰나, 그놈이 바로 우리 코앞을 살금살금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장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그놈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놈이 너무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 데다, 불쌍한 버니는 숨이 너무 차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밀어붙이지 그랬어. 내가 시원하게 한바탕 해치우게 말 이야." 나는 마침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뭐, 어쨌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두자고." 늙은 냅이 인자하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러니 자네들 둘은 내 집으로 들어오게나. 아침 공기가 차가우니 따뜻한 거라도 좀 먹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그 요청을 따랐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학창 시절부터 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가르치던 반에서 보낸 한 학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독설을 내뱉는 데 능했고, 남을 깎아내리는 기막힌 욕설들을 아주 다양하게 구사했다. 그 세 달 동안 그 욕설의 대부분은 내 멍청한 머리를 향해 쏟아졌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는 아주 잘 숙성된 스카치 위스키와 훌륭한 시가, 그리고 날카로운 재치가 돋보이는 흥미진진한 일화들을 잔뜩 쌓아두고 있었다. 그가 서재에서 우리를 얼마나 웃겼는지,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불러낼 때까지도 우리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을 정도였다.

래플스는 사회와 동창생에게 저지른 훨씬 중대한 죄보다, 옛 은사한 분에게 억지로 꾸며낸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을 더 가책스럽게 여기는 듯 보였다. 사실 이 일은 그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지어낸 이야기는 다음 날 모두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네스미스 본인이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을 위해 용기 있게 대처해 준 우리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래플스와 그의 최신 희생자 사이에 즉각적인 '우호 협정'을 맺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올드 보이즈의 두 번째 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래플스는 내 곁을 지키며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말하는 대신, 혼자서 이기적인 점수를 올리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야기에 어떤 새로운 살을 붙여낼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의 변덕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며 설득력 있게 맞장구를 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치를 발휘해야 했는지, 그 공로는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기차가 출발할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승강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네스미스 씨가 우리를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흔들어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넵의 집에 머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래플스가 설리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는 강도 사건을 보도한 데일리 메일지를 펼쳐 들었다. “그 영감탱이 성격상, 분명히 눈치챘을 테니까. 넵은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듯, 아주 눈썰미가 매서운 노인네거든.”

"방금 그게 무슨 소리였지?"

"아침에 현관문이 제대로 잠겨 있고 빗장까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을 텐데, 우리가 그쪽으로 나갔다고 믿게 내버려 두다니 말이야. 만약 넵(Nab)이 그 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린 벌써 붙잡혔을지도 몰라."

래플스가 챙긴 돈은 금화 백 개가 조금 넘는 정도였다. 물론 그는 지폐는 그 어떤 형태라도 절대 손대지 않았다.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창립 기금에 자신의 첫 기부금으로 25파운드를 즉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장 일류 크리켓 경기를 보러 달려 나갔다. 나머지 금액은 래플스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낼 모양이었다.

그런데 기묘한 우연이 일어났다. 창립 기금의 재무 담당자가 거의 동시에 의문의 거액을 받게 된 것이다. 기부자는 100기니를 지폐로 보냈는데, 기부자 명단에는 그저 '올드 보이(Old Boy)'라고만 적혀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재무 담당자는 우리를 대접해 주었던 전 주인, 즉 우리 옛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다. 그는 래플스의 연설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 래플스가 보낸 답장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비로운 기부자의 정체를 듣게 되었다. 기부자는 다름 아닌 니퍼 네스미스 본인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래플스에게 그게 정말인지 물었다. 래플스는 만약 니퍼 영감이 평소처럼 대학 대항전 경기에 보러 온다면, 직접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운 좋게도, 내가 래플스와 함께 경기장 주변을 산책하던 중에 파빌리온 앞에서 초라한 행색의 그 친구를 딱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보게, 친구!” 래플스가 외쳤다. “자네가 비난했던 바로 그 단체에 몰래 백 기니를 기부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부정하지 말게나.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네. 내 말 좀 들어보게. 자네가 한 말에는 아주 일리가 있었어. 비록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 방식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지지해야 마땅한 일이라네.”

"맞아, 래플스. 하지만 사실은—"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네. 그러니 하지 말게. 자네처럼 행동할 사람은 천 명 중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것도 익명으로 할 사람은 백만 명 중 한 명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대체 뭐야, 래플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네. 돌아가 보면 어디를 가든 그 소리뿐일 걸세. 네스미스, 자네는 그곳에서 최고의 인기인이 되어 있을 거야!"

이 어수룩하고 둔하고 심술궂은 사내가 처한 난처함보다 더 고결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 그의 모난 구석은 마치 모두 깎여 나간 듯 매끄러웠다. 상기된 얼굴과 망설임 가득한 눈빛, 그리고 애뜻함이 서린 그 표정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난 평생 인기가 없었네." 그가 말했다. "지금 와서 인기 좀 얻으려고 애쓰고 싶지도 않아. 래플스, 자네에게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안 돼! 지금은 들어줄 수가 없어. 종이 울리고 있거든. 하지만 네스미스, 자네가 내내 너그러운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을 두고, 내가 자네를 좋은 친구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면 안 됐어. 자네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잘 가게, 친구!"

하지만 네스미스가 우리를 잠시 더 붙잡았다. 망설임은 끝났다. 그의 얼굴에 갑자기 새로운 빛이 돌았다.

"내가 그랬다고?" 그가 외쳤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이백까지 올리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가 좌석으로 향하는 동안 래플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고,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첫 30분 동안 그는 크리켓 경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나에게 연습 구장을 산책하자고 권했

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흥미진진한 인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놓인 의자 두 개를 겨우 찾아냈다.

“버니,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평소에 미안함을 느끼는 성격은 아니지.” 그가 입을 뗐다. “하지만 쉬는 시간 이후부터는 계속 마음이 안 좋군. 불쌍한 늙은 니퍼 네스미스 생각에 말이야. 그 노인이 평생 처음으로 ‘인기를 얻는다는 게 어떤 건지’ 깨닫는 순간을 자네도 봤나?”

“그랬지. 하지만 자네는 그 일과 아무 상관도 없었네, 이 사람아.”

눈이 마주치자 래플스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전부 내 계획이었네. 그가 아주 비열한 거짓말이라도 하게 만들려고 했거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거의 성공할 뻔했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자가 양심을 지키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더군. 뭐, 덕분에 그가 내놓을 두 번째 백 파운드는 진짜 기부가 될 거야.”

“그 말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겠다는 뜻인가——”

“게다가 자진해서 한 일이라니까. 이보게, 버니. 내가 그 은행에서 인출한 백 파운드를 어디에 썼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자네가 그걸로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직접 내놓겠다고 말한 스물다섯 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실제로 준비했을 줄은 몰랐군.”

래플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정말 그 사람 돈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당연하지."

"내 이름으로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래플스는 한동안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어서 관중석 위로 높게 걸린 커다란 흰색 숫자들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크리켓 경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점수판이 잘 안 보이지만, 아웃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군."

최악의 밤

래플스와 나는 어떤 작은 결혼식에 남몰래 관심을 두고 있었다. 예비 신부는 최근에 과부가 된 어머니, 그리고 천식에 걸린 오빠와 함께 몰 강변의 아늑한 은거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신랑은 두 가족을 대대로 길러낸 이 교외 지역 출신의 유복한 청년이었다. 결혼 선물은 몰 강의 그 예쁜 은거지 방 몇 개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났고, 그 가치 또한 상당해서 치프사이드에 있는 도둑 보험사와 특별히 거래를 해야 할 정도였다. 래플스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알아낸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 정확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사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래플스

가 이번 일은 "혼자서 처리할 작업"이라고 장담했고, 당연히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이 벌어지기 직전, 래플스가 제2차 테스트 매치 잉글랜드 대표팀에 전격 발탁되면서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찰나의 순간, 나는 내 범죄 인생의 결정적 기회를 포착했다. 래플스가 이런 식의 사건으로 국가에 봉사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 있었다. 그는 다시 호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앞선 기색이었다. 경기는 7월 세 번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계획은 이미 이스트몰지리의 결혼식 날인 목요일 밤으로 모두 짜여 있었다. 두 가지 흥미진진한 사건 중 무엇을 택할지는 래플스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이번만큼은 내가 그의 결심을 돕기로 했다. 나는 서리주에서 열리는 경기라면 적어도 내가 그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그에게 짚어주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나는 이 일에 대한 나의 당연한 권리와 그의 애국적 의무를 즉각 주장하기까지 했다. 국가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걸고,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애원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번에는 나의 논리가 승리했다. 래플스는 경기 전날 전보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장 예석로 달려갔다. 그는 다음 날 밤을 위해 내게 특유의 우회로를 지시했고, 나는 그 경로를 따라 일대 구석구석을 살살이 살폈다. 저녁 6시가 되자, 나는 식당창 창문을 통해 그가 내리는 수많은 지시 사항 중 마지막 지시를 듣고 있었다.

“대신 리볼버는 절대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래플스가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 내 열쇠가 있어. 그리고 서랍 어딘가에 오래된 구

식 호신용 곤봉이 있을 거야. 원한다면 그걸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자네가 뭘 가져가든, 결국 그걸 휘두르게 될 사람은 자네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군!”

“그렇게 된다면 내 목에 밧줄이 걸리는 꼴이 될 거야!”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래플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정체만큼은 절대 발설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해낼 거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나한테 일을 조금 더 맡겨도 믿을 만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지.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라도 똑똑히 알아내고 말 테니까!”

그가 유스틴 역에서 눈썹을 치켜뜨며 내보내질 때,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차갑게 몸을 돌렸다.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내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주었다. 지난 세월 동안 래플스는 나를 잘못 판단해 왔다.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위기의 순간마다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던 나의 침착함과 담력을, 그가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몹시 분했다.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에게 충실했다. 험난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나는 래플스 자신만큼이나 깨끗하게 자리를 지켰다. 나는 그의 오른팔이었음에도, 그는 나를 앞세워 위험을 피하는 도구로 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오른팔도, 도구도 아닐 것이다. 이번엔 나는 마침내 주연을 맡게 된 대역 배우다. 래플스가 내가 그의 역할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행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주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 밤, 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극장 열차에서 가장 먼저 내려에서 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계단을 뛰어 내려가 탁 트인 바깥 공기를 마셨다. 밤공기는 눅눅하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햄프턴 코트로 이어지는 길은 교외의 건축업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을 자기 땅으로 점찍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길 중 가장 어두운 곳 중 하나였다. 처음 1마일 정도는 여전히 좁은 가로수길이었는데, 한여름이면 마치 나뭇잎들이 만든 터널 같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길가에 불을 밝힌 창문 하나, 빛이 새어 나오는 틈새 하나조차 없었다.

당연하게도, 나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구간에서 누군가 나를 뒤쫓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내가 걸음을 멈추자, 멀지 않은 뒤쪽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딱 맞춰 멈췄다. 내가 다시 움직이자 그 발소리도 똑같이 따라왔다. 나는 걸으면서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러다 곧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을 때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야 그것이 내 발소리가 메아리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로수길을 벗어나 곧게 뻗은 탁 트인 도로로 나오자 뒤따르던 소리는 사라졌고, 덕분에 나는 금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는 앞이 보였기에 별 탈 없이 남은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물론 또 한 번 모험 같은 상황을 마주하긴 했지만 말이다. 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왼쪽으로 꺾으려던 찰나, 고무 밀창을 신은 경찰관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만 것이다. 나는 그를 지나치며 "경찰관님"이라고 불러야만 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그를 지나쳐 200야드쯤 더 간 뒤에야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렸다.

마침내 나는 정원 문을 지나, 검게 빛나는 창문들을 돌아 이슬에 흠뻑 젖은 검은 잔디밭에 이르렀다. 꽤나 숨 가쁜 걸음이었다. 다행히 삼나무 아래에 정원 의자가 놓여 있어 그곳에 털썩 주저앉을 수 있었다. 의자는 밤의 어둠에 삼나무의 그림자까지 더해져 아주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몇 분간 휴식을 취했다. 발이 젖지 않게 다리를 올리고, 시간을 아끼려 신발 끈을 풀었다. 눈앞에 닥친 일을 앞두고는, 부재중인 나의 대장에게 어울릴 법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태연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나의 침착함은 지나치게 의식적인 것이었다. 천재를 흉내 내려는 무리한 시도들이 대개 그렇듯, 원조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심지어 바지에 성냥을 그어 짧은 설리번 담배 하나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래플스라면 결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실 나는 기분 좋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그 무심한 호기심 덕분에, 나는 이전의 더 위태로운 상황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는 곧 싸움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다 못해,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오래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다.

결국 나는 젖은 잔디밭 끝자락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자갈길을 지나 온실 문으로 가기 위해 신발을 벗으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아주 기이한 소리가 내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머리 위 어딘가에서 억눌린 듯 혈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우윳빛으로 빛나는 잔디밭 위로 내 경청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모양인지, 창문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나를 엄하게 불러 세웠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그것이 썩썩거리며 물었다.

"절도 보험사에서 보낸 수사관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 소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래플스가 미리 다 준비해 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에게 철저히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가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이지 않는 남자가 내뿜는 기괴한 썩썩거림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왜 굳이 당신을 여기까지 보냈는지 모르겠군." 그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현지 경찰이 아주 잘 돌봐주고 있거든. 한 시간마다 특별 순찰까지 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건 저도 압니다, 메들리콧 씨." 나는 내 입장을 밝히며 대답했다. "방금 길모퉁이에서 그들 중 한 명을 만났는데, 가볍게 인사를 나눴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한 길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놈한테 내 이름이라도 들었나?" 질문자가 의심 가득한 썩썩거림으로 다그치듯 물었다.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받은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저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지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밤새 이곳을 감시할 계획

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원하신다면 건물 밖으로 물러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온전히 내 힘으로 해낸 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기에, 나는 한동안 자신감이 넘칠 정도였다.

“전혀 아닙니다.” 젊은 메들리콧이 험악하면서도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방금 천불이 날 정도로 천식 발작이 와서 깨어났거든요. 아침까지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위로 올라와서 저를 좀 지켜봐 주시는 게 낫겠어요. 오는 길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드리죠.”

래플스 본인조차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다! 어둠이 깔린 바깥에서 대담한 연기를 펼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즉흥적인 연기를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는 순간, 난이도와 위험은 단숨에 두 배로 뛰었다. 물론 형사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탐정용 오버코트와 중절모를 갖춰 입고 내려오긴 했다. 하지만 내 생김새 자체가 형사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고 물건을 지키는 자칭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 정작 물건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한다면 오히려 의심만 살 게 뻔했다. 무엇보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내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 나는 이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온실 위층 방에서 성난 굵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열려 있던 창문 너머로, 마치 텅 빈 액자 속 풍경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천장 위에서 일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직후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 나는 문득 신발

끈을 묶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길을 따라 놓인 바깥쪽 문의 납유리창 너머로 빛이 다시 비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비통한 기색이 역력한 한 사람이 서서 우리 얼굴 사이로 흔들리는 촛불을 비추고 있었다.

노인이 절반의 나이로 보이고, 젊은이가 두 배의 나이로 보이는 광경은 살면서 종종 보아왔다. 하지만 수염도 채 나지 않은 소년이 순식간에 여든 노인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은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혈떡이며 몸을 떨었고, 비틀거리며 휘청거렸다. 마치 그 자리에서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메들리콧은 기민하게 나를 훑어보았으며, 내가 그에게서 촛불을 건네받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내려오지 말았어야 했어. 상태만 더 나빠졌군." 그가 말을 툭툭 끊어가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다시 올라가는 건 더 힘들겠어. 내 팔을 좀 잡아주게. 같이 올라가 줄 거지? 그래, 바로 그거야! 보기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 걱정 말게. 좋은 위스키도 좀 챙겨왔어. 선물은 다 괜찮아.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먼저 알게 될 테니까. 자, 이제 준비됐네. 고맙네! 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어머니께서 깨시겠어."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 데만 몇 분은 걸렸을 것이다. 내 팔은 그의 팔에 겨우 붙어 있을 정도였고, 그는 남은 한 손으로 난간을 짊 움켜쥔 채 몸을 끌어 올렸다.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라갔다. 한 계단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고, 중간 계단참에 이르러서는 숨을 고르느

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아늑한 서재였고, 그 너머로는 침실로 이어지는 열린 문이 보였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인지 가여운 동행인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 몰아쉬는 숨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거칠게 울려 퍼졌다. 그는 우리가 들어온 문을 가리켰고, 나는 그의 몸짓에 따라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그가 어젯밤 그대로 두었던 테이블 위의 디캔터와 잔들을 가리켰다. 내가 술을 반 잔 정도 따라 주자,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그의 발작적인 숨 가쁨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내가 바보였어... 그냥 잠자리에 들다니." 그는 긴 침묵 사이사이로 속삭이듯 말을 내뱉었다. "정말 끔찍한 밤을 보낼 것 같을 때는... 누워 있는 게 오히려 악마의 유혹이야. 저기 탁자 위에 있는 갈색 담배 좀 가져다줄 수 있겠나? 그래, 바로 그거야... 정말 고맙네... 이제 성냥 좀!"

천식 환자는 악마의나물 담배의 양끝을 뜯어 물더니, 곧 거친 연기에 숨이 막혀 헐떡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내 격렬한 기침 발작을 일으키며 내뱉기를 반복했다. 이보다 더 영웅적인 처방이 또 있을까. 그것은 마치 서서히 진행되는 자살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마침내 환자는 몸을 곧게 일으켜 앉을 수 있었고, 드물게 찾아온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잔을 비워냈다. 나 역시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의 혈기가 넘치는 한 남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고통의 구름을 뚫고 비치는 햇살처럼 환하게 피어오른 그의 미소도 좋았다. 그리고 그

가 처음 내뱉은 말은, 인간적인 도리로 베푼 나의 작은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그 실감은 오히려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이어진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상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살피며 말을 건네왔다.

“있잖아요,” 젊은 메들리콧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탐정과는 눈곱만큼도 닮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굳이 평복을 입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 동료는 씹씹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안심시켰다.

“거기 뭔가 일리가 있군.” 그가 말했다. “그나저나 당신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러운 일을 떠넘기다니, 보험사 사람들에게 축하를 건네고 싶군.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축하를 보내야겠어.” 그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오랜만에 겪은 이 끔찍한 밤을 당신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니까. 당신은 마치 한겨울의 꽃 같아. 술 한잔할까? 그래, 바로 그거야! 혹시 저녁 신문이라도 한 부 가져왔나?”

"나는 한 부 가져왔지만 안타깝게도 기차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테스트 매치는 어떻게 됐어?" 천식을 앓는 그가 의자에서 몸을 쭉 내밀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희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아, 그건 저도 다 압니다." 그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점심때까지 비참한 점수가 찍히는 걸 이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합쳐서 몇 점이나 겨우 끌어모았습니까?"

"아직도 끌어내고 있는 중이라네."

"아니, 대체 몇 점이나 되는 거지?"

"7개 위켓을 잃고 200점이 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버텼지?"

"래플스도 있지. 그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62점이나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감탄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써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다행히 젊은 메들리콧이 워낙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준 덕분에 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 있었다. 마치 그가 래플스의 절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메들리콧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숨이 가빠올 때까지 킁킁거리며 웃어댔다.

“우리 래플스, 정말 대단해!”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장 사이사이마다 감탄을 내뿜었다. “꿀찌로 뽑히더니, 그것도 볼러로 말이야! 역시 내가 알던 그 크리켓 선수답군, 정말이지! 세상에,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술을 한잔 더 해야겠어! 아, 천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 술을 마셔도 뱀에 물린 사람처럼 정신이 아득해지지는 않거든. 하지만 몸의 다른 고통은 다 덜어주고, 어떻게든 버티게 해주지.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일단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야. 그 사람들은 천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내가 아는 사람 중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는데, 아밀 아질산염을 써서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더라고. 다른 면에서는 참 묘한 병이야. 오히려 기운이 나거든. 당장 다음 숨을 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으니, 다른 걱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자, 자, A. J. 래플스에게 행운이 있기를! 내일 아침에는 꼭 100점을 치길!”

그는 건배를 하려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나는 앉은 채로 술을 마셨다. 나는 래플스에게 까닭 모를 화가 치밀었다. 대화에 끼여든 방식도 그렇고, 내 걱정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테스트 매치 이야기만 한참 동안 늘어놓는 꼴도 그랬다. 차라리 실패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최소한 상상력이라도 발휘한 셈이고,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는 뜻이 되었을 테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래플스라고 해서 내 처지를 짐작할 리도 없었다. 내가 털러 온 집안의 아들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시종까지 들며, 그 청년의 쾌활한 용기를 칭송하고 진심으로 그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는 내 모습을 그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는가!

정말이지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나 그의 집안을 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결국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래플스는 절대로, 절대로 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젊은 메들리콧이 나를 완전히 믿고 있는지도 차 확신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는 사실상 내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두 번째 잔을 들이켜던 중이었다.) 메들리콧은 천식이 참 묘한 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내가 선물을 돌보러 온 게 아니라 가로채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나는 그 농담에 적당히 건성으로 반응해 주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환자를 덮친 발작이 이전보다 훨씬 격렬해진 것이다. 숨을 몰아쉬는 기세가 더욱 빨라지고 사나워지면서, 아까 썼던 방법들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담배를 한 대 말아 준비했지만, 불쌍한 친구는 숨이 너무 가빠 연기를 들이마실 기력조차 없었다. 위스키를 더 따라 주었으나, 그는 손짓하며 거절했다.

“아밀…… 아밀 좀 가져다줘!”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통 말이야.”

나는 그의 방으로 달려갔다가, 작은 천 조각으로 감싼 미니어처 폭죽 모양의 작은 원통형 용기들이 담긴 작은 양철 통을 가지고 돌아왔다. 기력을 다한 청년은 손수건에 그중 하나를 풀어 내용물을 쏟아냈고, 곧바로 그 손수건에 얼굴을 묻었다. 은은한 향기가 내 코끝에 닿는

순간, 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향기는 마치 거친 파도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았다. 고통스러운 사투를 치르느라 경직되었던 그의 어깨가 이완되었다. 거칠고 몰아쉬던 숨소리는 이내 빠르지만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바뀌었다. 잔혹한 싸움이 갑작스레 멎자, 현장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사이 손수건에 가려졌던 그의 얼굴은 귀 끝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마침내 그가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 붉게 상기된 평온함은 마치 착시 현상처럼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생경했다.

“심장에서 피를 싹 빼 가버리는 거지.”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거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의사도 없이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 한 번만으로도 지옥의 유향 냄새를 맡을 지경이니까 말아야. ……이봐, 왜 그래? 뭘 듣고 있는 거야? 만약 경찰이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경찰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숨가쁜 사투가 갑자기 멎은 순간 들려온 그 소리는 야외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래 층 방에서 들려온 발소리였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바로 아래쪽 온실과 이어진 옆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렴풋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선물이 있는 방 중 하나예요!”

내 곁에 있던 메들리콧이 귓속말로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자리를 떴다. 나는 밤새도록 한 번도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기적처럼 다시금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미 매듭은 잘렸고, 내가 나아갈 길은 정해졌다. 결국 내가 하러 온 바로 그 일을, 내 손으로 막아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사실 그 일을 저지르려던 순간부터 이미 속은 메스꺼웠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처음부터 실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가능함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래플스와 천식 환자, 두 사람을 모두 떠올려도 더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 모두의 방식대로 게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결국 같은 게임이었으니까. 도둑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인간으로서 잃어버렸던 명예의 파편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마주 선 채, 아래층에서 들려올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눈빛에는 공통된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에 가까운 둔탁한 발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긴장하며 서로에게 엄숙한 고갯짓을 보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메들리콧은 이전처럼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얼굴의 붉은 기는 이미 가라앉았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만으로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나는 말없이 몸짓으로 그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아래층의 그자는 내게 맡기라고 명령했다. 바로 그때였다. 밤을 지새우는 동안 몇 번이고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 영

악한 눈빛을 한 채, 젊은 메들리콧이 바람이 새는 듯한 속삭임으로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가도, 이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내가 자네에게 불공평했네." 그는 가운 주머니에 오른손을 찢어 넣은 채 말했다. "잠시 오해를 했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곧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하지만—이걸 내 주머니에 계속 넣어두고 있었군!"

그는 화해의 표시로 내게 권총을 건네려 했겠지만, 나는 그의 손조차 잡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의 호신용 경봉을 툭툭 두드렸다. 그의 진심 어린 악수를 받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 시도를 하려다 쓰러지기 위해서든,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기어 나갔다. 계단참에 이르자 나는 래플스의 작은 권총을 꺼냈다. 가죽 고리에 오른쪽 손목을 끼워 넣은 뒤, 언제든 쏠 수 있게 오른쪽 어깨 너머로 겨누었다. 그리고는 래플스에게 직접 배운 대로, 판자가 못 박힌 벽 쪽으로 몸을 붙인 채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내가 아는 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문이 열려 있었고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는데, 내가 문으로 다가갈 때도 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밀어 열었다. 그곳에는 작은 랜턴을 높이 든 채, 가장 악랄한 악당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쁜 자식!" 나는 외치며 단 한 번의 매서운 타격으로 그 무뢰한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비겁한 공격은 아니었다. 그 역시 나를 덮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그저 내가 먼저 일격을 가한 것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하지만 정신을 잃고 엎드린 채 늘어진 그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무기도 없는 사람을 쳤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들고 있던 랜턴은 손에서 떨어져 한쪽 옆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끔찍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매캐한 냄새에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나는 서둘러 랜턴을 똑바로 세우고는, 두 손으로 그의 몸을 뒤집었다.

그 순간 느꼈던, 믿기지 않는 공포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래플스 본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물을 겨를조차 없었다. 만약 이 세상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 발치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 사내일 것이다. 단 한 순간의 의심도 없이, 그는 래플스였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그 불행한 사내의 본모습을 이제 는 알기에, 지금 그가 쓰고 있는 악당의 가면 또한 훤히 보였다. 그의 얼굴은 때로 더러워져 있었고, 붉은 수염이 교묘하게 덧칠해져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런던의 기차역에서부터 마차를 뒤쫓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고, 장화 위에는 두꺼운 양말을 덧신어 발소리를 죽인 상태였다. 내가 그를 때려눕히는 바람에 그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모습이 나의 공포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나직이 신음했다. 그때, 문가에서 쉼쉼거리 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끝내주는구나!" 천식을 앓는 내 친구가 환호성을 질렀다. "전부 다 들었어. 우리 어머니만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어머니께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

그놈의 어머니를 붙잡고 마음껏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래플스의 손을 잡고 그의 가냘픈 맥박을 느끼면서도, 나는 속으로 그가 자초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령 내가 그를 머리로 내리쳐 죽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내 고통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그의 고질적인 성격, 바로 그 지독한 결함이었다. 끝까지 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그 태도 말이다. 밤중에 영국 전역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감시하더니, 결국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 성미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가 죽었나?" 천식 환자가 차분하게 쉼쉼거리며 물었다.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분개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꽤 세게 때린 모양이네요." 젊은 메들리콧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먼저 얻어맞은 건 그쪽이었겠죠. 그래도 차라리 잘됐어요. 만약 이게 그놈 것이었다면 말이에요." 그는 불쌍한 래플스가 제 무덤을 파는 데 사용한, 살상용으로 쓰인 작은 곤봉을 집어 들며 덧붙였다.

"이보세요." 나는 뒷꿈치를 바닥에 대고 앉으며 대답했다. "메들리콧 씨,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는 저도 모르겠

군요. 워낙 힘이 센 덩치라 당신이 도와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경찰관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몸을 좀 움직여서 그를 찾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의구심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흥분한 덕분에 오히려 기운이 좀 나는 모양이에요. 만약 저를 권총과 함께 망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놈이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답답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이야기는 평생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겠군.” 내가 말했다.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놈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뿐이야.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겠지. 하지만 싸워볼 만한 기회가 있는데도 순순히 따라온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젊은 메들리코트가 문턱에 선 채 위층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를 너무 빨리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내가 가겠소.”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놀라 기절하시기 전에, 지금 모습 그대로 바로 가겠단 말이오. 당신에게는 빛을 쬔소. 나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당신을 보고 어리석게 오해했던 것까지 말이오. 지금 내가 이만큼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यो. 그러니 당신 조언대로 지금 바로 가겠소. 내 이 가련한 늙은 몸뚱이가 또다시 말썽을 부리기 전에 말이요.”

그 선량한 친구가 감시하는 경찰과 쓰러진 죄수가 대치한 마지막 광경을 뒤로하고, 썩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밤공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하지만 문가에 서서 그가 오솔길을 따라 멀어지다 집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소리를 끝까지 다 들었다. 내가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래플스는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는 흐르는 피를 막으며, 다친 머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이럴 수가, 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녀석이!”

“그럼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외쳤다. “정말 다행입니다!”

“당연히 멍해질 수밖에 없었지.” 그가 중얼거렸다. “내 머리통이 깨지지 않은 건 네 덕분이 아니야. 수없이 봐온 내 차림을 보고도 못 알아보다니! 넌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 버니. 내가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았지. 나는 아주 보기 좋게 너한테 잡혀줄 작정이었는데! 그랬다면 우린 팔짱을 끼고 유유히 걸어 나갔을 텐데.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어. 뭐, 그 늙은 블로파이프를 잘 따돌리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죽을힘을 다해 도망쳐야 할 거야!”

래플스는 중얼거리던 말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나는 그를 따라 정원으로 통하는 문 앞까지 갔다. 래플스는 이미 랜턴을 꺼서 내게 건네준 뒤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내 성미상 래플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그에게 다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뒤로 몇 분 동안 이어진 상황은, 래플스라는 인물을 잘 알고 나라는 놈을 견뎌낼 줄 아는 이들에게는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일상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전율이 흐를 법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 요점만 말하자면, 우리는 잠긴 문을 뒤로하고 정원 담장에 열쇠를 꽂아둔 채 떠났다. 그 담장은 우리가 넘어야 할 여섯 개의 담장 중 첫 번째였다. 담장을 넘고 나니 뒷물길 위쪽의 보도교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내려왔다. 보도교 위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강둑을 따라 늘어선 집들은 여전히 평온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내가 아는 래플스라면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다리 한쪽 끝 아래로 몸을 던졌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향하던 길에 미리 숨겨두었던 인버네스 망토와 오페라 모자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물가에서는 에나멜 구두에서 두툼한 양말을 벗어 던지고, 야회복 바지를 덮고 있던 해진 바지도 벗겨냈다. 피 얼룩과 가짜수염까지 말끔히 지워낸 뒤, 그 엉망진창이었던 물골을 순식간에 하얗게 새로 단장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외투를 자신의 망토 안에 끼입고 내 목에는 자신의 징가리 스카프를 둘러, 나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

“자, 이제 말이야.” 그가 말했다. “서비턴에서 출발하는 3시 12분 열차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가울 거야. 서두르기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 원한다면 각자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위험할 게 전혀 없다고 봐. 그나저나 그 늙은 ‘블로파이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군.”

실제로 그랬다. 신문에서 그의 모험담(그리고 우리의 모험담)을 읽기 전까지 나는 적잖이 걱정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는 기세 좋게 길을 달려 나갔으나, 그 무모함에 대한 대가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그는 잠긴 문 앞까지 기어 돌아오는 데 20분을 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려 초인종을 누르는 데 또 10분을 허비했다. 신문에 보도된 내 외모에 대한 그의 묘사만이, 그 30분 동안 그가 겪었을 고초를 겨우 위로해 줄 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 생각들은 너무나 깊고 무거워 가벼운 말로 내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도 그 시간은 몹시 괴로운 순간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임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료들을 죽일 뻔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나는 아군과 적군 모두를 위해 선의를 베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형편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모든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었지만, 나의 나약함이 그 비극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와 함께 걸어야 했다.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나의 나약함을 증명할 마지막 증거를 들이밀기 위해 이백 마일을

달려온 사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친밀함을 건드릴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사람과 말이다. 나는 그와 함께 서비턴까지 걸어가야 했지만, 굳이 말을 섞을 필요는 없었다. 템스 디튼을 지나는데 내내 나는 그의 농담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강변을 따라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내 팔짱을 끼어올 때조차 나는 자존심이 굳게 닫아진 입술을 열지 않았다.

“자, 버니.”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가장 고생한 건 나야.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다는 것도 나 스스로 인정해. 머리는 깨졌고, 머리카락은 피떡이 되어 엉망진창이 됐잖아. 맨체스터에서 무슨 핑계를 둘러대야 할지, 아니, 경기에 나갈 수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버니, 난 자네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내 자신을 탓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 내가 이대로 용서도 받지 못한 채 끝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불운 아니겠나? 내가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보게 친구, 그건 전적으로 자네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나를 위해서라고!” 나는 쓰라린 마음을 담아 되물었다.

래플스는 나보다 훨씬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내 말투를 못 들은 척 넘겨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 때문에 정말 괴로웠네. 정말이지 죽는 줄 알았다고!” 그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어떻게든 덜미를 잡혀 고초를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단 말일세. 내 친구, 내가 자네의 용기를 의심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자네의 그 무모할 정도의 용기 때문에 내가 더 가슴을 졸였던 거지. 자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점수가 필요할 때 내가 타석에 들어가긴 했지만, 맹세컨대 내 마음은 온통 자네 걱정뿐이었네. 그래서 아마 점수를 좀 올리는 데 내가 일조했던 모양이야. 버니, 신문 못 봤나? 내 인생을 통틀어 최고의 이닝이었어.”

“맞아요.” 내가 말했다. “경기 종료 시점에 당신이 아웃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대신 크리켓을 쳐주는 대역이 따로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사실보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신문을 아주 대충 읽으신 모양이군요.” 래플스가 약간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다. “경기가 다섯 시 전에 중단된 건 비 때문이었어요. 런던은 무더운 날씨였다고 들었습니다만, 맨체스터는 폭풍우가 몰아쳤거든요. 불과 10분 만에 경기장이 물바다가 됐죠.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을 땐 이미 옷을 갈아입은 뒤였습니다. 혼자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당신 생각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기사에게 역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식당 칸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미친 짓 중에서도, 이번 일이 단연 최고로 미친 짓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대단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가 저지른 일 자체보다도,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든 충동과 그를 둘러싼 상황들이 내게는 더 경이롭게 다가왔다.

“하늘만이 아시겠지.” 그가 말을 이었다. “맨체스터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한들 무슨 상관인가? 그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경기가 중단 될 때 나도 거기 있었고, 경기가 다시 시작될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걸세. 우리는 3시 반이 지나자마자 워털루 역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유스턴 역으로 가는 길에 올버니에 들러 한 시간 정도 머물 수 있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또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 점수를 더 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못 낸다 해도 오히려 잘된 일이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선수들이 빨리 경기에 복귀하는 게 나오니까 말이야. 땅이 바짝 마를 때쯤이면 내가 그들을 향해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도 같이 올라가서 구경할게." 내가 말했다.

“이보게 친구,” 래플스가 대답했다. “내 마음은 온통 자네를 향해 있었다네. 그저 자네가 일을 해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 그게 전부였어. 자네가 혹시라도 곤경에 처하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러하듯 기꺼이 손을 보태주고 싶었거든. 난 자네보다 그 지형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 도저히 발길을 뗄 수가 없었네. 하지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자네가 알게 할 생각은 없었어. 모든 일이 내 바람대

로 흘러갔다면, 내가 거기 다녀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조용히 런던으로 돌아갔을 테니까. 자네는 내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야 했네. 그래야 자네 자신을 믿을 수 있었을 테고, 자네를 믿는 내 마음도 온전히 간직한 채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비밀로 간직했을 테니까.

그래서 워털루에서 자네를 교묘히 피했고, 에서 역에서부터 자네를 뒤쫓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지. 하지만 자네는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더군. 한두 번은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자네가 멈췄을 때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임버 코트 쪽 지름길을 이용하고 보행교를 건너 자네를 따라잡았네. 내 코트와 모자를 두고 온 곳이 바로 거기지. 사실 자네보다 내가 먼저 정원에 도착해 있었다네. 자네가 설리번 담배를 피우는 걸 지켜보며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 물론 그런 위험한 짓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말이야. 위층에 있는 불쌍한 녀석과 자네가 나눈 대화도 거의 다 들었네. 버니,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네가 연기를 정말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어.”

여름밤의 벨벳 같은 어둠이 잦아드는 가운데, 저 멀리 역의 불빛들이 깜빡이며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그 불빛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변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내가 처음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차라리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어." 래플스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그 시점부터는 너와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그 불쌍한 짐승이 그런 상태로 있는데, 너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 버니, 지금 네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위안이 되었다! 온몸의 혈관에 와인이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래플스의 말은 빈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을 마주하자, 나는 내가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래플스가 나의 망설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기에, 밤새 겪었던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어졌다. 래플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정말이지 진퇴양난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품위 있게 행동했다는 확신마저 들었다. 단 한 가지 사건을 제외하면, 래플스는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나를 용서할지 몰라도, 정작 나는 래플스도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차 안에서 내내 몸서리치게 만든, 머리칼 아래 멍든 두피의 상처였다.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나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자네는 그 일 때문에 숙수무책으로 노출되었고, 결국 우리 둘 다 밤새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손이 되었군! 그 불쌍한 친구는 인생에서 최악의 밤이었다고 말하더군. 하지만 내 생각엔, 우리 인생을 통틀어 오늘 밤이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 1등석 객실, 두 개의 전등이 비추는 불빛 아래에서 래플스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진 않을게, 버니. 우린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일도 저질렀잖아."

"설마 당신이 대체 무엇이랄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보게, 버니." 래플스가 대답했다. "내가 이 발칙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듬어 왔는지 자네도 기억하겠지. 그런데 그 일을 자네에게 떠넘겨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도 말아야. 그리고 자네가 그 일을 무사히, 그리고 자네 자신도 별 탈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멀리까지 달려왔는지도 말일세.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상황을 얼마나 명확히 파악했는지 자네도 잘 알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자네 처지였다 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걸세. 하지만 버니, 난 자네 처지가 아니었어. 내 손은 자네처럼 묶여 있지 않았으니까."

안타깝게도 보석 대부분은 행복한 신랑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지로 떠나버렸네만, 이 에메랄드 링크는 무사히 챙겼어. 그리고 신부가 대체 뭘 했길래 이 다이아몬드 빔을 두고 갔는지 모르겠군. 여기,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찾던 오래된 은제 꼬챙이도 있네. 이걸로 종이칼을 만들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할 거야. 그리고 이 금제 담뱃갑은 자네의 작은 설리번 담배를 넣기에 딱 좋겠군."

래플스가 맞은편 쿠션 위에 반짝이게 늘어놓은 예쁜 물건들이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챙긴 대단한 전리품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물건의 가장 큰 흥미 요소가 여전히 그 호주 원정 경기의 두 번째 테스트 매치 점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겠다.

도둑을 잡기 위한 함정

불을 끄려던 참이었다. 그때 옆방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비상 경보가 울리는 듯했다. 나는 잠결에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튀어 나갔다.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한 상태였다. 시각은 새벽 한 시였다. 나는 스위거 모리슨과 그의 클럽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여보세요!"

"버니, 자네인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래플스 씨입니까?"

"나 이제 끝장이야! 버니, 자네가 필요해. 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묻지 마!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금방 갈게. 래플스, 거기 있어?"

"그게 뭐니까?"

"거기 있나, 친구?"

"예에에에에."

"올버니에서 말인가요?"

"아니, 아니요. 맥과이어네 집에서요."

"그런 말쑤은 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나저나 맥과이어는 어디 있습니까?"

"하프문가에서요."

"그건 저도 압니다. 지금 그가 거기 있나요?"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 그리고 난 붙잡혔어."

"잡혔다고!"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함정에 걸렸어. 자업자득이지. 믿지 않았거든. 하지만 결국 걸리고 말았어... 결국... 결국 말이야!"

"매일 밤 함정을 설치한다고 말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오, 래플스, 도대체 어떤 함정인 거야? 난 이제 어쩌면 좋지? 뭘 가져가야 해?"

하지만 대답을 거듭할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지쳐갔다. 그러다 마침내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래플스가 거기 있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이라곤 그의 수화기와 내 수화기 사이를 잇는 전선에서 흐르는, 낮고 금속성 섞인 웅웅거림뿐이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사방의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였다. 짧은 신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사람의 몸이 둔탁하게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침실로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는 벗어 던져 두었던 구겨진 셔츠와 예복 속으로 몸을 내던지듯 밀어 넣었다. 당시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중이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새 넥타이를 꺼내 평소보다 제법 정갈하게 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래플스뿐이었다. 래플스가 사악한 함정에 빠져 있고, 비열하게 웃는 괴물이 몰래 다가와 살기 어린 일격으로 그를 쓰러뜨리는 장면만이 떠올랐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거울을 보긴 했겠지만, 내 눈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명성과 악명을 동시에 떨치는 유명한 권투 선수, 바니 매과이어의 끔찍한 환영이 가득 차 있었다.

래플스와 내가 임페리얼 복싱 클럽에서 그를 처음 소개받은 건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인 그 사내는 대륙 너머에서 거둔 잔혹한 승리에 여전히 취해 있었고, 이곳에서도 새로운 정복지를 찾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매과이어 본인이 대서양을 건너오기도 전에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화려한 호텔들은 그를 문전박대했고, 그는 이미 하프문 스트리트에 저택 하나를 빌려 호화롭

게 꾸며놓은 상태였다. 그 집은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고 있다.

래플스는 그 거구의 야수와 금세 친구가 되었지만, 나는 겁에 질린 채 그의 다이아몬드 스토퍼와 보석이 박힌 시계 줄, 18캐럿 팔찌, 그리고 6인치나 되는 거대한 턱을 살피기에 급급했다. 래플스가 특유의 뻔뻔한 태도로 그 장신구들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마치 냉철한 감정가처럼 굴었지만, 내게 그 태도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차라리 호랑이의 이빨을 직접 마주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가 매과이어를 따라 그의 다른 전리품들을 보러 집으로 향했을 때, 나는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굴은 실로 경이로운 곳이었다. 집 안 전체가 유명한 가구 업체에서 꾸민 듯 정갈했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곳곳에는 당대 최고의 화려한 가구들이 가득했다.

전리품들은 더욱 놀라웠다. 그 물건들을 보고 있자니, 대서양 건너편에서 행해지는 고결한 기술의 밝은 이면을 비로소 알 것만 같았다. 전시된 물건 중에는 네바다주가 권투 선수에게 수여한 보석 박힌 벨트도 있었고, 새크라멘토 시민들이 준 금괴와 뉴욕 피스티커프 클럽에서 제작한 순은으로 만든 그의 조각상도 있었다.

나는 지금도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떠올리곤 한다. 래플스가 매과이어에게 빈집털이범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고, 매과이어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도둑이라도 잡아낼 함정이 있다며 호기롭게 대답하던 순

간을 말이다. 물론 그 함정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함구했지만 말이다. 당시의 나는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저 헤비급 권투 선수보다 더 무시무시한 함정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래플스가 그 허풍 섞인 호언장담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나중에 내가 그의 무모한 결심을 나무랐을 때도 그는 딱히 부인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그 계획에 휘말리는 것만은 결사코 막으려 했을 뿐이다.

결국 래플스가 마지막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묘한 만족감이 밀려오기도 한다. 만약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끔찍한 둔탁한 소리만 아니었다면, 그가 하필 그날 밤을 선택한 그 빈틈없는 통찰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바니 매과이어는 영국 땅에서 첫 번째 대전을 치렀다. 그 전투를 치르기 전 엄격한 훈련을 받던 시절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었다. 내가 짐작하기로, 래플스가 특유의 선견지명을 발휘하며 기다려온 이 휴식과 필연적인 방탕의 시간만큼, 저런 무법자가 경계심을 늦추고 자신과 재산을 지킬 능력을 상실하기 쉬운 때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피비린내 나는 승리를 거두며 혹독한 대가를 치른 무시무시한 바니 매과이어가, 그 직후에 절제된 생활을 할 리도 만무했다.

그렇다면 그 구역질 나고도 암시적인 둔탁한 소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술에 취해 최후의 일격, 즉 치명타를 맞은 것이 혹시 챔피언 본인이었을까? 래플스라면 충분히 그 일을 저지를 법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결코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다.

하지만, 하지만 대체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옷을 입으면서도, 그리고 하프문가로 향하는 한섬 택시 안에서도, 나는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생각 사이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질문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결정하려면,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 법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무모하고 직설적인 방식을 택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끔 몸서리가 쳐질 정도다. 나는 권투 선수 집 앞까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곧장 달려갔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그전에 스위저 모리슨과 그의 클럽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문이 열렸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잡은 상태였다. 전화 통화가 비극적으로 끝난 건, 바니 매과이어가 갑자기 들이닥쳐 난동을 부린 탓인 것 같았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매과이어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도둑 방지 장치를 두고 래플스와 내가 내기를 했으며, 누가 이겼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이다. 래플스가 이 목적을 위해 자고 있는 나를 전화로 깨웠다는 사실까지 고백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였다. 하지만 만약 매과이어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내 무모한 전화에 응답한 하인이 누구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어찌 되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래플스를 구해내고야 말 작정이었다.

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생각할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다. 현관 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우편함 구멍으로 안을 살피니 뒷방에서 희미한 빛줄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매과이어가 전리품을 보관하고 함정을 설치해 두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집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내가 옷을 차려입고 이곳까지 차를 몰고 오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이었다. 그 짧은 사이에 침입자를 붙잡아 바인 스트리트로 끌고 갔을 리는 없지 않은가. 끔찍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벨을 눌렀다. 하지만 그 막연한 추측과 초조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허무하게 끊기고 말았다.

피카딜리에서부터 브롬(brougham) 한 대가 느릿느릿 거리를 내려오고 있었다. 우체통 구멍으로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던 나는 경악했다. 마침 그 마차가 내 뒤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곧이어 형클어진 물골의 권투 선수가 두 명의 일행과 함께 마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렸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문 바로 맞은편에는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이 나를 뵈듯 바라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권투 선수는 경기 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위세 당당한 불량배이자 허풍쟁이였으나, 지금은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다. 모자는 뒤로 넘겨쓰고 넥타이는 한쪽 귀 밑에서 엉망으로 꼬여 있었다. 그의 일행 중 한 명은 창백한 안색의 왜소한 미국인 비서였다. 이름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지만, 복싱 클럽에서 매과이어와 함께 만났

던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반짝이는 시퀀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은 아주 화려한 차림의 인물이었다.

바니 매과이어가 나에게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의 그 말투는 도저히 잊을 수도, 차마 글로 옮길 수도 없다. 하지만 스위거 모리슨이 베푼 환대 덕분에, 나는 그에게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일을 기꺼이 상기시켜 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떠오른 다른 기억들까지도 말이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래플스는 기억하시겠지요.” 내가 말했다. “며칠 전 그날 밤, 당신은 우리에게 전리품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끝난 뒤라면 낮이든 밤이든 언제라도 찾아오라고 우리 둘에게 말씀하셨고요.”

나는 말을 이어가려 했다. 뒷에 관한 내기를 결판내기 위해, 래플스가 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을 덧붙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경솔한 말은 매과이어 본인에 의해 끊기고 말았다. 그는 무시무시한 주먹을 휘둘러 짐승 같은 기세로 내 손을 움켜쥐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등을 세게 후려쳤다.

“세상에, 그럴 수가!” 그가 외쳤다. “난 당신을 무슨 지독한 범죄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똑똑히 기억나는구먼.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보게 젊은이, 내 당장 당신 얼굴을 뭉개버렸을 거야. 정말이라니까! 자, 어서 들어오게나.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오해를 풀어야지. 세상에나, 제호사뻔!”

비서가 문에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는 순간 누군가 그의 목살을 잡아 뒤로 끌어당겼다. 좁은 계단 아래 난간 위로 안쪽 방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길게 쏟아지고 있었다.

“내 서재에 불이 켜져 있군.” 매과이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고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빌어먹을 문이 열려 있어! 도둑놈들이 따로 없군, 안 그래? 세상에, 제발 살아있는 놈을 잡을 수 있기를! 신사 숙녀 여러분, 일단 제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구의 사내는 마치 곡예용 코끼리처럼 발끝을 세우고 살금살금 다가왔다. 그가 열린 문턱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찰나의 순간 그의 왼쪽 팔이 피스톤처럼 앞뒤로 움직이고 머리는 뒤로 젖혀진 기이한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주먹은 다시 평범한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매과이어는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빛 아래 서서, 웃음을 참지 못해 몸을 떨며 두 손을 비벼대고 있었다.

"이리 와서 좀 봐!" 그가 우리 세 사람을 손짓하며 외쳤다. "그 빌어먹을 영국 놈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좀 보라고! 저 빌어먹을 카펫만큼이나 바닥에 처박혀서, 아주 아주 꺾 박혀버렸단 말이야!"

그때 내가 느꼈을 기분을 상상해 보라! 창백한 안색의 비서가 앞장서 걸어갔고, 그의 뒤통치에서는 반짝이는 장식들이 번뜩였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비열한 순간만큼은 당장이라도 거리 쪽 문을 통해 도망쳐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문은 우리 뒤로 닫힌 적이 없었다. 결국

문을 닫은 건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래플스와 같은 쪽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내 인격이 훌륭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었다.

“진짜 지독한 놈들이군, 이 구역질 나는 화이트채플 놈들!”

방 안에서 매과이어가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보워리 녀석들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에 비하면 천사나 다를 없지. 아, 이 빌어먹을 자식, 네 그 못생긴 얼굴에 내 주먹을 대는 것조차 아깝다만, 만약 내가 두꺼운 장화를 신고 있었다면 조금만 더 부추기면 네놈 몸뚱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도록 짓밟아 줬을 거다!”

이 일이 있고 나니, 안쪽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그리 큰 용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지, 그 정말이지 역겨운 물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는 한동안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얼굴에 가짜 수염을 붙인 것도 아니었지만, 굴뚝 청소부의 얼굴처럼 새카맣다. 옷차림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래플스가 범행을 위해 입던 옷들보다 훨씬 낡고 불결해 보였다.

앞서 말했듯, 처음에는 저것이 정말 래플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갑자기 끊게 만들었던 그 핑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생기 없는 누더기 더미는 벽에 걸린 전화기 바로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수화기는 그의 몸 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를 잘 안다고 생각하나?"

내가 겁에 질려 가슴을 졸이며 몸을 굽혀 안을 살피고 있을 때, 창백한 안색의 비서가 물었다.

"세상에, 아니에요!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정말 래플스인지, 그리고 래플스가 정말 의식을 잃은 상태인지를 확인한 뒤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그러고는 나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라고요!"

반짝이는 스팅글 옷을 입은 여자가 칭얼거렸다. 그녀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감탄사들을 연신 내뱉더니, 마침내 화려한 부채 뒤로 몸을 숨겼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다. "매과이어 씨가 말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건 전적으로 그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명한 바니는 페르시아산 카펫 위에 서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승리감에 도취된 채 우리 모두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은 서재로 꾸며져 있었는데, 만약 그 기묘한 모양의 훈증 참나무 가구들을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예술적으로 꾸며진 방이라 할 만했다. 바니 매과이어에게서 전형적인 권투 선수의 기색이라곤 사용하는 어휘와 툭 튀어나온 아래턱뿐이었

다. 나는 이미 그의 집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집 안 전체가 고급 예술 가구점에서 꾸며져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가 방금 겪은 이 작은 비극의 무대가 된 방과 똑같은 스타일의 방을 전시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옷을 입은 인물은 커다란 못이 박힌 기묘한 의자에 앉아, 마치 육지로 올라온 연어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비서가 두드려 만든 금속 경첩이 달린 커다란 서랍장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권투 선수의 배경이 되는 방 안은 참나무와 타일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다. 목수의 손을 갓 떠난 새것 그대로의 벽난로 구석이 있었고, 그의 총알 같은 머리 뒤편으로는 납유리창이 달린 도자기 찬장이 놓여 있었다. 그의 충혈된 눈은 팔각형 탁자 위에 놓인 디켄터와 잔들을 향했다가, 다시 가장 기묘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술 보관용 회전 테이블 위의 또 다른 디켄터로 향하며 풍요로운 즐거움에 젖어 이리저리 움직였다.

"정말 기막힌 일이지 않소?"

권투 선수가 우리를 한 명씩 번갈아 보며 웃었다. 검게 충혈된 눈과 부어오른 입술이 인상적이었다.

"도둑놈을 잡으려고 함정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 빌어먹을 도둑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이보시오, 선생," 그는 커다란 머리를 내 쪽으로 까딱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당신이 다른 한량과 함께 들어왔을 때, 내가 함정을 하나 마련해 뒀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겠지? 아, 그 친구가 지금 당신 곁에 없다는 게 참 아쉽구려. 참 괜찮은 친구였고 나도 꽤 아꼈는데 말이야. 하지만 너무 알려고 드는 게 문제였어. 아마 그

게 화근이 된 모양이야. 그런데 말이지,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디캔터 보이냐?"

"그저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반짝이는 스팅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면, 아마 뭐라도 좀 건네주려 할 텐데 말이죠."

"금방 뭐라도 좀 가져다드리지요." 매과이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 디캔터에 든 걸 조금이라도 마셨다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친구 처럼 맥없이 쓰러지고 말 겁니다."

"세상에나!" 나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그의 사악한 계획이 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때렸다.

"예, 그렇습니다, 손님!" 매과이어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도둑놈이나 빈집털이범을 잡는 제 함정은 바로 약을 탄 위스키 한 병입니다. 여기 탁자 위에 놓인, 목에 은색 라벨이 둘러진 병이 바로 그놈이죠. 이제 라벨이 전혀 없는 저 다른 디캔터를 보십시오. 라벨만 없다면 둘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나란히 놓아 보죠. 비단 디캔터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안에 든 술도 똑같아 보이고, 맛도 아주 비슷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까지는 차이를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독은 서부 멀리 사는 인디언에게서 구한 건데, 아주 다루기 까다로운 물건이죠. 그래서 함정으로 쓰는 병에는 항상 라벨을 둘러놓고, 밤에만 라벨을 빼둡니다. 이게 제 계획의 전부입니다." 매과이어는 라벨이 붙은 디캔터를 다시 받침대에 올려놓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정도면 도둑 백 명 중 아흔아홉 명은 충분히 걸

러낼 수 있을 겁니다. 스무 명 중 열아홉 명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술부터 들이걸 테니까요.”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비서가 쓰러져 있는 래플스를 내려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전리품들은 모두 무사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매과이어가 대답하며, 물건들을 보관해 둔 고풍스러운 척하는 장식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수고를 덜어도 되겠군요."

비서가 팔각형 탁자 밑으로 몸을 쭉 집어넣으며 대꾸했다. 그러고는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나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래플스를 알고 지낸 이래, 그가 값비싼 전리품을 챙길 때마다 늘 사용하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가방이 워낙 무거워진 탓에, 비서는 양손을 다 써야 겨우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곧이어 그는 가방 안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네바다주가 매과이어에게 증정한 보석 박힌 허리띠와, 매과이어 자신의 모습을 본뜬 순은 조각상, 그리고 새크라멘토 시민들이 선물한 금괴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보물들을 다시 마주한 충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도둑놈이 결국 제 보물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분노한 탓이었을까.

매과이어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비서와 내가 미쳐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래플스의 몸을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퍼부었다.

"살살 좀 하세요, 매과이어 씨!" 창백한 안색의 비서가 외쳤다. "그 사람은 쓰러진 데다 약까지 먹은 상태라고요!"

"제기랄, 저놈이 제 발로 일어나기만 해도 천운인 줄 알아야 해!"

"경찰에 전화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놈이랑 끝장을 보기 전까진 절대 안 끝나!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 봐. 그놈 얼굴을 잼 푸딩처럼 짓이겨 놓을 테니까! 경찰들이 굴러다니는 잔해를 수습하러 오기도 전에, 그놈은 제 피로 이빨을 행구게 될 거다!"

"정말이지 속이 다 울렁거리는군요." 의자에 앉아 있던 귀부인이 불평을 터뜨렸다. "그저 뭐라도 좀 내놓으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정도 이상으로 천박하게는 굴지 말고요."

"마음대로 하게." 매과이어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헛소리 늘어놓을 생각은 말고. 그래서, 전화기에 대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비서가 대통령 매달린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내 보기엔 말이야," 그가 말했다. "도둑놈이 달아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둔 것 같아."

나는 몸을 돌려, 그 귀부인이 간절히 원하던 다과를 가져다드렸다.

"뻔뻔한 놈 같으니!" 매과이어가 호통을 쳤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다는 거야?"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본부에서 알려 줄 테니,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매과이어가 말했다. "일단 술이나 한잔하고 나서, 저 악마 같은 놈을 깨우자고."

하지만 지금 나는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보였기 때문이다. 설령 당장 래플스를 구해낸다 해도, 도둑이 전화를 건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경찰은 곧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둘 다 범인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면 나에게 직접적인 죄를 씌우는 결정적 증거가 될 터였다. 눈앞의 위기를 겨우 모면하더라도, 정황 증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침묵을 지킨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중간 방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 일에서 보여준 내 행동 중 가장 이례적이고 무모한 결단이었다. 뭐, 스위거 모리슨의 클럽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마친 양이라면, 그 어떤 양이라도 이토록 결연하고 무모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그가 나한테 전화를 건 건 아닐까?" 나는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 외쳤다.

"자네 같은 녀석을 말인가?" 매과이어가 디켄터를 손에 든 채 되물었다. "도대체 그자가 자네에 대해 뭘 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대체 뭘 안다는 겁니까?" 비서가 드릴로 뚫을 듯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을 고쳐 잡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 경솔함을 후회하며 대답했다. "다만 한 시간 전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을 뿐입니다. 래플스인 줄 알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게 도둑놈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비서가 물었다. 그의 집요한 눈빛은 내 눈을 뚫어질 듯이 파고들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비참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위안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매과이어가 잔에 들이붓는 술의 양에서도 무언가 든든한 약속 같은 것이 느껴졌다.

우리 세 사람이 팔각형 탁자에 둘러앉아 있을 때, 비서가 디켄터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물었다. "갑자기 끊긴 건가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가 대답했다.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정도예요. 아뇨, 괜찮습니다. 제게는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매과이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다.

"내 집에서 술 한 잔도 안 마시겠다고? 조심하게, 젊은이. 그건 예의가 아니야!"

"하지만 저도 밖에서 식사를 하며 제 몫을 다 쳤잖단 말입니다." 나는 항변했다. "정말로 그랬다고요."

바니 매과이어가 무시무시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봐, 꼬마야. 난 네가 아주 마음에 든단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말썽꾸러기가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정 그래야 한다면, 딱 한 손가락만큼만 주시죠."

그리고 비서는 내게 두 손가락 남짓밖에 따라주지 않았다.

"왜 하필 당신의 친구인 래플스여야 했단 말입니까?"

그는 끈질기게 추궁을 이어갔다. 한편 매과이어는 "마셔!"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다시금 맥없이 축 늘어졌다.

"반쯤 잠든 상태였거든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둘 다 전화를 사용하니까요. 게다가 우리 사이에 내기가 하나 걸려 있기도 했지요."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으나, 손도 대지 않은 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매과이어는 벌어진 셔츠 앞자락 위로 커다란 턱을 떨구며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예술적인 디자인의 안락의자에는 반짝이는 시퀀 장식을 두른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내기 말입니까?”

갑작스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서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비우며 눈을 깜빡였다.

“방금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나는 말을 하면서도 내 앞에 선 남자를 뚫어지게 살폈다. “그게 분명히 덧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래플스는 분명 다른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일로 우리는 엄청나게 다뤘습니다. 래플스는 덧이 아니라고 우겼고, 저는 맞다고 주장했죠. 결국 내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덧 쪽에 돈을 걸었고, 래플스는 다른 쪽에 걸었죠. 결과는 래플스의 승리였습니다. 덧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덧만큼이나, 아니 덧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법입니다. 아주 아주 치밀한 수법이죠. 나만 빼고 당신들 전부를 통째로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수법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차라리 목소리를 높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일부러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이 고집스러운 증언부인이 비서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비서는 내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책상 위로 고개를 톱 떨구었다. 그의 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받쳐주었지만, 미동조차 없었다. 매과이어는 셔츠 앞자락에 턱을 괸 채 꺾꺾

이 앉아 있었고, 화려한 의자에 기대앉은 여인의 옷에 달린 스팅글은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규칙적으로 반짝였다. 세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우연인지 누군가의 계획인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잠들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래플스에게 시선을 돌렸다. 동전의 뒷면을 확인해야 할 차례였다. 래플스는 여전히 적군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나는 조금 더 힘을 주어 그를 흔들었다. 그러자 그는 횡설수설하며 중얼거렸다. 저항하지 못하는 손목을 붙잡아 비틀자, 그제야 그는 욕설 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하지만 그가 눈을 깜빡이며 내 눈과 마주치기까지는, 꽤나 길고 초조한 시간이 흘러간 뒤였다.

“버니!”

그는 하품을 하며 나를 불렀다. 정신이 좀 들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정 어린 반가움에 내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역시 나를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왔구나. 그놈들은 벌써 나타났어? 곧 나타날 거야.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으니까.”

“아뇨, 안 그럴 거예요, 영감님!” 내가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혼수상태에 빠진 세 사람을 직접 확인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해하던 나보다 오히려 래플스가 덜 놀란 듯 보였다. 반면,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빛처럼 번지던 그 미소만큼은, 내 평생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환희에 차 있었다. 래플스에게 이 모든 일은 전혀 놀랍지도, 그렇다고 전혀 수수께끼 같지도 않은 일임이 분명했다.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됐지, 버니?" 그가 처음으로 속삭인 말이었다.

"매과이어는 세 손가락 정도, 나머지는 적어도 두 손가락은 되겠군."

"그럼 목소리를 낮출 필요도 없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을 필요도 없겠군. 에휴! 꿈속에서 누군가 내 갈비뼈를 걷어차는 것 같더니, 아무래도 꿈이 아니었나 봐."

그는 옆구리를 한 손으로 짚은 채, 묘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들 중 누구였을지는 뻔하지 않겠나." 내가 말했다. "그놈은 아주 호되게 당한 셈이야!"

나는 당대 최고의 난폭한 싸움꾼을 향해, 마비된 듯 멍청한 그 얼굴에 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의사를 부르지 않는 한, 그는 오전까지는 무사할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지금 깨우려고 애써봤자 소용없을걸. 그 무시무시한 약을 내가 얼마나 먹었을 것 같나? 한 큰술 정도였지! 정체가 뭔지 짐작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었거든. 확인을 마치자마자 라벨을 바꿔 붙이고 디캔터 두 개의 위치도 바꿔 놓았지. 이렇게까

지 해놓고 이 상황을 구경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더군. 그제야 알았지. 교묘하게 조제된 약물에 제대로 중독됐다는 걸 말이야. 그 상태로 집을 나선다면, 훔친 물건을 버려두고 가거나 아니면 훔친 물건을 머리에 얹은 채 길바닥에 취객처럼 쓰러져 발견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어느 쪽이든 붙잡혀서 연행됐을 테고, 그랬다면 일이 어떻게 꼬일지 모를 일이었지.”

"그러니까, 나를 불러낸 게 당신이었군!"

"그건 내 마지막 번뜩이는 영감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일종의 섬광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시엔 깨어 있었다기보다 거의 잠든 상태였으니까요."

"단서가 잡히고 나니, 래플스, 자네 말투가 딱 그랬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체 결론이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나, 버니."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더군."

"전화기로는 못 들으셨나요?"

"마치 우리가 같은 방에 있었던 것 같군. 다만 나는 매과이어가 자네보다 한발 앞서 움직여서 자네를 기절시킨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래플스가 이토록 흥미를 느끼며 감명받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미소가 변하더니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몸을 두고 바니 매과이어와 한판 붙으려고 번개처럼 달려온 거잖아! 버니, 거인 잡는 책도 자네한테는 상대가 안 됐을 거야!”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나는 나의 경솔함과 운을 동시에 떠올리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털어놓듯 말했다. “늙은 스위거 모리슨을 아십니까?” 나는 마지막 설명을 덧붙였다. “그의 클럽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래플스는 길고 노련한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서린 다정한 빛은 여전히 내게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이었다.

“식사를 얼마나 진하게 했든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버니, 술을 마시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지. *in vino veritas*. 네 배짱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거든! 난 한 번도 네 용기를 의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실,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방법은 오직 네 배짱뿐이라고 믿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내 얼굴빛도 분명 어둡게 변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저 집에서 흔적 없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세 사람이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잠든 방 문턱에서 래플스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문제는 두 가지였다. 우스운 점은 래플스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내가 이미 그 딜레마의 양면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래플스가 제정신을 차리자, 나는 내 머리를 굴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을 나누어 드는 것도 그만두고 말았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난 행동이자, 나의 리더에게 본능적으로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문제에 직면해 서 있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이 못견디게 부끄러워졌다.

"우리가 그냥 도망쳐 버린다면,"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우선 네가 내 공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하게 될 거야. 게다가 일단 네가 붙잡히고 나면, 수사망의 바늘은 곧장 나를 가리키게 되겠지. 버니, 그들에게 우리 둘 중 누구도 잡혀선 안 돼. 한 명이라도 잡히면 결국 우리 둘 다 잡힌 거나 다름없으니까. 뭐, 나야 차라리 그렇게 돼도 상관없지만!"

래플스에게는 그 말이 그야말로 너그러운 배려였겠지만, 내게는 그저 당연한 소리에 불과했다. 나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나야 식은 죽 먹기지.” 그가 말을 이었다. “난 그냥 흔해 빠진 빈집 털이일 뿐이니까, 도망치면 그만이야.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거든.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사람들은 자네를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놓아준 거지? 도대체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버니? 그게 핵심이야. 사람들이 모두 잠든 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래플스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마치 흥미진진한 소설을 쓰는 작가처럼 무언가 구상하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이내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번뜩였고, 얼굴에 칠한 검은 분장 너머로 표정이 확 바뀌었다.

“알았어, 버니!” 그가 외쳤다. “자네도 그 물건을 좀 챙겼군. 물론 다른 사람들만큼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야.”

“멋지군요!” 내가 외쳤다. “마지막엔 다들 정말이지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양이 아주 적을 거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자네 차례에 깜빡 졸았더군. 하지만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자네였지. 그사이 나는 이미 달아난 뒤였네. 금괴와 보석이 박힌 허리띠, 그리고 은제 조각상도 함께 사라졌지. 자네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려 애썼어. 하지만 실패했지. 아니, 애를 썼다 해도 성공할 수는 없었을 거야. 자,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했나? 그런 상황에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정말로 결백한 행동이란 대체 무엇이었겠나?”

“경찰을 부르는 게 어때요?”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별로 내키지 않았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걸 쓰면 돼.” 래플스가 말했다. “나라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겠어. 버니, 너무 침울한 표정 짓지 마.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단 사람들이니까. 네가 전하려는 말 따위는, 내가 그들에게 아무 의심 없이 먹여온 거대한 낙타들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미생물 수준일 뿐이야. 네 이야기는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설득력이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명이 더 필요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래플스조차 꽤나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아챌 거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래플스가 말했다. “수화기는 분명 제자리에 잘 돌려놓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이야. 그들이 알아챌지도 몰라.”

“그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내가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화기를 아직 제 자리에 걸어두지 않으셨잖습니까. 누워 계신 곳 바로 위로 수화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마침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그 무식한 놈들이 상황을 너무 빨리 파악하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먼저 선수 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솔직히 인정해 버렸죠. 정말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래플스가 전화한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겠지, 버니!"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누군가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네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매과이어의 이 함정을 두고 우리가 내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냈지. 있잖아, 래플스.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끼어들게 됐는지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었지.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지만 말이야. 우선 내가 한 말은, 자네

가 나보다 먼저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는 거였어. 사람들이 자네를 즉시 알아챌 경우를 대비한 말이었지. 덕분에 전화기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고 말이야.”

“당연히 그랬겠지, 버니.” 래플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말투 덕분에 내 보람은 한층 더 커졌다. “나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네가 평생을 통틀어도 이번만큼 잘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라. 아까 내 머리를 세게 내리쳤던 건 또 어땠고! 하지만 오늘 밤 네가 보여준 활약이 그 손해를 백배는 보상해 주었으니 괜찮아. 다만 골치 아픈 건,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머리를 짜내야 할 일도 산더미라는 거야. 행동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차분히 생각할 시간조차 너무나 모자라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꺼내 래플스에게 보여주었다. 새벽 세 시, 3월의 끝자락이었다. 한 시간 남짓 지나면 거리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래플스는 상념에서 깨어나더니 갑자기 결단력 있는 태도를 보였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버니." 그가 말했다. "서로를 믿고 역할을 나누자고. 자네는 경찰에 전화를 걸게.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그들이 자네를 그런 도둑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도둑이 어째서 그들이 잘 아는 나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못 떠올렸어?”

“아직은 아니야, 버니.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도 찾지 않을지도 모르지. 게다가 설명할 책임은 네게 없어. 오히려 네가 나서서 설명하려 들면 훨씬 더 수상해 보일 테니까.”

"정말 그렇겠군요." 내가 맞장구를 쳤다.

“그럼 나를 믿어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 전까지, 늦어도 물건이 필요한 때까지는 말이야. 실망시키지 않을게, 버니. 오늘 밤 이후로 내가 너를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결코 없을 거라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그것으로 상황은 정리되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래플스가 위층으로 몰래 올라가는 동안, 나는 잠든 세 사람을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 위층에는 하인들이 있었고 지하실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우리가 벌인 일을 실제로 일부 듣기까지 했다! 다행히도 그 남자는 밤마다 벌어지는 훨씬 더 요란하고 난잡한 유흥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기에, 누군가 부르지 않는 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래플스가 떠나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래플스가 나가는 것을 숨기지는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밖으로 나갔고, 나중에 내게 말하기를 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이 순찰 중이던 순경이었다고 했다. 래플스는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는데,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세수를 하러 위층에 올라갔던 참이었으니까. 게다가 권투 선수의 커다란 모자와 모피 코트 차림이라면, 한쪽 주머니에는 새크라멘토에서 가져온 금괴를, 다른 쪽 주머니에는 매과이어의 은제 조각상을 넣고, 허리에는 네바다주가 그 존경받

는 인물에게 하사한 보석 박힌 벨트까지 차고 있다 해도 스코틀랜드 야드 한복판을 당당히 행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새벽의 흥분이 가신 뒤, 당장 내가 맡아야 할 역할은 조금 힘들었다. 그저 한 가지만 말해주겠다. 우리는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 있다가, 삼십 분쯤 뒤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 안 사람들과 경찰을 깨우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삼십 분 사이에 바니 매과이어가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지고 말았다. 다행히 본인이나 동료들을 깨우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에 내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종과 전화기를 울려 비상을 알렸을 때는 이미동이 터 오고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집 안은 머리칼이 헝클어진 하인들과 성미 급한 의사들,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로 권위를 내세우는 법 집행관들로 북적였다. 나는 빈속을 부여잡은 채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이나 되풀이해야 했다. 하지만 내 설명은 아주 그럴싸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아직 다른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증언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이다. 결국 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오늘 중으로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 확신하는 용감한 경찰들이 데려올 범인을 확인해야 할 때까지 현장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곧장 아파트로 향했다. 내가 탄 한섬 택시가 멈추자마자 문지가 달려 나와 나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하프문 스트리트에 남겨두고 온 그 어떤 이들의 표정보다도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 파멸을 예감하기에 충분했다.

"도둑이 밤사이에 댁에 침입했습니다, 주인님!" 그가 외쳤다. "도둑놈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몽땅 털어갔습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다니!” 나는 경악하며 외쳤다. 올버니뿐만 아니라 내 아파트에도 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이 한두 개쯤은 있었다.

"지렛대로 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우유 배달부가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경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순경이 내 아파트에 나타나다니!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겨를도 없이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침입자는 두툼한 수첩에 공들여 메모를 적어 내려가며, 연필 끝을 연신 적시고 있었다. 그는 강제로 열린 문 너머로는 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열기에 휩싸인 채 그를 지나쳐 달려갔다. 내 전리품들은 브라마 자물쇠를 특별히 달아둔 옷장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다. 하지만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고, 서랍은 비어 있었다.

"귀중품이라도 있습니까, 선생님?" 내 뒤를 바짝 따라붙은 순경이 참견하듯 물었다.

“네, 맞습니다. 오래된 가문의 은식기들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가문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제야 진실이 머릿속을 번쩍 스치고 지나갔다. 가치 있는 물건은 다른 것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모든 방이 아무 의미 없는 잡동사니들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거리에서 나를 따라

올라온 문지기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집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이 바보 같은 놈을 최대한 빨리 떼어내게.” 내가 속삭였다. “난 지금 당장 스코틀랜드 야드로 직접 갈 거니까. 내가 없는 동안 아내에게 집안을 정리하게 하고, 아내가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물쇠를 고쳐 놓게나. 난 지금 이 차림 그대로, 당장 출발할 걸세!”

나는 곧장 길을 나섰다. 눈에 띄는 대로 가장 먼저 잡은 한섬 택시를 잡아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곧장 스코틀랜드 야드는 아니었다. 나는 가는 길에 피카딜리에 택시를 세웠다.

래플스가 직접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다. 그가 그토록 생기 넘치고, 티 없이 깔끔하며,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멋진 모습이었던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펜이 아닌 다른 도구로 래플스를 그려낼 수 있다면, 분명 그날 아침 보았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올버니의 열린 문 앞에 서 있던 그 찬란한 3월의 아침, 새벽빛을 머금은 회색 옷차림의 날렵하고 매끈한 실루엣. 그는 마치 봄 그 자체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듯, 싱그럽고 경쾌하며 활기찬 모습이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안으로 들어선 뒤 내가 물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그가 내게 담배를 건네며 대답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알아챘지."

"아직은 잘 모르겠군요."

"도둑이 왜 아무 죄 없는 신사분을 집 밖으로 불러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말했잖아, 자네를 떠나자마자 바로 알아챘다고! 그놈은 자네까지 털어먹으려고 일부러 자네를 불러낸 거야!"

래플스는 특유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광채와 대담함을 뽐내며, 나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왜 하필 저입니까?" 내가 물었다. "도대체 왜 저를 털러 온단 말입니까?"

"여보게, 버니. 경찰이 상상할 여지는 좀 남겨둬야지.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 한두 개 정도는 슬쩍 던져줄 수 있을 거야. 매과이어가 우리를 처음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때는 한밤중이었어. 우리가 그를 만난 곳도 임페리얼 복싱 클럽이었고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임페리얼 복싱 클럽에는 별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가. 그가 우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도 기억날 거야. 그리고 자네와 그가 한밤중의 거리를 걸으며 전화기와 보물에 대해 떠들었던 것도 말이지. 그는 분명히 자기 트로피를 자랑하며 들떠 있었어. 자네도 논쟁을 위해서라면, 아마 자네 트로피를 자랑하며 들뜬 거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나? 그럼 그다음엔 어떻게 될까? 누군가 자네의 대화를 엿듣고, 뒤를 밟고, 똑같은 음모에 휘말리게 만든 뒤, 바로 그 날 밤 물건을 털어가는 거지."

"정말로 이 방법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버니, 우리가 이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한에서는, 나는 그걸 확신해."

"자, 친구, 담배 한 대 더 줘.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 봐야겠네."

래플스는 경탄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스코틀랜드 야드라니!"

"내 옷장 서랍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거짓으로 진술하겠다는 말이군."

"잘못된 설명이야! 버니, 이제 나한테 배울 건 더 이상 없어. 예전 같았으면 잃어버린 우산 하나 찾으러 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못 갔을 텐데, 하물며 이렇게 가망 없는 일에 발을 들이겠다니!"

래플스가 다시 한번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나를 향해 유쾌하게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가라고 재촉할 때, 그가 마지막까지 비겁한 말로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나는 이번만큼은 전혀 아쉽지 않았다.

신성 모독의 전리품

그 시절 저질렀던 일 중에는 우리의 기록에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 일이다. 나는 래플스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어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수많은

범죄의 궤적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내 비참한 마음에서 비롯된 단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래플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번 보충 회고록에서는, 내 비열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옛 집을 습격하자고 제안하고 계획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짓밟은 자는 바로 나, 오직 나뿐이었다.

여기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스스로를 더욱 거세게 자책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 점만은 분명히 말해두어야겠다. 그곳이 우리 손을 떠나 생판 남의 소유가 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흘렀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 주인에게 상당한 편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도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법했다.

그자는 정든 옛 저택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멋대로 확장하고 개조해 버렸다. 우리 시대의 모습 그대로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게다가 그는 말에 미친 광인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온실에서 명품 복숭아를 재배하던 자리에는, 이 파괴적인 자가 온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혈통 좋은 경주마들을 키워냈다. 그 말들은 이번엔 시골의 온갖 전시회에서 상을 휩쓸고 다녔다. 그곳은 남부 지역이었는데,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온실이 하나씩 또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그에 맞춰 마구간도 확장된 것을 보며 탄식하곤 했다.

우리가 그 집을 떠난 날 이후로 그 부지에 발을 들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근처에 사는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을 몰래 살펴보려는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도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탓에 길가에서도 집 안쪽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 그 말에 미친 구매자가 건드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오직 저택 건물뿐인 듯 보였다.

내게 남은 유일한 변명은, 아마 다른 누구의 눈에도 변명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무렵 나는 범죄라는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래플스에게 뒤처지지 않겠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래플스는 모든 수익을 똑같이 나누자고 고집했고, 나는 내 몫을 스스로 벌어들여야만 했다. 지금까지 나는 위급한 순간에나 겨우 도움이 되었을 뿐이었다. 어떤 실질적인 성공이든 그 공로는 언제나 래플스에게 돌아갔다. 모든 아이디어는 늘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나는 그 관습을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내 부도덕한 선택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었다.

영국 전역을 통틀어 내가 구석구석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집은 단 한 곳뿐이었고, 래플스는 내가 말해주는 것 외에는 그 집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내가 앞장서고 래플스가 따라와야 했다. 그가 원하던 원치 않든 말이다. 래플스 본인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내 생각에 그는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 눈앞에 펼쳐진 이 파격적인 계획을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고, 래플스는 워낙 섬세한 성격이라 이런 일로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나는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기억을 더듬어 건물 모든 층의 평면도를 그렸다. 심지어 우리 집 뒷담장 너머로 몰래 사진을 찍어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근처에 사는 친구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가

기까지 했다. 어느 날 아침, 올버니에서 내가 그린 도면들을 보여주자 래플스조차 눈썹을 치켜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 도면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오로지 집 구조에만 국한했다.

“60년대 후반에 지었나 보군.” 래플스가 말했다. “아니면 70년대 아주 초반이거나.”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말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래플스, 그건 6펜스짜리 싸구려 탐정이나 할 법한 질문이잖아!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현관 위로 툭 튀어나온 저 슬레이트 탑을 좀 봐. 지붕창에 철제 난간, 그리고 꼭대기에 달린 깃대까지. 아주 전형적인 양식이야. 한 30년 전쯤 지어진 제법 규모 있는 집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것 중 가장 쓸모없는 돌출물 중 하나야.”

“우리 집은 아니었지.” 내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곳은 방학 때마다 나만의 성소나 다름없었어. 거기서 처음으로 파이프 담배를 피웠고, 첫 시도 써 내려갔거든.”

래플스가 내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버니, 버니. 자네는 그 오래된 저택을 털면서도, 정작 그곳을 비난하는 말 한마디는 못 듣는 건가?”

“그건 다른 이야기야.” 내가 끈질기게 말을 이었다. “내 시절에도 그 탑은 거기 있었지. 하지만 내가 털려고 하는 그놈은 그때 없었던 말이야.”

"정말로 할 생각이야, 버니?"

"필요하다면 나 혼자서라도 하겠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또 시작이군, 버니. 또 시작이야." 래플스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먼 곳까지 움직일 만큼 충분한 보상을 줄 것 같나?"

"멀긴 무슨! 런던에서 브라이턴까지 가는 길도 채 40마일 안 돼."

"글쎄, 그건 웬만한 노선으로 치면 100마일이나 다름없이 멀어. 그래서,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 금요일 말일세."

"난 금요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버니. 왜 하필 금요일이어야 하지?"

"그날은 그들의 헌트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경마가 열리는 밤이야. 매년 이 경기로 시즌을 마무리하곤 하지. 게다가 저 비대한 기유마르는 화려한 명마들을 앞세워 매번 판을 휩쓸어버리곤 한다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 봤다는 그 사람 말이야?"

"맞아. 게다가 그곳에 오는 사냥 친구들이나 그를 위해 말을 타는 혈기 왕성한 친구들에게 저녁 식사를 끝도 없이 대접하곤 하지." 내가 말을 이었다. "만약 축하 연회 테이블이 새로 들어온 도전 컵들로 인해

휘어질 지경이 아니라면, 그건 친구들 탓이 아닐 거야. 그래도 노신사 기유마르는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저 흔한 트로피(상패) 사냥이라는 말이군.” 래플스가 담배 연기 너머로 나를 예리하게 살피며 말했다.

“우리한테는 해당 없는 이야기야, 친구.” 나도 그와 비슷한 어조로 대답했다. “래플스, 고작 현대식 은제 식기 몇 점 때문에 올버니에 있는 옆방까지 털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네. 물론 기회만 생긴다면, 그리고 만약 기유마르가 먼저 그 잔들을 차지한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는 없지.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야. 다만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밤이 되겠지만, 최고의 침실을 지키기에는 꽤나 위태로운 밤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하군!”

“훌륭하군!”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연기 고리를 내뿜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모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여주인이 보석을 굳이 위층에 두고 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 보석들을 직접 몸에 걸치고 나올 거야, 친구.”

“전부 다는 아닐 거야, 래플스. 그 여자는 보석이 너무 많거든. 게다가 이걸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도 아니야. 듣기로는 기유마르 부인이 그곳의 유일한 숙녀인 경우가 많다더군. 게다가 부인 본인도 아주 매력적인 분이라고 해. 그런 매력적인 여인이 고작 사냥꾼들로 가득 찬 방에 나타나려고 보석을 온몸에 휘감고 나타날 리는 없잖아.”

“그 여자가 어떤 보석을 가졌느냐에 달렸지.”

"글쎄요, 그녀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을지도 모르죠."

"나도 그렇게 봤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 여자의 반지들도 말이야."

"정확해, 버니."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다이아몬드 티아라까지 두르지는 않을 테고—"

"그녀가 하나 가지고 있나?"

"—게다가 그 위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두를 리는 더더욱 없지!"

래플스는 입술에 닿아 있던 설리번을 낚아챘다. 그의 눈은 마치 그 불꽃의 끝처럼 이글거렸다.

"버니, 이 모든 게 정말 다 있다는 말이야?"

"물론 알고 말고."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그가 마구간에 돈을 쏟아붓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키우는 사냥용 말만큼이나 그 여자의 보석들도 화젯거리가 대단하지. 얼마 전 조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친구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자세히 들었어. 친구들은 제가 옛 저택의 사진 몇 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군. 친구들 말로는

에메랄드 목걸이 하나만 해도 수천 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했어."

래플스는 장난스럽게 손을 비비며 익살스러운 몸짓을 해 보였다.

“버니, 자네가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야! 하지만 자네 친구들이 정말로 막역한 사이라면, 이번 사건을 전해 듣더라도 자네가 그들 머릿속에 떠오를 일은 없을 걸세. 다만 그날 밤 자네가 현장에 있는 걸 들키지 않아야 해. 만약 들킨다면 그건 치명적일 테니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어. 원한다면 내가 계획을 짜줄 수도 있네. 나는 따로 움직일 생각이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운명의 밤에 집 밖에서 만나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작전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정교한 밑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래플스는 무대 위의 예술가처럼 이 완벽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눈앞에 닥친 상황을 돌파하거나, 급박한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도 승리를 낚아챌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다. 혹시라도 마주할지 모를 끔찍하고 막막한 변수들에 대비해, 손가락 끝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대안들을 하나씩 마련해 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그 정교한 설계는 정원 문이나 담벼락 앞에서 멈추기로 했다. 그 지점부터는 내가 지휘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도구들은 래플스만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의 전유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그 도구들의 사용을 통제하고 지시한다는 조건 하에 작전이 진행되었다.

나는 저녁 기차를 타고 예북 차림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일부러 익숙한 이정표들을 지나쳐, 아직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역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이나 떨어진 작은 역에 내렸다. 그 바람에 혼자서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도 밤공기는 온화했고 별도 총총히 떠 있었다. 나는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일은 변장을 하고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밤새도록 래플스가 내 곁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부터 그는 이미 하얀 길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팔짱을 낀 채 함께 길을 나섰다.

“일찍 내려와서 경마 구경 좀 했네.” 래플스가 말했다. “난 항상 사람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라서 말이야, 버니. 자네 친구인 길마드를 살피는 데 굳이 관람석 맨 앞줄까지 앉아 있을 필요는 없더군. 그가 왜 자기 말에는 직접 안 타는지 이제 알겠어. 그 코스를 완주할 만한 장애물 경주마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하지만 그는 참으로 대단한 품채를 가진 사람이야. 게다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찌나 의연한지, 내가 곁에서 짐을 더 얹어주기가 민망할 정도라니까.”

"말이라도 잃어버린 건가요?" 내가 쾌활하게 물었다.

“아니, 버니. 그가 경주에서 이긴 건 아니야! 그의 말들은 누가 뭐래도 그곳에서 최고였고, 친구들도 악마가 들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몰아붙였지. 하지만 매번 운이 지독하게도 없었을 뿐이야. 지금 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꼴을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겠지만 말이야. 길가에서 저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자네는 늘 집이 길이랑 너무 가깝다고 말하곤 했었지.”

"그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인가요?"

“자네가 주도하는 자리인데 내가 어딜 나서겠나? 나를 너무 모르는 군. 자네 몰래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네. 하지만 여기 대문이 있으니, 자네가 앞장서게나.”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장섰다. 소박한 모양의 가로대 여섯 개짜리 대문을 지나, 길게 뻗어 있으나 폭은 좁은 초승달 모양의 진입로로 들어섰다. 진입로 양 끝에는 각각 하나씩, 총 두 개의 문이 있었으나 그 근처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머무는 초소도 없었다. 저택의 불빛보다 더 가까운 곳에 밝혀진 등불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이 비치는 모양과 높이, 양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월계수 잎의 소리, 발밑에 닿는 자갈의 감촉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숨을 들이킬 때마다 깊게 들이마시게 되는 달콤하고도 평온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공기처럼 내 감각에 즉각적으로 와닿았다. 몰래 나아가는 우리의 움직임은 마치 어린 시절로 몰래 되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가책 없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

당장 밀려오는 후회는 느끼지 못할 만큼 흥분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흥분에 눈이 멀어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커다란 후회로 돌아올 것임을 모를 만큼 정신이 나간 상태도 아니었다. 오늘 밤 내가 저지르는 일에 대해 느끼는 이 기묘한 수치심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밤이 다 가기도 전에 나를 덮칠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원에 머무는 동안에는, 단 한 순간도 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도로 쪽을 향한 저택의 측면에는 식당 창문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베네치안 블라인드 사이로 엿보려 한다면 도로 위에서 눈에 떨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코 그 일을 강행했다. 래플스라면 결코 나를 이런 불필요하고 무모한 위험 속으로 이끌지 않았겠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왔다. 그저 우리 둘 다 보상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 낡은 블라인드 사이에는 틈이 충분히 나 있었고, 우리는 그 틈을 통해 화려하게 차려입은 식탁의 풍경을 구석구석 지켜볼 수 있었다.

길마드 부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유일한 여성이기도 했다. 옷차림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수수한 편이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만, 에메랄드의 반짝임이나 다이아몬드의 광채는커녕 머리에 쓴 티아라의 화려한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래플스의 팔을 짊 쥐었다. 래플스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사냥꾼 무리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의 아들로 보이는 풋내기 한 명을 제외하면, 남성들은 모두 저녁 모임용 핑크색 사냥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의 열

굴은 옷 색깔만큼이나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붉은 얼굴에 짧게 다듬은 콧수염을 가진 거구의 사내가 불쌍한 우리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결실을 맺던 포도밭을 짓이겨놓고 악취 나는 마구간을 세운 장본인이 바로 저 남자였다. 하지만 저 남자가 살집 있는 몸을 의자에 기대앉아, 붉은 혈기 넘치는 이들이 자신의 용맹을 뽐내거나 혹은 겪었던 불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을 듣고 있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그저 인심 좋은 촌놈처럼 보였다. 우리도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는, 래플스를 데리고 집 뒤편으로 발길을 돌렸다.

침입하기에 이보다 더 쉬운 집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그때의 나는 마치 예언이라도 받은 듯 도둑을 무서워했고, 매일 밤 침대 밑을 살피며 잠을 청했다.

1층의 돌출형 창문은 2층 창문으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었다. 발코니에는 장식용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것만큼 정교하지 않은 밧줄 사다리라 할지라도 아주 쉽게 걸 수 있을 정도였다. 래플스는 허리에 사다리를 감아 가져왔고, 사다리를 고정할 망원식 막대기도 챙겨왔다.

우리는 예전에 내가 방학 때마다 스쿼시 라켓을 가지고 놀던 붉은 벽돌 담벼락의 외진 구석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사다리를 풀었고, 막대기는 조립했다. 별빛 아래에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피보니, 붉은 벽돌 벽을 따라 예전에 내가 그어두었던 하얀 선의 흔적까지 보였다.

한때 내 방이었던 곳을 거쳐 들어가, 불이 켜진 복도를 지나 당시 가장 좋은 침실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한 마리 벌레가 된 듯한 비참함을 느꼈다. 내가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 옛날 사주식 침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두 개의 황동 침대가 놓여 있었다. 문은 그 대로였다. 어린 시절의 내 손이 바로 이 문손잡이를 움켜쥐었었다. 그리고 래플스는 우리 뒤로 문을 조용히 닫자마자, 췌기와 송곳을 이용해 복도 쪽 문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다른 문은 당연히 탈의실로 이어지는 거지? 그럼 자네가 바깥쪽 탈의실 문을 잠그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버니, 자네가 원하지 않는 한 중간 문까지 잠글 필요는 없어. 물건이 여기 없다면 분명 저 안에 있을 테니까.”

그는 작업에 열중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방 문에는 곧바로 튼튼한 빗장이 달렸다.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나는 필요 이상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우리가 올라온 밧줄 사다리를 내 옛 방으로 끌어올려 두었다. 그리고 래플스가 자기 방 문을 막는 동안, 나는 침실 창문 중 하나에서 사다리를 내려놓았다. 래플스가 늘 즐겨 쓰는 탈출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생각이었다. 나도 그저 래플스의 뒤를 무작정 따라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보석을 찾아내는 일은 래플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나는 우선 가스등을 켜다. 등불을 켜는 것 정도는 위험할 게 없어 보였다. 밝아진 빛 덕분에 래플스는 아주 의욕적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방 안에는 값나가는 물건들이 꽤 있었다. 과실빛이 도는 마호가니로 만든 고풍스러운 키 큰 서랍장도 있었다. 나는 서랍을 하나하나 다 열어 침대 위에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몇몇 서랍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어 그것을 따기도 했지만, 우리 취향에 맞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긴박해졌다. 우리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빠져나온 터였다. 저택에 홀로 남은 여인이 언제든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우리는 탈의실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래플스는 빗장이 걸린 문을 보자마자 움찔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욕실 문에 걸쇠라니,” 그가 나지막이 외쳤다. “게다가 방 안에 욕조도 없잖아! 왜 말 안 해줬어, 버니? 이런 걸쇠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침실 문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기억나지? 그런데 이건 무슨 금고 문에나 달 법한 것이라고! 만약 여기가 그들의 금고라면 어쩌지, 버니! 오, 버니, 만약 여기가 정말 그들의 금고라면 어떡하냐고!”

래플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오래된, 정교하게 조각된 참나무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상자의 판들은 기분 좋게 불규칙했고, 모서리들은 완벽할 정도로 어긋나 있었다. 유일하게 현대적인 흔적이라고는 뚜껑에 달린 튼튼한 자물쇠뿐이었다. 래플스는 쇠지렛기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10초쯤 지났을까, 자물쇠인지 뚜껑인지 모를 무언가가 '찌익' 소리를 내며 벌어졌다. 내가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흥분과 긴장감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는 이미 침실로 되돌아간 뒤

였기 때문이다. 나 역시 래플스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했다. 마침 로프 사다리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다. 1분만 더 지나면...

나는 바닥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사다리는 안쪽 나무 창틀에 아주 잘 걸어두었다. 게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설 때를 대비해, 사다리와 연장봉을 더 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연장봉도 미리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열린 창가에 도착한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래쪽에서 정체 모를 보이지 않는 손이 소리 없이 움직여, 마지막 갈고리와 구부러진 봉을 낚아채 어두운 밤의 심연 속으로 멀리 끌고 가버리는 장면을 그 직후에 목격하고 만 것이다.

“래플스, 래플스! 저들이 우리를 발견했어. 지금 당장 사다리를 치워 버렸다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발끝으로 조심스레 드레스룸을 향해 달려갔다. 래플스는 가죽 보석 상자 뚜껑 아래에 지미(jimmy)의 작업하는 끝을 끼워 넣은 상태였다. 그가 대답하며 손목을 거칠게 비틀자, 상자 덮개가 뚝 하고 열렸다.

"그걸 알아챘다는 걸 저들에게 들킨 건 아니겠지?"

"아니요."

"좋아! 이 상자들은 일단 챙겨둬. 하나하나 열어볼 시간이 없어. 뒷 계단이랑 가장 가까운 문이 어디지?"

"다른 쪽 말이야."

"자, 어서!"

"아니, 아니, 내가 앞장서겠네. 여기는 내가 구석구석 훤히 꿰고 있으니까."

나는 침실 문에 기대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래플스가 몸을 숙여 섯송곳을 풀고 뿔뿔이를 뽑아내는 동안, 나는 머릿속을 스치는 완벽한 해결책을 떠올렸다. 우리 머리 위로 곧 쏟아질 것만 같은 이 거대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피난처였다. 그들이 이 집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숙련된 도둑 두 명을 찾아낼 리 만무한 곳이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고 그 안으로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며칠 밤낮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의심을 사지 않고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 그 낙관적인 꿈이 무색하게도 상황은 틀어지고 말았다. 뿔뿔이는 이미 빠졌고, 래플스는 내 뒤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문을 열자, 우리 두 사람은 잠시 문턱에 멈춰 서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계단을 올라오는 이들은 분홍빛 옷을 입은 야만인들의 행렬이었다. 그들은 실크 양말을 신은 발끝을 세운 채 줄을 지어 올라왔는데, 얼굴은 그 어느 곳보다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계다가 손에는 채찍을 거꾸로 쥔 채 무기를 들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다. 짧은 콧수염을 기른 거구의 사내가 선두에서 행진을 이끌었다. 계단 꼭대기에

멈춰 선 그 바보는 내 귀를 때리는 듯한, 생전 처음 듣는 가장 크고 쾌활한 환호성을 내질렀다.

내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넓은 계단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왼쪽에는 벽과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난간이 있으며, 끝에는 펠트 문이 있는 좁은 계단 구간을 막 지나온 참이었다. 만약 위대한 길마드가 사냥꾼다운 명성에 걸맞게 굴러고 멈춰 서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 중 한 명은 발목을 잡혀 넘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는 둘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래플스가 펠트 문을 향해 앞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커다란 계단 통로 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때 저 아래에서 이 무식한 운동광들의 미친 듯한 고함이 들려왔다.

"가버렸어, 완전히 가버렸다고!"

"요익—요익—요익!"

"저기라고요? 저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래플스를 뒤에 달고 나는 펠트 문을 지나 뒷계단 참으로 달려 나갔다. 내가 문을 잡아주자, 래플스는 씹씹거리며 호통을 치는 집주인의 면전에 대고 문을 쿵 닫아버렸다. 이미 다른 발소리들이 뒷계단 아래층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위층 계단이었다. 우리는 곧장 위층 복도를 질주했다. 뒤에서는 멍청한 무리가 떼를 지어 쫓아오고 있었다. 하인들의 침실이 늘어선 이 복도는 거의 암흑이나 다름없었지만,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른쪽 마치

막 모퉁이를 돌아 왼쪽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자, 탑 바로 아래에 있는 방에 도착했다. 우리 시절에는 긴 사다리가 탑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어둠을 뚫고 구석에 있는 옛 사다리를 향해 돌진했다. 다행히 사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마치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사다리를 타고 단숨에 위로 뛰어올랐다. 아찔한 높이의 함정 문은 여전히 곡선형 황동 지지대로 보호되고 있었다. 나는 한 손으로 지지대를 붙잡았고, 탑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래플스가 내 다른 쪽 손을 붙잡았다. 래플스가 내 뒤를 따라 몸을 날렸고, 그 순간 함정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뒤쫓아오던 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가 아래층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며, 그 육중한 무게감이 집 전체를 흔드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자는 몸을 숙인 모양인지 아무런 충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사이 래플스와 나 사이에는 단 한 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내가 앞장서고 그가 뒤따르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마디의 말도 낭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래층의 흥겨운 무리는 여전히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다.

"쥐새끼가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테리어는 어디 있어?" 또 다른 이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그 거구의 주인은 마치 탄산수 병처럼 굽직한 체구의 사내였다. 내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슬쩍 훑쳐보았을 때 느꼈던 인상이다. 그는 머리를 세계 얻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든 듯했다. 그의 호탕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래플스와 내

가 나란히 서 있는 이 트랩도어(바닥 해치)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기척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래플스가 계속 서 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가 내게 불을 좀 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송곳을 이용해 트랩도어를 단단히 조이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문틈을 메울 때 쓰는 송곳을 서너 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송곳들을 모두 손잡이 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동안 나는 지지대를 잡아당기고 발로 밀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위에서 밀어 올리던 압력은 이내 멈췄다. 무겁고 느릿한 움직임에 사다리가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바닥에 켜둔 촛불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래플스는 네 개의 작은 창문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

그가 속삭였다. 자신을 이런 함정에 빠뜨린 사람에게 속삭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에,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알다시피, 우리에겐 로프 사다리도 없지 않나."

"나 때문이야." 나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전부 내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버니.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창문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너그러움에 나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이끌고, 경사진 슬레이트 지붕과 평평한 납판이 내려다보이는 안쪽 창문으로 향했다. 어릴 적 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찔한 재미를 느끼거나, 커다란 사각형 천창을 통해 집 안의 깊은 우물 같은 공간을 지나 아래층 홀을 내려다보는 매혹에 빠져, 종종 그 지붕 위를 기어오르곤 했다. 꼭대기 층에 빛을 들이기 위해 만든 작은 천창이 몇 개 더 있었기에, 그중 하나를 통해 급히 침입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눈앞에서 천창 하나가 눈부신 사각형 빛을 내뿜으며 열리더니, 불타는 듯 달아오른 어깨와 붉게 상기된 얼굴이 그 틈으로 나타났다.

“깜짝 놀라게 해주지!” 래플스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는 순식간에 리볼버를 꺼내 들더니, 권총 손잡이로 창문을 박살 냈다. 이어 돌출된 머리에서 채 1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총알 한 발을 날려 기와를 맞혔다. 내 기억이 맞다면, 밤의 약탈자로서 활동해 온 래플스의 전 생애를 통틀어 그가 총을 쏜 것은 오직 그 한 번뿐이었다.

"그를 맞히진 않았지?" 복도가 무언가 부딪히는 굉음을 내는 사이, 머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연히 안 그랬지, 버니." 래플스가 탑 안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만약 붙잡히기라도 하면 십 년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지. 그래도 지금 저들이 작전 회의를 하는 동안 5분이라도 더 벌 수 있

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 머리 위에 있는 거, 지금도 쓸 수 있는 것대인가?"

"예전에는 그랬었지."

"그럼 밧줄이라도 있겠지."

“빨랫줄처럼 가늘었습니다.”

“분명 다 썩었을 거야. 게다가 우리가 그걸 베어 내는 걸 남들이 봐서도 안 되고. 아니, 버니, 그건 안 될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혹시 피뢰침 같은 건 없나?”

"그랬습니다."

나는 옆창문 하나를 열고는 손을 뻗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멀리 뻗었다.

“저 천창으로 들키고 말 거야!” 래플스가 경고하듯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요, 못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 피뢰침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굵은가?" 내가 몸을 안으로 들이며 래플스 곁으로 다가가자, 그가 물었다.

"연필보다는 조금 더 굵군요."

“가끔은 버틸 만해.” 래플스가 흰색 새끼 엄소 가죽 장갑을 끼며 말했다. 그는 손수건을 한쪽 장갑 손바닥 안에 쑤셔 넣었다. “문제는 놓치지 않고 꼭 잡는 거야. 하지만 오늘 밤 전에도 오르내려 본 적이 있어. 게다가 이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 버니,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무사히 내려가는 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나랑 똑같이 따라 해.”

"하지만 만약 못 내려가시면요?"

“내가 못 내려가면,” 래플스가 창문으로 발부터 밀어 넣으며 속삭였다. “자네는 그 자리에서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난 아케론에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는 더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그의 가벼운 태도와 그가 처한 위험이 동시에 나를 전율케 했다. 4월의 창백한 별빛 아래서 그를 멀리까지 쫓아갈 수는 없었다. 다만 탑을 따라 벽돌과 슬레이트 사이로 흐르는 배수관에 그의 팔뚝이 잠시 머무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 위치는 바닥 높이쯤이었다. 이어서 그가 우리가 뒤져 놓았던 바로 그 방의 처마 밑, 훨씬 더 낮은 곳에 있는 모습도 어렵듯이 보였다. 그곳에서부터 그 도선은 건물 정면의 꺾인 모서리를 따라 곧장 지면까지 이어져 있었다. 사고 없이 여기까지 무사히 내려간 것을 보니, 래플스는 이제 거의 다 내려간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의 근력도, 강심장도 없었다. 창가로 올라가 내 차례가 되어 뒤로 기어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지막 순간에야 예전의 그 작고 오래된 탑을 가로막는 것 없이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다. 래플스는 저 멀리 비껴나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양초 하나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비친 익숙한 아지트는,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라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탑 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다락문으로는 조금 더 작은 사다리가 이어져 있었고, 고정된 좌석들은 곁에 살아있는 오래된 니스칠이 겹겹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아니, 니스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고, 탑 바깥의 풍향계들은 끼익거리는 소리로 내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소년 시절 가장 좋아하던 이 은신처에서 보냈던 수많은 날과, 여기서 읽었던 수많은 책을 떠올렸다. 사방으로 경사진 지붕에 도머 창문이 하나씩 달린 이 지저분하고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과거의 애절한 장면들을 걸어놓은 화랑으로 변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목숨을 걸고, 주머니에는 흠친 보석을 가득 채운 채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만약 내려가는 길에 그 도선이 나와 함께 떨어져 내린다면, 혹은 내가 발을 헛디뎈 미끄러진다면 어찌지? 만약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된다면? 하필이면 이 창문 바로 아래에서, 수치스러운 범죄로 얻은 전리품을 주머니에 가득 넣은 채 시체로 발견된다면 말이다.

...새벽녘이면 햇살이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그곳...

내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든 줄을 놓치지 않고

버텼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뜨겁게 달궜진 철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는 사실만 기억날 뿐이다. 래플스의 곁, 화단 옆에 서서 숨을 몰아쉬는 내 양손은 이미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벌써 집 안에서는 새로운 소란이 일고 있었다. 위층을 휩쓸고 지나간 흥분의 파도가 아래층으로 무섭게 되돌아치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진입로 가장 자리를 따라 래플스의 뒤를 쫓아 달렸다.

우리는 처음 몰래 들어왔던 곳과는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왔다. 마구간 뒤편으로 난 개인용 골목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여 있었다. 래플스는 탁 트인 대로를 따라 곧장 달리는 대신, 오른쪽 골목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다. 내가 선택했을 길은 아니었지만, 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래플스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가 앞장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다.

어느덧 마구간에는 샹들리에를 켜 듯 불이 밝혀져 있었다. 마구간 앞마당에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우리가 간발의 차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커다란 문이 열렸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채소밭 담장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대로는 멀어져 가는 말발굽 소리만이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를 기다리던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마구간에서 벌어질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야. 저 소란스러운 소리 좀 들어봐, 불빛도 보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 시즌 마지막 질주를 위해 사냥용 말들을 내보낼 거야!"

"래플스, 저들에게 기회를 줘선 안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서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영리하다면 1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기차역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덩불을 샅샅이 뒤지라고 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할 곳이 딱 한 군데 떠오르는군."

"그게 뭘니까?"

"이 담장 너머 말이야. 버니, 정원이 얼마나 넓지?"

"6, 7에이커 정도 됩니다."

"자, 아침이 올 때까지 몸을 좀 숨길 수 있게 자네의 또 다른 옛 아지트로 나를 데려가 주게."

"그래서 그다음은요?"

"오늘 밤은 이 정도로 충분해, 버니! 우선은 몸을 숨길 은신처부터 찾아야겠어. 저 골목 끝에 서 있는 나무들은 대체 뭐지?"

"세인트 레너드 숲입니다."

"장관이군! 저쪽을 살살이 뒤지느라 자기 집 앞마당은 돌볼 겨를도 없을 거야. 자, 버니, 나 좀 받쳐 올려줘. 금방 끌어올려 줄 테니까!"

정말이지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곳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이 끔찍이도 싫고 두려웠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추억이 깃든 두 번째 은신처를 떠올린 상태였다. 이 치욕스러운 밤을 위해 그곳을 비천한 용도로 써먹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백 야드 넘게 떨어진 정원 구석진 곳에는, 내가 기억하는 시절에 파인 작은 인공 호수가 있었다. 호숫가는 완만한 잔디밭과 만병초 덩불이 가파르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덩불 사이에는 어린 시절 나의 기쁨이었던 아주 작은 보트하우스가 숨어 있었다. 그곳은 이 작은 호수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작은 나룻배를 두는 선착장이자, 금붕어 사이에서 아침 목욕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간이 욕실이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이 저택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한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한 피난처는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덩불과 위험천만한 잔디밭을 지나 만병초와 호수 사이에 놓인 그 작은 오두막으로 래플스를 안내했다. 래플스 역시 내 생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 밤이었다! 우리가 몸을 숨긴 작은 탈의실에는 문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물 쪽으로, 다른 하나는 산책로 쪽으로 나 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두 문을 모두 열어두어야 했고, 동시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

은 필수였다. 4월의 눅눅한 밤공기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 공기는 우리의 저녁 예복과 가벼운 오버코트를 뚫고 들어와 뺏속까지 스며들었다. 상황이 주는 정신적 고통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며 증폭되었다. 그러면서도 귀는 온통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만병초 사이로 들려올지도 모를 발소리에 곤두서 있었다.

처음에 겨우 구별해낼 수 있었던 소리들은 전부 마구간 쪽에서 들려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구간의 소란은 예상보다 빨리 잦아들었다. 결국 사냥용 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내비친 건 래플스 본인이었다.

반면, 자정이 조금 지나자 진입로에서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관목 사이를 살피러 나갔던 래플스가 살금살금 돌아오더니, 손님들이 떠나고 있다고 내게 속삭였다. 손님들은 아주 즐거운 기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둘러 떠나고 있었다. 래플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하며, 아마 술 기운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가 부럽다는 말도 슬쩍 건넸다.

나는 목욕을 마친 뒤 몸을 말릴 때 쓰는 벤치에 앉아 무릎을 툇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래플스가 다시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그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에,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직접 밖으로 기어 나가 그를 찾아 나설 때까지는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고 근처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을 떼며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잔디밭이 내려다보일 때까지 조심스레 더 깊숙이 발을 들였다. 별빛 아래 펼쳐진 잔디밭은 마치 깨끗하게 닦아놓은 석판 같았다. 집보다 가까운 곳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고요했다. 이 고요함은 혹시 함정을 파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교활한 침묵일까? 설마 래플스가 붙잡히기라도 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로운 심정으로 보트하우스로 되돌아왔다. 그를 기다리며 홀로 보낸 그 긴 시간들이 두려웠고, 마침내 자갈 위로 들려오는 그의 은밀한 발소리를 들었을 때는 울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를 맞으러 나가지 않았다. 발소리가 점점, 점점 가까워질 때까지 나는 앉아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 문이 열리고, 강철빛 새벽녘의 빛을 등진 채 승마복 차림의 거구인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고, 거구의 사내는 장난스럽게 내 어깨를 톡 쳤다.

“늦어서 미안해, 버니. 하지만 그 차림 그대로였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야. 내 옷 위에 이 승마복까지 껴입었더니 완전히 딴사람이 된 기분이야. 자, 여기 네가 입을 만한 젊은이용 옷도 가져왔으니 이걸로 한번 제대로 변장해 보자고.”

"결국 또 남의 집에 침입했군요!"

"어쩔 수 없었어, 버니.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 불이 다 꺼지고 나서도 한 시간은 더 기다렸어. 그제야 여유를 가지고 드레스룸을 훑었지. 유일한 난관은 집 뒤편에 있는 아들 방을 찾아내는 거였는데, 보다시피 결국 해냈잖아. 그 신발들이 딱 맞기만 하면 좋겠네, 버니. 자, 네 에나멜 가죽 구두 좀 줘 봐. 돌을 채워 넣어서 연못에 가라앉혀 버리게. 내 구두도 똑같이 할 생각이야. 여기 각자 갈색 구두 한 켤레씩 있어. 아직 들킬 염려가 없을 때 이른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해.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해당 역을 출발하는 이른 아침 열차는 오전 6시 20분이다.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기에, 열차를 배웅하러 나온 첩이 달린 모자를 쓴 경찰관도 한 명 있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아주 세련된 차림의 신사 두 명을 찾으려 객실 안을 유심히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덕분에 그는 승마복 차림의 거구—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와, 그를 부축하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역시나 말(馬)을 다루는 데 능숙해 보이는 일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 귀하신 분들이 탄 열차는 오전 8시 28분에 빅토리아 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클래팸 정션 역에서 미리 내렸고, 배터시에서 피카딜리 사이를 이동하며 마차를 몇 번이나 갈아탔다. 그 과정에서 옷가지 몇 벌도 마차에 두고 내렸다. 그들이 올버니에 나란히 앉았을 때는 겨우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보았다면, 래플스와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 다른 걸 하기 전에,” 래플스가 말했다. “가져올 때 미처 열어보지 못한 그 작은 상자들부터 좀 확인해 보자고. 버니, 내가 자네에게 건네줬던 것들 말이야. 나는 정원에서 내 상자를 좀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부인이 보석을 제대로 챙겨서 차고 있었나 보군.”

래플스는 내가 요청에 따라 꺼내 놓은 묵직한 가죽 가방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까지만 요구를 들어주었다. 가방을 건네주는 대신, 나는 한눈에 나의 비참한 비밀을 꿰뚫어 본 듯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걸 드러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들도 비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언제 들여다보았나?"

"탑 안에서요."

"글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마음대로 하세요."

"이보게, 버니. 이 상자 안에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목걸이가 들어 있었음이 틀림없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리고 이 상자엔 티아라가 들어 있었겠군."

"그렇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예언했듯, 그리고 우리 둘 다 직접 목격했듯, 그녀는 그 어느 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래플스,” 내가 말했다. “결국 솔직하게 말할게. 자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 했지만, 차라리 사실을 말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두 가지 물건은 모두 탑에 두고 왔어. 변명하거나 해명할 생각은 없어. 아마 그 탑의 분위기에 휩쓸린 것뿐일 거야. 하지만 자네가 떠나고 내가 막 나서려던 그 마지막 순간, 갑자기 그런 충동이 밀려왔어. 그대로 가다간 분명 목이 부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죽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주머니에 그런 물건들을 넣은 채로 그 집에서 죽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았어.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다고 비난해도 좋아.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달게 받겠네. 자네를 속이려고 그 상자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 내 행동은 히스테릭했고 비겁했어.”

“버니, 자네는 언제나 거짓말에 서툴렀지.”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의 기분은 물론, 자네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건가? 사실, 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네.”

"내가 느꼈던 게 바로 그거라는 말이지, 래플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말입니다. 보트 창고에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 사나운 스포츠맨 무리가 그렇게 빨리,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흠어진 걸 보고 무언가 일이 터졌거나 들켰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잡은 게 아니라, 훨씬 더 값진 무언가를 찾아낸 게 분명했으니까요. 게다가 당신의 그 태연한 모습이 딱 그랬고요. 운 좋게도 제가 직접 확보한 상자들은 비어 있었고, 두 개의 전리품은 당신 차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 끔찍한 의심을 확인해 보려고, 불이 켜진 베네치안 블라인드 사이로 다시 한번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봤을 것 같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었을뿐더러, 굳이 진상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자네가 약탈하자고 했던 그 두 불쌍한 사람 말인가?” 래플스가 물었다. “그들이 이 예쁜 물건 두 개를 보고 벌써부터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건가?”

그는 구겨진 저녁 예복 주머니 양쪽에서 손을 꺼내더니, 내 코앞에서 두 물건을 펼쳐 보였다. 한쪽 손에는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다른 쪽 손에는 눈부신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들이 에메랄드를 감싸듯 박힌 에메랄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나를 용서하려 노력해 주게, 버니.”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저지른 일이나, 그걸 되돌리려 했던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사실 이제 다 끝난 일이니, 자네가 수습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야. 하

지만 이보게, 우리 둘 다 목숨과 몸, 그리고 자유까지 걸었던 일 아닌가? 게다가 난 자네처럼 감상적인 양심 따위는 없었네. 그런데 내가 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겠나? 그 선량한 친구의 드레싱룸에 내가 두 번째로 들어갔던 사건의 내막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가서 새 옷을 챙겨 입게나. 그리고 나서 20분 뒤에 터키식 목욕탕에서 만나자고. 몸이 꽤 찢찢해서 말이야. 아침 식사는 냉각실에서 같이 하면 되겠군. 게다가 버니, 자네의 옛 아지트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으니, 이제 노섬벌랜드 애비뉴에서 마무리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겠나.”

래플스의 유물들

1899년 12월호 잡지 중 하나에 실린 기사 하나가, 당시 온 세상을 뒤흔들던 남아프리카 전쟁의 소란으로부터 우리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여유를 주었다. 그때는 래플스의 머리카락이 정말로 희끗희끗하던 시절이었고, 그와 나는 악명 높은 전문 털이범으로서 은밀한 제2의 전성기를 마무리해가던 때였다. 피카딜리와 올버니는 더 이상 우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햄 커먼 경계에 자리 잡은, 가장 평화롭고 아늑한 거점을 근거지로 삼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휴식이었다. 비록 둘 다 소박한 자전거를 타는 처지로 내려앉긴 했지만, 겨울 저녁이면 어쩔 수 없이 독서에 매달려야 했다. 그런 우리에게 전쟁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었다. 전쟁은 삶에 정당한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리치먼드 파크를 가로질러 근처 신문 가게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수많은 여정에 활력과 재미를 더해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문 가게를 다녀오던 길에, 나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 잡지는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가는 대중 잡지 중 하나였고, 기사 내용은 페이지마다 투박한 삽화가 곁들여져 있었다. 주제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이른바 '블랙 뮤지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잡지의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우리는 그 섬뜩한 전시관에 '래플스 유물'이라 불리는 특별하고 정교한 전시물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드디어 명성을 얻는군! 이건 단순한 악명 이 아니야. 평범한 도둑놈들 무리에서 벗어나, 저 거물급 신들의 반열에 오르는 일이지. 그 위대한 자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은 세월의 손길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하니까. 나폴레옹의 유물이나 넬슨의 유물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이제 내 유물도 세상에 나오게 됐어!”

“제발 우리도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간절함을 담아 덧 붙였다. 하지만 말을 내뱉자마자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래플스가 잡지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가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내가 지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가 아주 나직하게 외쳤다. 마치 머릿속으로 이미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나도 딱히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대답했다. "자네도 마찬가지고."

"물론이지." 래플스가 말했다. "내 평생 이토록 진지했던 적은 없었네."

"대낮에 스코틀랜드 야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겠다고?"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말이야." 그는 다시 잡지를 살피며 대답했다. "내 물건들을 다시 한번 보려는 거지. 버니, 여기 다 모여 있잖아. 삽화가 실려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저건 자네가 나를 안에 넣고 은행으로 가져갔던 그 상자고, 저 위에 있는 건 내 로프 사다리랑 장비들이 분명해. 저질 잡지들은 인쇄 상태가 워낙 엉망이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 직접 가서 검사해 보는 수밖에 없겠어."

"그럼 혼자서 감당하시든가요." 내가 엄중하게 말했다. "당신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나를 한눈에 알아보는 건 변함없을 테니까요."

"물론이지, 버니. 자네가 통행증만 가져다준다면 말이야."

"통행증이라고?"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쳤다. "당연히 통행증이 필요하겠지. 그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이런 전시회에 나 같은 전과자에게 통행증을 내주겠어?"

래플스는 약간 짜증스럽다는 듯 어깨를 한 번 으쓱하더니,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 기사를 쓴 친구는 통행증을 하나 얻었더군.” 그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편집장한테서 받은 거지. 자네도 마음만 먹으면 자네 편집장한테서 하나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제발 그러지는 말게, 버니. 고작 내 변덕을 채워주겠다고 자네가 그 짧은 망신을 감수하기엔 너무 끔찍한 일 이니까. 만약 내가 자네 대신 나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겠나? 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면 들킬 확률이 아주 높잖아. 게다가 다들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으니 말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 자네가 짊어져야 할 뒷감당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라고! 그러니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게, 친구. 자, 이제 내 잡지 좀 읽게 내버려 두게나.”

내가 더 이상의 항변도 없이 그 무모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말을 굳이 덧붙여야 할까? 요즘 들어 변해버린 래플스의 돌발적인 행동에는 이미 익숙해진 터라,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바뀐 상황 때문에 겪는 모든 불편함은 오로지 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감옥에 갇힘으로써 이미 저지른 잘못을 다 털어냈지만, 래플스는 그저 죽음으로써 처벌을 면했다는 의심을 받을 뿐이었다.

결국 래플스가 발을 들이기 두려워하는 곳에 내가 대신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나는 외부 세계와 나누는 모든 정직한 거래를 대행하는 그의 전권 대리인이 되었다. 래플스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토록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분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느끼는 굴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가 가진 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남용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우려를 품은 채, 그의 까다로운 부탁을 들어주려 플리트 가로 향했다. 과거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서 이미 나름의 낮은 입지를 다져가던 중이었다.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성공이 뒤따르는 법이다. 어느 화창한 저녁, 나는 스코틀랜드 야드 수감자 관리국에서 온 카드 한 장을 들고 햄 커먼으로 돌아왔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카드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다시 보니 날씨가 적혀 있지 않아 놀랍기만 하다. 카드 아래에는 내 편집자의 이름과 함께 '일행(and party)'이라는 글자가 휘갈겨 써져 있어, 이 카드를 가져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박물관 관람을 허가함'이라는 문구대로 입장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그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래플스에게 설명했다. "그러니 우리 둘 다 원하기만 한다면, 둘 다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래플스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꽤 위험할 거야, 버니. 만약 사람들이 자네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나를 의심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의 정체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조금의 위험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버니, 난 꼭 직접 보고 싶어서 마음을 굳혔지만, 그렇다고 자네까지 굳이 이 일에 끌어들이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이 카드를 내미는 순간 이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소식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럼 구경이라도 하러 거기 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아무런 상관없을 거네."

"그 티켓은 일행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혼자서만 그걸 사용한다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모르지."

"그럼 우리 둘 다 가는 거야, 버니! 약속할게." 래플스가 외쳤다. "절대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할게. 하지만 유물들을 보여달라고 조르면 안 돼. 설령 보게 되더라도 너무 관심을 보이지 마. 질문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래도 친구, 네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꽤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어때?"

이른 오후의 날씨는 온화하고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를 뚫고 비스듬히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낮게 깔린 것만 빼면 겨울답지 않은 날씨였다. 웨스트민스터 다리 아래쪽에서 올라온 래플스와 나는 잠시 멈춰 서

서, 황금빛 안개 속에 평평한 회색 실루엣으로 떠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국회의사당의 희미한 모습을 감상했다. 래플스는 휘슬러와 아서 세번을 나직이 읊조리더니, 연기가 자신과 그림 사이를 가로막을 것 같이라며 질 좋은 설리번 담배 한 개비를 던져 버렸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한 그 무법천지의 삶 중에서, 지금 내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림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래플스가 블랙 뮤지엄에서 나를 위해 정말로 아무런 해가 없는 즐거운 구경거리를 마련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그 불길한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구역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무표정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안내하며 스윙 도어를 통과시키고 돌계단을 오르게 하는 와중에도 하품이 나올 듯 지루하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그 무심한 태도에는 오히려 불길한 기운마저 서려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텅 빈 차가운 대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래플스는 본능적으로 주변 시설을 훑어보며 살폈고, 나는 전임 위원장의 초상화 앞에 서서 발을 구르며 차례를 기다렸다.

“아, 정말 대단한 신사분이군!”

내 곁으로 다가온 래플스가 외쳤다.

“예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뵈 적이 있어. 그때 내 사연을 그분께 털어놓고 상담도 했었지. 하지만 버니, 블랙 뮤지엄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리 모르는 척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이야. 몇 년 전 화이트홀에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아주 유능한 형사 한 분이 나를 안내해 주었던 기억이 나거든.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지.”

마침내 복도 끝에서 우리와 합류한 그 젊은이를 보았을 때, 나는 단
번에 그에게서 탐정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서기 같은 느
낌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의 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높
이 솟아 있었고, 얼굴은 그 깃만큼이나 창백했다. 그는 험거운 열쇠 하
나를 들고 복도를 따라 조금 걸어가더니 문을 열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끔찍한 저장고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세상의 그 어떤 흥미로운
장소보다도 방문객의 발길이 뜸할 법한 곳이었다. 장소는 마치 침범할
수 없는 묘실처럼 차가웠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유리 진열장의 덮개를
벗겨내고 나서야 겨우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살인자들
의 데드마스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목이 부어오른 채 평온한 표정
을 짓고 있는 그 얼굴들이 선반 위로 툭 튀어나와, 마치 유령처럼 우리
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친구, 별거 아니군." 블라인드를 올리며 래플스가 속삭였다. "그
래도 방심해서는 안 돼. 내 일행들이 모퉁이 쪽 움푹 들어간 곳에 대기
하고 있으니, 차례가 올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마."

우리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유리 진열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
작했다. 곧 나는 우리 안내인이 안색이 창백한 만큼이나 그 내용물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름대로 열의를 보였
으나, 정작 아는 건 아주 얇고도 틀린 것뿐이었다. 첫 번째 살인범을 전
혀 다른 사건의 범인과 혼동하더니, 급기야는 우리 집단의 보석 같은
존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내뱉으며 실수를 저질렀다.

“이 권총 말입니다.” 그가 입을 뗐다. “유명한 도둑 찰스 피스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놈의 안경이고, 이건 지렛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칼은 찰리가 경찰관을 살해할 때 썼던 바로 그 칼입니다.”

나는 정확함 그 자체를 좋아한다. 스스로도 정확함을 추구하며, 때로는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니 이 대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건 좀 틀린 것 같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다. "그는 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무원은 뺏뺏하게 폴을 먹인 것에 목이 갇힌 듯, 고개를 뺏뺏하게 돌렸다.

"채울리 피스가 경찰관 두 명을 죽였어." 그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았어. 그들 중 한 명만이 경찰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칼로 사람을 죽인 적도 한 번도 없었어."

그 직원은 내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라도 그 지적을 참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래플스는 남몰래 내 발을 아주 매섭게 건어차며 보답했다.

"찰스 피스가 누구였지?"

래플스가 물었다. 마치 법정에 앉은 판사처럼 태연하고 뻔뻔한 태도였다.

직원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겪은 도둑 중 최고였지." 그가 말했다. "우리 착한 래플스가 그놈을 해치우기 전까지는 말이야."

"래플스 이전의 범죄자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였지."

단순 살인 사건의 기록물들이 있는, 좀 더 안전한 구역으로 넘어갈 때 주인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곳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 뒤틀린 총알과 피 묻은 칼들이 놓여 있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엄격한 응징을 가했던 매끄럽고 가느다란 밧줄들도 보였다. 길게 늘어선 선반에는 감긴 눈과 부어오른 목을 가진 처형된 살인자들의 데드마스크 아래, 리볼버들이 삐죽삐죽 꽂혀 있었다. 줄사다리들도 줄지어 늘어져 있었으나, 우리 것만큼 정교한 것은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서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물건이 나타났다. 작은 양철 담배 상자였다. 화려한 포장지에 적힌 이름은 설리번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래플스와 나는 이 전시물을 서기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자, 보세요.” 안내인이 말했다. “저 물건에 얹힌 사연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스무 번까지 맞춰보라고 기회를 드릴 테지만, 스무 번째 답도 첫 번째 답만큼이나 엉뚱할 테니 기대는 마세요.”

"확실히, 이 사람아." 래플스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시간을 아끼게, 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나."

그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스물다섯 개비짜리 낡고 대중적인 담배 통을 열었다. 통 안에는 담배가 몇 개 남아 있었지만, 담배 사이사이에 숨뭉치로 감싼 설탕 덩어리들이 꽉 끼어 있었다. 래플스가 그 내용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은근한 만족감을 느끼며 무게를 가늠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보였다. 하지만 점원의 눈에는 그저 래플스가 의도한 대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기묘한 광경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정도면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미국식 수법이었거든요. 영리한 양키 두 명이 보석상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들이 식사 중인 켈리너 식당의 개인실로 보석을 잔뜩 가져오라는 거였죠. 거기서 직접 골라보겠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송금 문제로 약간의 소동이 있긴 했지만,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면 고른 물건을 가져갈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영리했으니까요.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고른 물건들을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돈이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 소유로 간주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저 물건을 무언가로 밀봉해 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보석상은 그걸 가져가서 한두 주 동안은 절대 손대지 말고, 봉인도 뜯지 말아야 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꽤 공정한 거래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주 공평하고도 정당하지," 래플스가 훈계하듯 말했다.

"그래서 보석상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무원이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인들이 보석상이 가져온 물건 중 절반을 골

라낸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일부러 아주 천천히 물건을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오로지 눈속임을 위해, 당장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 죄다 즉석에서 지불해버린 겁니다.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짐작하시겠죠? 보석상은 그 미국인들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것이라고는 이 담배 몇 개비와 설탕 덩어리뿐이었죠."

"똑같은 상자가 두 개라니!" 내가 외쳤다. 어쩌면 너무 성급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

"똑같은 상자가 두 개라니!" 래플스가 중얼거렸다. 마치 픽워 씨라도 된 양 깊은 감명에 빠진 모습이었다.

"똑같은 상자가 두 개나 있다니!" 승리감에 도취한 사무원이 소리쳤다. "미국인들은 정말이지 교묘한 놈들이군요, 주인님! 저런 수법 하나를 배우려고 저런 수법 하나를 배우려면 ‘청어 연못’(대서양)을 건너야 한다니까요!"

"그렇겠지요." 은발의 엄숙한 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마치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오른 듯 덧붙였다. "만약 그게 래플스라는 자가 저지른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기(書記)가 뻗뻗하게 세운 깃에 목이 파묻힌 채 툭 내뱉었다. "그분은 진작에 바다 밑바닥으로 가셨는걸요."

"확실한가?" 래플스가 물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됐나?"

"찾아서 물어버렸지."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친구가 대답했다. "내 기억으론 말터였던 것 같아. 아니면 지브랄타였나? 어느 쪽이었는지 잘 모르겠군."

"게다가," 나는 이 고집스러운 작업에 다소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한마디 거들고 싶은 마음도 들어 말을 보탰다. "게다가 래플스는 절대로 그런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거야. 그가 피우는 건 딱 한 종류뿐이었거든. 그게 뭐였더라, 어디 보자……."

"설리번 담배 말입니까?" 점원이 외쳤다. 이번만큼은 그의 말이 맞았다. "다 습관 문제라니까요." 그는 스물다섯 개비들이 든 양철 상자를 내려놓고 천박한 종이 포장지로 갈아 끼우며 말을 이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피워봤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결국 취향 차이죠. 자, 만약 좀 더 저렴하면서도 맛 좋은 담배를 찾으신다면, 4분의 1 가격밖에 안 하는 골든 잼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건 말이야." 래플스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방금 전 그것만큼이나 기발한 걸 또 하나 보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점원이 우리를 안내했다. 그가 이끈 곳은 구석진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한때 전을 어린 기억을 간직했던 철판 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덮개 위에 먼지 덮개를 씌워둔 채 정체 모를 물건들을 모아두는 선반 정도로 전락해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점원이 짐짓 무게를 잡으며 덮개를 걷어내며 말을 이었다. "래플스의 유품들입니다. 그가 사망하고 매장된 뒤, 올리비에 있던 그의 방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완벽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가 쓰던 센터 비트(center-bit)이고, 이건 암석유가 담긴 병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이걸 계속 적셔두었다고 하더군요. 여기 있는 건 그가 호삼 근처 건물 옥상에서 어떤 신사를 향해 총을 쏠 때 사용했던 권총입니다. 이 총은 나중에 그가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 P. & O. 선상에서 압수된 것입니다."

래플스가 누군가를 겨냥해 총을 쏜 적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모자는 눈썹 위까지 눌러졌고, 오버코트 깃은 귀밑까지 바짝 세운 상태였다.

"우리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점원이 인정하며 말을 이었다.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간 그놈의 소중한 친구가 챙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을 테니까요. 이 빈 탄피는 펜인슐라와 오리엔트 호를 타고 올 때 황제의 진주를 숨겨두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송곳과 썰기들은 문을 고정할 때 썼던 도구들이고요. 이건 밧줄 사다리인데, 이걸 걸어 올릴 때 썼던 망원경 지팡이도 같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손님으로서 소나비 백작과 저녁 식사를 하던 날, 식사 전에 그 저택을 털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더군요. 이건 호신용 곤봉이고요. 그런데 이 작은 벨벳 주머니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양쪽에 탄력 있

는 둥근 것이 달려 있는데 말이죠. 혹시 손님께서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십니까?"

래플스는 열쇠를 소리 없이 갈아내기 위해 직접 만든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는 마치 담배 주머니를 만지듯 엄지와 검지를 가방 속에 넣어 휘저으며, 아주 즐겁다는 표정으로 그 수수께끼 같은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사를 마친 결과물이라며 강철 가루 몇 알을 내게 보여주더니, 내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 달콤한 경찰놈들 같으니라고!"

나는 그 순간, 언젠가 래플스를 때려눕혔던 곤봉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거기엔 아직 그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내가 경악하는 모습을 보자, 그 사무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특유의 뒤섞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침 그 사건도 올드 베일리 법정에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밝혀진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덕분에 내게 베풀어진 자비가 조금이나마 커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괴로웠다. 다행히 래플스가 아주 근사한 화제 전환을 해주었다. 그는 그 역사적인 궤짝 위 벽에 여전히 걸려 있을지도 모를, 자신의 옛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나는 그동안 그 사진을 애써 외면해 왔다. 사진 속 래플스는 야외 경기장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친 뒤 플란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입에는 설리번 담배가 물려 있고, 반쯤 감긴 눈에는 나태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 후 나는 그 사진을 한 장 구했다. 래플스의 가장 멋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목구비만큼은 아주 뚜렷하고 반듯했다. 나는 가끔 그 사진을 예술가라는 작자들에게 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이 만든 동상은 실제 그와는 전혀 닮지 않은 괴물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다.

"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점원이 말했다. "그러니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눈망울을 한 채, 래플스를 뵈히 바라보았다. 나는 내 친구가 보여준 그 근사한 태연함을 나도 한번 흉내 내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그에게 동료가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코트 깃 안으로 몸을 더 깊숙이 파묻으며 말했다. "그 사람 사진은 없나요?"

창백한 그 사무원이 어찌나 병색이 완전한 미소를 짓던지, 그 핏기 없는 얼굴에 주먹이라도 날려 피라도 좀 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버니 말씀이십니까?" 그 낯익은 사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손님. 그 친구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범죄자들만 모이는 곳이니깐요. 버니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죠. 래플스를 따라다닐 수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친구였거든요. 예전에 자기 집을 털어먹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을 때조차, 물건을 챙겨갈 배짱이 없어서 결국 래플스가 다시 침입해서 가져가야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니까요. 아니, 손님. 버니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습

니다. 다시는 그 친구 소식을 들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제 생각에 그 친구는 그저 해롭지 않은 부류의 악당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코트 깃을 세워 입가에 갖다 대고 숨을 몰아쉬느라,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었다. 그저 래플스가 뭐라도 한마디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을 뿐인데, 다행히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기억하는 사례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는 우산 끝으로 잠긴 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때도 어쨌든 상자 안의 사람만큼이나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의 역할이 컸던 것 같군요. 실례지만, 그 안에 무엇을 보관하시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안에 유물이 더 있을 것 같았어. 뚜껑을 열지 않고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무슨 수법이라도 부린 게 아닐까?"

"머리를 내미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점에 관해서라면 래플스와 그의 유물들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무원이 대답했다. 그는 기념물 몇 개를 옆으로 치우더니, 펜나이프로 뚜껑에 달린 작은 점검창을 들어 올렸다.

"겨우 천창 하나뿐이군." 래플스가 전혀 감흥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아니, 다른 걸 기대하신 건 아니시죠?"

점원이 다시 함문(trap-door)을 내리며 물었다. 그는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다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적어도 뒷문은 있잖아!” 래플스가 나를 향해 능청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대답했다. 나는 그 짓곳은 표정에 못 이겨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날 내가 웃은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 같은 구경꾼 두 명을 더 거느린, 누가 봐도 틀림없는 형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딱딱하고 둥근 모자에 어두운색의 두툼한 오버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차림새만 봐도 그의 직급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찰나의 끔찍한 순간, 형사의 강철 같은 눈빛이 차가운 심문하듯 우리를 훑고 지나갔다. 곧이어 점원이 래플스 유물 전시 구역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불길한 침입자는 일행을 데리고 문 맞은편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드루스 경위님 말입니다." 그 점원이 인상적인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분은 초크 팜 사건을 맡았던 분이죠. 만약 래플스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를 잡을 책임자는 바로 그분일 겁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저런 사람에게 쫓기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신네 블랙 뮤지엄에는 정말 대단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나 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 점원이 속삭였다. "두 분 신사분처럼 정경적으로 찾아주시는 분은 드뭅니다. 가끔은 몇 주씩이나 손님이 끊길 때도 있지요. 아, 방금 오신 분들은 그 경위님의 지인들 같습니다. 예전

에 그분의 범인을 잡아넣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초크 팜 사진들을 보러 오신 모양이에요. 저희에게 흥미로운 사진이 아주 많습니다. 괜 찼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야."

래플스가 시계를 꺼내며 말했다. 서기가 잠시 우리 곁을 떠난 사이, 그는 내 팔을 짊 움켜쥐었다.

"상황이 좀 위험하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토끼 처럼 겁먹고 도망쳐서는 안 돼. 그랬다간 오히려 치명적일 거야. 자네 는 사진 속에서 얼굴을 잘 숨기게. 나머지는 다 나한테 맡기고. 기회만 생기면 곧장 기차를 타고 떠날 테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명령에 따랐다.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볼 시간이 생기자 불안감도 점차 가라앉았다. 사실 래플스가 조금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 둘 다 이름과 명성만 익히 알고 있는 경위와 한 방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 물론 래플스도 세월이 흐르며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고 변했지만,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직접적인 대면 상황을 견뎌낼 배짱만큼 은 여전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명한 형사가 나 같은 무명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그 경위는 내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보다 훨씬 나중에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위험한 일임은 분명했다. 안내인이 내민 공포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내내 나는 결코 웃을 수 없었다. 살인자와 희생자들의 끔찍한

사진들을 보며 나는 여전히 흥미를 느꼈다. 내 성격 밑바닥에 깔린 기괴한 본능이 자극된 탓이었다. 나는 래플스에게 아주 유명한 학살 현장이 담긴 사진을 가리키며, 나도 모르게 비뚤어진 흥분을 담아 말을 건넸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답할 래플스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고, 다른 창가에서도 새로 온 세 사람이 사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래플스는 단 한마디 말도, 작은 기척도 없이 우리 모두의 뒤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다행히 서기는 앨범 속의 끔찍한 광경들을 보며 정신없이 몰두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기 전, 나는 놀라움을 애써 감추었다. 하지만 분노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굳이 숨기지 않기로 본능적으로 판단했다.

"내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성미 급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외쳤다. "기차를 타러 가야 한다더니, 말 한마디 없이 휙 가버렸단 말입니다!"

"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어깨를 툭 치면서 뭐라고 한 것 같긴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 빌어먹을 책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거든요. 아마 가본다고 말한 거겠죠. 뭐, 가려면 가라죠! 저는 눈앞에 있는 건 다 봐야겠으니까요."

동행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생겨날지 모를 의심을 잠재우려 안절부절못하던 나는, 그 저명한 형사와 그의 친구들보다도 더 오래 자리를 지켰다. 나는 그들이 '래플스의 유물'을 조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 코앞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이 떠나고 나니, 창백한 안색의 서기가 홀로 남았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결눈질로 그를 훑어보았다.

팁을 주는 일은 내 인생의 작은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대체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떠나는 손님으로서 충분히 후하게 팁을 주지 못해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그것은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한 세심한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기의 경우에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건넨 은화 몇 닢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 들였고, 내가 곧 써 내려가겠다고 약속한 글을 꼭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 글을 기다리느라 그는 이미 몇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만약 이 뒤늦은 기록들이 그의 흐릿한 눈동자에 닿게 된다면, 불쾌감보다는 오히려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나는 자부한다.

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황혼이 내려앉고 있었다. 세인트 스티븐 성당 뒤편의 하늘은 마치 화가 난 얼굴처럼 붉게 달아올랐다가 검게 변해갔다.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고,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마다 래플스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무모한 기대를 품고 두리번거렸다. 그가 역 근처를 서성이고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확신이 들어, 리치먼드로 가는 기차 한 대를 그냥 보내버릴 때까지 그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다리를 건너 워털루 역으로 향했고, 대신 테딩턴행 첫 기차를 탔다. 그편이 걷는 거리는 짧았지만, 강가에서 햄 커먼까지 하얀 안개 속을 더듬거리며 헤쳐 나가야 했다. 우리가 아늑하게 저녁을 먹을 시간쯤 되어서야 겨우 숙소에 도착했다. 블라인드 사이로 가물거리는 불빛만이 보였다. 결국 내가 가장 먼저 돌아온 셈이었다.

래플스가 스코틀랜드 야드의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네 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여주인은 그를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래플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준비해 두었지만, 나는 그 음식이 식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식사를 하고 말았다.

자정까지도 그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 나는 이미 집주인 아주머니를 안심시켜 드린 상태였다. 내 목소리와 표정은 분명 내 말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랄프 씨(아주머니는 늘 그를 그렇게 불렀다)가 극장에 가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그 계획을 취소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한 모양이라며, 반드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세심한 성격의 아주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샌드위치 한 접시를 가져다주었고, 나는 거실 벽난로 옆 의자에서 밤을 지새울 채비를 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차마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의무감과 충성심이 나를 이 겨울밤 밖으로 불러내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래플스를 찾으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떠오르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지만,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 그를 돕기는커녕 나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었다. 나는 래플스가 스

코틀랜드 야드를 나설 때 정체가 탄로 났으리라 확신했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거나, 아니면 새로운 은신처로 쫓겨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다. 내일 아침 신문에는 온갖 소식이 실릴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다. 사자의 입속으로 제 발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결국 사자의 이빨에 물리고 만 것이다. 과연 그는 제때 머리를 빼내는 데 성공했을까?

내 팔꿈치 근처에는 술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술병이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였다고 단언한다. 그 덕분에 나는 마침내 초조함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벽난로의 불꽃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겨울 아침의 차가운 기운에 짓눌린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의자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래플스가 내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뒤로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는 아주 태연하게 장화를 벗고 있었다.

“깨워서 미안하네, 버니.” 그가 말했다. “취처럼 살금살금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세 시간이나 계속 걸었더니 발바닥이 다 얼얼하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목을 껴안지 않았다. 대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그의 이기적인 무심함을 향해 쓰라린 눈길을 보낼 뿐이었다. 내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가 결코 알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시내에서부터 걸어왔다는 건가요?" 나는 마치 그가 평소에도 늘 그러는 사람인 양,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왔네."

그는 벽난로 앞에서 양말을 벗어 발바닥을 드러낸 채, 몸을 길게 쭉 뻗으며 대답했다.

"스코틀랜드 야드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그럼 제 짐작이 맞았군요. 당신은 내내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나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연히 했지." 래플스가 대답했다. "그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네. 한 번은 일종의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책상에서 졸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한 적도 있었지. 나는 차라리 그를 깨우는 게 안전하겠다고 판단했지. 그러고는 칼튼 호텔 밖 유명 마차에 두고 온, 실체도 없는 지갑에 대해 물었지.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들어보면 런던 경시청의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거야.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따위를 캐묻는 건 야만적인 나라에서나 하는 짓이지."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한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리고 래플스, 제발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언제,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래플스는 꺼져가는 난롯불을 등지고 서서, 눈썹을 치켜뜯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랬는지는 버니, 자네도 나만큼이나 잘 알지 않나.” 그가 수수께끼 같은 말투로 말했다. “조만간 진실한 이유와 경위를 전부 들려주겠네. 여보게, 그때 자네에게 차마 말할 면목이 없어서 그랬지만, 사실 스코틀랜드 야드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아주 많았다네.”

“거기에 왜 갔는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외쳤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왜 거기 머물렀는지, 아니면 왜 다시 돌아갔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이유라고요! 전 당신이 붙잡힌 줄 알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간신히 따돌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래플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아니야, 버니. 내가 내 의지로 머문 거니까, 방문을 길게 한 건 내 선택이었어.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하나 다 말하기엔 너무 많아.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내내 그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직접 알게 될 거야.”

나는 방금까지 잠들었던 의자를 등지고 서 있었다. 의자 뒤편에는 둥근 하숙집 식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 위스키와 샌드위치가 깔린 식탁보 위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블랙 뮤지엄, 그 은제 상자 뚜껑을 가득 채우고 있던 '래플스의 유물'들이 전부 그곳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사라진 것은 오직 은제 상자뿐이었다. 딱

한 번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던 권총도 보였고, 피가 묻은 곤봉과 수동 드릴, 등유 병, 벨벳 주머니, 밧줄 사다리, 지팡이, 송곳과 썰기까지 보였다. 심지어 문명국 군주가 유색 인종의 통치자에게 선사했던 선물을 숨겼던 그 빈 탄피까지도 그곳에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난 정말 산타클로스나 다름없었어.” 래플스가 말했다. “자네가 깨어 있어서 그 광경을 직접 봐야 했는데 아쉽군. 내가 처음 마주했던 풍경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거든. 버니, 자네는 내 평생 내가 의자에 앉아 잠든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나!”

그는 내가 그저 의자에 앉아 잠든 줄로만 알았다! 내가 밤새도록 그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동안 겪은 온갖 고초에 더해, 하필이면 래플스의 입에서 절제에 관한 훈계가 흘러나오자 내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 덕분에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야?" 내가 엄중하게 물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야드 어디쯤입니까?"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나, 버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 숨었던 곳이야."

"설마 그 상자 안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눈이 마주쳤다.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인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였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았던 거야?”

"난 자네 몰래 빠져나간 적이 없어." 래플스가 말했다. "오히려 자네 몰래 스며든 거지."

"그 상자 안으로요?"

"정확합니다."

나는 그의 면전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보게, 나도 뚜껑 위에서 그 물건들을 다 봤다네. 그런데 그중 어느 것도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았어. 그 형사가 친구들에게 그 물건들을 보여주는 걸 내가 똑똑히 지켜봤단 말일세.”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들은 건 아니겠지?”

“궤짝 안에서 나왔어, 버니. 그런 표정 짓지 마. 바보 같으니까. 그 멍청한 놈이랑 나 사이에 오갔던 말들을 좀 떠올려 봐. 내가 그놈한테 궤짝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 안 나?”

"네."

"그게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궤짝에 채광창 말고 뒷문도 있는지 물어봤죠."

"기억납니다."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나 보군?"

"나는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야드 녀석들이 그 상자의 비밀을 알아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셨겠지요. 아, 그 비밀이라니, 그건 뒷문이 아니라 옆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옆문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좋았던 시절, 제가 당신의 방에서 제 방으로 그 상자를 옮겨온 직후에 발견했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손잡이 중 하나를 아래로 누르면, 상자 끝부분 전체가 인형의 집 앞면처럼 활짝 열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상자 윗부분에 있는 장치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게다가 물건이란 건 그 자체로 완벽하게 만들어두고 싶은 법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은행에서는 그 수법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언젠가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게다가 침실에 두면 상자 위에 물건을

잔뜩 쌓아둘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돌풍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항구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진작 이런 개선 사항을 듣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 일이 벌어졌던 당시에 물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비밀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시점이 된 지금에야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단순히 심술이 나서가 아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불신 때문이었다. 래플스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통해 그가 건네는 설명을 읽어낼 때까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나를 피해 숨으려고 거기 들어갔던 거였군요!"

"여보게, 버니. 내가 늘 살가운 사람만은 아니라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가 내게 자네 방 열쇠를 맡겨주었는데, 내가 자네에게 내 방 열쇠를 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나. 비록 결국엔 자네 주머니에서 슬쩍해버렸지만 말이야. 다만 이 말만은 해두겠네. 버니, 내가 자네를 보고 싶지 않았을 때는 아마 인간 사회에 섞이기엔 몹시 부적절한 상태였을 거야. 그러니 내가 자네를 만나 주지 않은 건 친구로서 한 행동이었네. 그런 적이 한두 번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나를 용서해줄 수 있지 않겠나?"

“맞아, 그건 그래.” 나는 쓰라린 심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래플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그러기로 마음먹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한 번쯤 생각만 해봤을 뿐이었죠. 하지만 같은 방에 있던 그 영리한 경관을 보고 나니,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그러고는 곧바로 예전의 말투로 돌아가 덧붙였다. "하지만 눈치챘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래, 버니?"

"우리가 가진 입장권 때문에 금방 꼬리가 잡히고 말 거야."

"그걸 수거해 갔나요?"

"아니요. 하지만 발행되는 수량이 아주 적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지 않습니까?"

"정확해. 그곳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몇 주씩이나 사람 발길이 끊기기도 하거든. 버니, 그 정보를 알아낸 건 바로 나야. 그리고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결코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운만 따라준다면, 그들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앞으로 두세 주는 더 걸릴 거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겠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의심을 받아야 하냐고, 버니. 난 그냥 일찍 자리를 뜬 것뿐이야. 자네는 내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줬어. 내가 직접 연습을 시켰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난 자네를 믿었어, 버니. 그리고 자네는 내 신뢰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답할 수는 없었지. 슬픈 건 말이야, 이제 자네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정말로, 먼지떨이를 들고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도둑질을 알아챌 만큼 엉망인 상태로 이곳을 떠났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가?”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생각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 부정은 말을 내뱉는 순간마저 무색하게 사라져 버렸다.

"버니, 이 물건들을 덮고 있던 먼지 덮개를 잊은 거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그 외에도 권총이나 호신용 곤봉 같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있었냐고. 난 아주 신중하게 골랐어. 내 물건들을 치우는 대신, 겉보기에 아주 그럴싸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뒤섞어서 채워 넣었던 말이지. 지금 내 것 대신 놓인 로프 사다리는 물론 원래 것만 못하지만, 상자 위에 돌돌 말아 놓으니 정말 비슷해 보이잖아. 물론 벨벳 주머니가 두 개였던 건 아니었지만, 내 지팡이 대신 아주 비슷한 다른 지팡이를 가져다 놓았고, 폴리네시아 진주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빈 탄피 하나를 가져다 놓아서 진주가 있는 것처럼 꾸며뒀어.

그 사람들이 안내원으로 고용하는 부류를 알잖아. 다음에 그 사람이 차이를 알아챌 것 같아? 설령 알아챈다 해도, 그게 우리 소행이라고 연결 지을 것 같냐고? 나는 물건들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먼지 덮개만 씌

워놓고 갔어. 그 뒤편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나 겨우 들춰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몇 주 동안 나타나지도 않거든."

우리가 서너 주 정도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했다. 그러자 래플스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버니. 술리반의 담배나 피우면서 평화롭게 있자고 말이야! 앞으로 3, 4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 만약 이번 일이 내 범죄 중 가장 사소하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범죄가 된다면 자네는 뭐라고 하겠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은 내게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결말처럼 느껴지네. 물론 단순한 감상에 젖은 범죄보다는 좀 더 래플스다운 방식으로 멈춰야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말이야. 아니, 버니, 약속 같은 건 못 하겠네. 일단 손에 넣은 이상, 다시 한번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전쟁 덕분에 필요한 흥분은 충분히 즐기고 있잖나. 게다가 3, 4주 사이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야."

그는 그때 이미 전선에 자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자신의 삶을 속죄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아니, 어쩌면 자신이 맞이할 죽음 그 자체를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결코 알 수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기묘할 정도로 예언적이었다. 제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들이 몰아치고, 사방에서 아들들이 불려 모여 벨트의 초원에서 제국의 깃발 아래 결집했던 그 3, 4주간의 시간조차 그의 말은 앞서가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일은 아주 먼

옛날의 역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래플스가 마지막 범죄를 저지르며 남긴 그 마지막 말만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다. 그 말을 내뱉을 때 느껴지던 그의 손길이나, 피로에 지친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던 다소 슬픈 빛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마지막 한마디

래플스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 중 마지막 이야기는, 이전보다 훨씬 신선하고 감미로운 필치로 쓰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받은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가 담긴 편지는 다른 어떤 독자에게보다 나에게는 훨씬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희미한 기록들이, 실물 래플스가 내게 주었던 매력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분들이 이 영웅이자 나의 친구였던 그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웅이자 나의 영웅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

우연한 만남과 잠 못 이루던 밤을 겪은 뒤, 그 편지는 내게 첫 번째 치유가 되어 주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을 여기 옮겨 적는다.

"런던 W, 캠든 그로브 코트 39번지, 1900년 6월 28일."

해리에게.

어제 우리가 그토록 기묘한 상황에서 마주했을 때, 내가 별다른 말을 건네지 못해 의아했을지도 모르겠네. 결코 자네를 무시하려던 건 아

니었네. 자네가 그렇게 처참하게 다치고 몸까지 불편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하지만 자네가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을 때, 나는 슬픔 대신 경외심을 느꼈다네.

매일 신문을 장식하는 그 무시무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네 같은 이들을, 나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네. 하지만 나는 래플스 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자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 않았나. 그래서 그에 대해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네. 길거리에서 단 몇 분 만에 전할 수도 없고, 사실 말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네. 그래서 자네의 주소를 물었던 것이라네.

“제가 마치 래플스 씨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한다고 하셨지요. 물론 그가 크리켓 경기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보았고, 그와 당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난 건 딱 한 번뿐입니다. 그것도 지난번 당신과 제가 만난 바로 다음 날 밤이었지요. 저는 당신이 우리 만남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그다음 날 밤이었죠. 다들 여러 곳으로 외출했지만, 저는 팰리스 가든스에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올라가 막 불을 밝히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래플스 씨가 발코니를 통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라는 걸 알아봤어요. 마침 바로 전날 로즈 경기장에서 그가 100점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래플스 씨는 아무도 자신의 행방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지만,

상황 자체가 워낙 뜻밖이라 저 역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반가운 놀라움은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가 당신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방문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만약 알았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당신의 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곧 저의 친구도 될 사람으로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한 말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지요. 그날 밤, 그가 그 전이나 그 후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정직했고 당신에게도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문제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래플스 씨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떠보았지요. 하지만 그는 당신이 전날 밤 그 집에 왔던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나도 그만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의아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에게 대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대답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그를 눈먼 상태로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었으니, 불쌍한 버니가 고통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는 게 맞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동시에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듯 벨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벨을 누를 수 있도록 손가락을 갖다 대고 기다리는 기색이었다. 물론 나는 그가 벨을 누르게 두지 않았다. 사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나를 발코니로 데려가 자신이 어떻게 올라와 침입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그는 이를 연속으로 침입한 것이었다. 그가 온 목적은 단 하나, 첫날 밤에는 거짓 핑계를 대고 당신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내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기까지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떠나기 전, 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여자가 되었다. 위대한 크리켓 선수이자, 그에 못지않은 악명 높은 '아마추어 좀도둑'이라 불리는 A. J. 래플스가 사실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내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어. 내 자비에 매달리며, 목숨은 아닐지언정 자신의 자유를 내 손에 맡겼지. 하지만 해리, 이 모든 건 오직 자네를 위해서였어. 자기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눈에 비친 자네의 모습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어제 보니 자네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더군. 자네 친구는 그토록 진실하면서도 헛된 자기희생을 하고도, 정작 자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죽어갔어!

해리, 이제야 자네의 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우정이 자네를 얼마나 무서운 곳까지 몰아붙였는지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어. 자네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적어도 그날 밤 이후로, 적어도 나는 이해하게 되었어. 해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언제나 이해하고 있었던단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내게 털어놓았다. 당시의 나로서는 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고, 내가 그 곁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경이로웠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그 일을 자주 곱씹어 보았고, 이제는 내 모습에 더 이상 의아해하지 않는다. 래플스 씨에게는 당신이나 나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석 같은 매력이 있었다. 그에게는 인격의 강인함과 결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격의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범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휘말리고 만다. 당신처럼 그를 섬기고 따랐을 사람이 당신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모든 것이 그저 게임일 뿐이라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게임이자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위험과 드라마

가 가득한 게임이라고 말했을 때, 당시의 나는 기꺼이 그 게임에 동참해 보겠다는 마음까지 품었을 정도였다!

그가 나를 현혹하기 위해 교묘한 궤변을 늘어놓거나 역설적인 심술을 부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지닌 타고난 매력과 유머,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얹힌 약간의 슬픔이 이성의 판단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했을 뿐이다. '마법'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을 부르는 심연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도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해도, 당신은 내 말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정신을 차려 그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라고 애원했다. 무릎까지 꿇지는 않았지만, 아마 울기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행동하더니, 순식간에 경박한 태도로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시에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거슬렸지만,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순간보다 내 마음을 울렸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와 악수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래플스 씨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찰나, 그의 얼굴은 평소의 당당하고 유쾌한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슬퍼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처음 왔을 때처럼 그 특유의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떠나갔다. 집 안의 그 누구도 그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몰랐다. 심지어 당신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네가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길게 쓰려던 건 아니었네. 하지만 자네조차 그가 자네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 얼마나 고결하게 애썼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지 않나. 그가 왜 이 일을 혼자만 간직하려 했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네.

벌써 시간이 너무 늦었군, 아니 너무 이르다고 해야 하나. 밤새 글을 쓴 모양이야. 이제 핵심만 짧게 설명하겠네. 해리,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겠다고 래플스 씨와 약속했었지. 그래, 편지도 썼고 정말 만나고 싶었네. 하지만 내가 보낸 편지에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어. 겨우 한 줄 적은 짧은 편지였는데, 자네가 그걸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차마 더 많은 글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 짧은 문장조차 자네가 내게 선물했던 책들 사이에 몰래 끼워 넣었을 뿐이었지. 몇 년이 흐른 뒤, 내 이름이 적힌 그 책들이 자네 방에서 발견되었을 테고,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내게 다시 돌아왔네. 하지만 자네는 결코 그 책들을 펼쳐 보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남긴 그 한 줄이 처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네는 그걸 보지 못했을 테고,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네.

하지만 다시 편지를 쓰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 래플스 씨는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네 두 사람에 관한 모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네. 오늘날까지도 팰리스 가든에서 있었던 일에 자네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여전히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책감을 느끼고 있네."

“어제 당신은 전쟁에 나가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지. 하지만 부디 과거에 매몰되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 잘못들을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 래플스 씨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건 그가 위험과 모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된 건 당신이 래플스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야.

설령 그 모든 일이 최악의 범죄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는 이미 죽었고 당신은 벌을 받고 있어. 세상은 잊지는 않을지언정 용서는 해주는 법이야.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젊어. 전쟁터에서의 경험도 여러 방면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당신은 늘 글쓰기를 좋아했잖아. 이제 평생을 바쳐 써 내려갈 만한 이야깃거리가 충분히 생겼으니 말이야. 이제 당신만의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해. 해리,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야!”

“내 고모인 멜로즈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건 아마 알고 있겠지? 그분은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야. 지금 사는 곳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최신식 아파트야. 방은 아주 작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넉넉하지. 여기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지내. 내가 방금 한 말들이 좀 특이하게 들린다면, 그건 다 내 이런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주게.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사실 하나 남김없이 다 말했는지 자네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야. 자네는 내가 딱히 위험할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되물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언젠가 옛 친구로서 나를 보러 와준다면, 우리가 새로 나눌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거야. 요즘 나는 글을 좀 써보려고 애쓰는 중이거든!

이 편지만 봐도 대충 짐작하겠지만, 편지가 좀 길지? 하지만 해리, 이 긴 글을 통해 자네가 이것 하나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이 편지가 길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지 않을 거야. 자네의 오랜 친구 중 한 사람이 자네를 만나서 정말 기뻐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과거'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이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그럼, 당분간은 이만 작별을 고하며, '____'로부터."

그녀의 이름은 생략하겠다. 그 외에는 무엇도 숨기지 않겠다. 처음부터 내 이름과 엮여 그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만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하지만—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결심과 어긋나는 작은 희망 하나가 피어오른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가냘픈 희망일지 모르나, 그 대답함 때문에 펜을 쥐 손가락이 떨릴 정도다. 만약 이 희망이 실현된다면, 나는 평생을 바쳐 속죄한다 해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될 것이다. 나보다 훨씬 더 고결하게 속죄한 그분에게 말이다. 그런데 래플스 그 친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단 한 마디 말조차 해주지 않았다니!